

희망플래너 이준길 씨
"SNS는 행복의 길 전하는 소통의 창구죠"
16 · 17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0월 25일) · 주간

제968호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


금주의 법구- 〈보왕삼매론〉

친구에게 이익을 추구말라
이익을 취하면 친구간 의리가 상한다.
순수한 생각으로 오래동안 교우하라.

# 불교사회NGO는 '표류 중'

## 침체된 불교NGO, 활성화 방안은?

불교계 사회참여 운동에 'NGO'가 보이지 않는다. 종단 차원의 위원회들의 활동하지만, 대중들을 이끌며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해야할 불교계 NGO들은 사안별로 성명서를 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교계 NGO들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확산됐다. 참여불교, 환경, 통일 등 분야도 다양했고 활동 역시 두드러졌다. 특히 생명평화를 위한 도보순례의 도법 스님, 새만금을 살리기 위한 3보1배의 수경 스님, 천성산 살리기의 지율 스님 등을 필두로 한 불교환경운동은 한국환경운동 지형을 바꿔 놓을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 활동가 부재가 큰 원인

하지만 현재 불교사회운동 계열 NGO의 상황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불교환경운동의 중심이었던 불교환경연대는 수경 스님이 떠난 후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고사 지경에 이르렀다. 재가운동의 산실인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이수덕 대표가 취임하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보다 활동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는 평가다.

그나마 14개 불교NGO와 승 · 재가단체를 중심으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구성돼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교계 안팎의 대형 사안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띌 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일선의 불교NGO 활동가들은 애초 불교사회참여운동의 기반이 약했고, 이를 보완할만 한 활동가 양성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불교 NGO운동의 기반은 처음 시작부터 미약했다"면서 "그나마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사회운동에 원력이 있던 스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불교NGO운동이 활성화돼 보였지만 스님들이 떠나가고 나니 당장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가든 재가든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교육이 전무하다"며 "불교의 눈으로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대중과 이를 이끄는 활동가가 부재한 것이 현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열악한 환경과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가 활동가들이 불교NGO를 떠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불교NGO단체에서 퇴직한 한 활동가는 "활동가로서 불교NGO에서 몸 담았지만, 위에서 시키는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부분이 많았다. 의사 결정구조 역시 수직적이다"라면서 "스님들과 관련 신도들이 후원하다보니 단체의 독립성과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다. 활동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기에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그들만의 운동'이 가져온 폐해

활동가 부재와 양성 실패와 함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운동 패러다임을 정립하지 못한 점도 불교사회운동 계열 NGO가 침잠된 이유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실 불교계를 포함한 한국사회 NGO는 주로 정부 정책과 기업의 개발 사업에 대한 '대형 이슈 파이팅'에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대형 개발 사업들이 잇달아 추진되며 NGO운동이 성과를 내지 못했고, '이슈파이팅' 위주로 대중성이 결여된 NGO운동에 시민들은 외면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은 불교사회운동 계열 NGO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스님 떠나고 대중 외면**
**재정·인력난, 이중고에**
**명맥만 유지 단체 많아**

**부처님 가르침 접목한**
**新 운동 패러다임 절실**
**'시민불자' 양성도 필요**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응 스님은 "NGO운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승 · 재가의 철학이 부재하다"면서 "장기적 아젠다를 가지기보다는 현안을 쫓기에 급급해 운동의 지속성을 가지기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대중과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그래도 희망은 있다

사실 수행을 통해 지혜와 통찰의 힘을 기르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는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불교 NGO는 대안문명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좋은 요건을 가지고 있다. 불교의 사회참여운동에 대한 철학과 이론 정립과 이를 통해 새로운 대안 운동으로서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응 스님은 "일반 사회의 시민운동을 주도할 정도로 불교NGO가 활성화돼야 한다. 이는 포교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전현직 활동가 스님과 재가가 허심탄회하게 현재 불교NGO의 절박한 상황을 논의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활동가는 "더 이상 반대만 하는 운동은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없다"면서 "스스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풀뿌리 NGO운동에 필요하다.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설정할 때"라고 제언했다.

불교NGO들도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교육을 통해 불자들의 시민 의식을 고취시키고 불교NGO운동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웅기 위원장은 "불교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회 현안에 동참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내년까지 개발하려 한다"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자체 교육을 진행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해 '시민불자'로 거듭나게 하고 종단과 일선 사찰에 보급해 승 · 재가교육기관에 교과목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바른 불자로 거듭나겠습니다"… 5천불자 수계

한마음선원(주지 혜원)은 11월 17일 본원 5층 법당에서 5000여 사부대중을 대상으로 '제25회 수계대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수계자 발원문 등 대행 스님의 법문 영상 시청과 함께 주지 스님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혜원 스님은 "물을 퍼봐야 물의 깊이를 알고, 마셔봐야 그 물맛을 안다"며, "말 뿐 아니라 '행'으로써 오계를 지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나은 기자

# 구전된 신라 '갑산사' 실체 찾다

## 19일 경주 공장부지서 부재 확인



경주 공장 신축부지터에서 발견된 갑산사 명문기와.

경주시 안강읍 갑산리 일대 공장 신축부지에서 신라 대형사찰로 구전되던 갑산사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사장 김종진)은 11월 19일 "발굴조사를 벌인 결과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만든 석축(石築)과 석렬(石列) 등 절터 흔적과 명문 기와 및 유물을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발견된 명문 기와에는 '甲山寺' 혹은 '岬山寺'라는 글자 새김이 되어 있다. 명문기와와 함께 벽돌에 구운 전불 또한 축대 기단에서 출토됐다. 길이 8.3㎝, 너비 7.3㎝, 두께 1.3㎝의 벽돌 전면에는 시무외인(施無畏印) 입상을 중심으로 좌우 협시보살상(挾侍菩薩像)을 배치하고 협시보살상 위에는 형상으로 변해 나타난다는 화불(化佛)이 새겨져있다. 전불은 경주 일제강점기 경주 인왕리에서 수습된 바 있었었지만 그 정황을 알 수 없었다. 갑산사의 경우 1916년 지표에 '갑산사(甲山寺)'라는 명문기와가 발견돼 절터임이 추정돼왔다.

노덕현 기자

# 세계유산 보존위한 기구 구성된다

## 조계종 · 문화재청, 대장경 긴급 자문회의서 논의

**시급한 경판부터 보존처리**
**장기적으로 세계 문화유산**
**관리 위한 기구 구성키로**

민족의 소중한 유산인 팔만대장경 경판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화재청과 불교계가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가칭) '세계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석굴암과 대장경 등 불교문화재에 대한 훼손 위험이 높아지는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 문화부와 문화재청은 11월 22일 오후 1시 해인사에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단에는 조계종 문화부장 혜일 스님 등 조계종 관계자와 해인사 보존실장 성안 스님 등 해인사 스님들, 문화재청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긴급조사에 참여한 혜일 스님은 "조사에서 훼손이 진행되는 상황은 육안으로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밀조사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자문회의에서는 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세계문화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재를 보존하는데 불교계를 비롯한 문화재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언론에 공개된 훼손된 대장경판은 300여 장으로 작은 파손 등을 합하면 1만여 장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가져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11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2000~2010년 해인사 대장경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손상이 확인된 바 있다"며 "조계종단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2014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존처리가 시급한 대장경판을 중심으로 먼저 수리 · 보존처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 13세기에 제작된 이래 글자 일부의 훼손 · 마모 등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경판이 발생했고 이들 대부분은 원판이 훼손돼 이를 대체하기 위해 이후 만들어 교체한 중복판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필리핀 태풍 피해 주민에게
자비의 손길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현대불교신문사 등 불교계 언론사와 함께 필리핀 재해재난 긴급 구호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으로 필리핀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세요.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후원계좌: 농협 301-0137-6667-11(예금주:아름다운동행)
● 문 의: (02)737-9595


968호 INDEX


시방세계 5
불교계 연말 보시행 활발



종합 2,3 2·3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복원된다
필리핀 재난 돕기 불교계 '한마음'
제6회 여성불자 108인 선정

신행 6
시각장애인 위한 경전 녹음 봉사

학술 9
동국대 · 금강대 공동 학술대회
전국 사지서 국보급 문화재 출토

해외 18
'캄마타나' 동영상, 美 이목 집중





# 화엄의 세계

그 구법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진리에 대한 간절한 마음모아 禪, 敎, 律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문수보살의 지혜와 보현보살의 실천
그리고 선재동자의 금강과 같은 구법의 마음을 배우고
이 공덕으로 일체 유정과 무정들이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마다 천도재를 지냅니다.

■ 회 비 영 가 동 참 비 : 1위당 이만원
온산림 동참금 : 이십만원
반산림 동참금 : 십만원

■ 문의처 통도사 종무소 ☎ 055)382-7182
통도사 화엄전 ☎ 055)381-1288

■ 교통편
부산지역 온천장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08:00~09:00)
울산지역 공설운동장(07:30) → 학성공원(07:35) → 우정지하차도(07:40) → 구)고속터미널(07:50) → 공업R(08:05) → 무거R(08:15) → 통도사
대중교통 부산노포동 종합터미널, 울산 시외버스터미널, 동대구 성남고속터미널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통도 IC 통과 후 통도사로 진입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
· 입 재 2013.12.03 (화)
· 회 향 2013.12.31 (화)
· 장 소 통도사 설법전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무지에서 태어난 미혹은**

**최악의 재난을 잉태한 악마이다.**

**지켜봄과 알아차림을 항상 붙들고 있거라.**

무명은 윤회계를 방랑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모든 존재들은 아주 작은 벌레라도 불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깨알이라도 그 안에 참기름 방울이 있는 것처럼요. 그러나 존재들이 그들의 참된 본성을 자각하지 못할 때 명징하지 못함이 취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존재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무명의 실상입니다.

무명은 개체적인 자아와 현상이 실재하는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이는 애책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비롯된느 다양한 감정의 흐름을 만듭니다. 이것이 윤회계의 망상이 자리를 잡는 방법입니다. 당신 마음 속에 닻을 내리고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부수고 파괴하는 것 밖에는 할 줄 모르는 악령처럼 말이죠.

일반적인 적은 아무리 잔인한 적이라 할지라도, 이 생애를 넘어서까지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것은 훨씬 더 무서운 적입니다. 수억 겁 동안 여러분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쉬지 않고 여러분이 잘못 행동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끊임없이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영적 스승의 도움으로 적어도 진짜 적이 무엇인지는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월적인 지혜의 검을 휘둘러서 '나'에 집착하는 악마와 현상의 실재에 집착하는 악마를 모두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 2016 되살아나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

### 문화재청 26일 미륵사지서 '석탑 복원 착수식'

현존 국내 최고(最古) 최대(最大) 석탑인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이 복원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라북도는 11월 26일 오후 1시 익산 미륵사지에서 '미륵사지 석탑 복원 착수식'을 개최한다.

이날 착수식은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이 일제강점기인 1915년 콘크리트 보수 이후 약 100여 년 만에 다시 제 모습을 찾는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미륵사지 석탑은 1915년 서쪽면 전체와 남쪽 북쪽면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당시 일제가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콘크리트를 덧씌웠다. 원래 9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무너진 후엔 6층까지만 남았다. 문화재청은 해체 보수 직전 모습에 최대한 가깝게 석탑을 복원할 계획으로 보수 직전 모습인 6층(높이 14.6m)까지 복원한다.

미륵사 석탑 복원은 1998년 구조안전 진단 결과, 보수가 시급하다는 판단이 나오며 진행돼왔다. 1999년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체 보수가 결정된 뒤 2001년 10월 31일 해체를 시작했다. 해체에서 발굴, 복원에 이르는 총사업비는 195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해체 중인 2009년 1월, 1층 심주석에서 사리장엄(舍利莊嚴)이 발견돼 석탑이 건립된 정확한 시기가 백제 무왕 재위 40년인 서기 639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삼국유사〉에 백제 무왕 왕비인 신라 선화 공주 발원으로 지었다는 기록과 달리 백제인 왕후의 발원으로 건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전라북도는 2010년 석탑의 해체와 발굴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이날 착수식은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라북도, 익산시 등 관계인사와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 본 행사, 사리장엄 특별전 개막식 순으로 진행된다. 착수식 본행사는 전통무용과 무왕행차 재현 공연을 시작으로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사업 계획보고와 심초석 놓기 시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1998년 복원 계획 이후**
**3D기법 등 동원해 준비**
**부재 연결 티타늄 활용**
**전통 · 첨단기법으로 복원**

#### 미륵사 석탑, 어떻게 복원되나?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전통 및 첨단 기술을 함께 활용해 탑을 복원한다. 옛 부재 중 부러진 돌은 티타늄으로 연결하고 부스러질 수 있는 돌은 특수약품으로 보존 처리해 80% 가량을 재사용할 계획이다. 새로 이 쓰이는 석재는 옛 부재와 같은 화강암 재질의 황등석을 전통방식으로 가공해 사용한다.



2016년 복원 예정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조감도. 복원에는 전통과 첨단기법이 동원된다.

그동안 복원 수준을 놓고 9층까지 복원하자는 입장과 6층까지 전체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오며 논쟁이 일기도 했지만 6층 전체 복원만 하더라도 새로운 부재가 61% 가량 들어가는 문제로 6층 부분 복원으로 결론 내려졌다. 복원이 완료되면 해체 전 기움으로 인해 14.24m였던 탑의 높이가 14.40m로 약간 높아진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해체 이전 탑은 1층까지만 온전했으며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면은 1층부터 심하게 훼손돼 있었다"며 "2층까지 원형을 추정해 완전 복원하고 3층부터 옛 부재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탑 부재는 현재 적심(積心 · 내부를 채운 돌)과 기단, 석축까지 합쳐 3000여점에 이르며 부재 무게만 1800t에 달한다. 전체 체적이 불국사 석가탑의 20배 규모다.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문화재보수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첨단 IT를 동원해 3차원 설계도를 마련한 상태다. 탑을 해체하며 이미 광파측량기 및 광대역 3차원(D) 스캐너 등 장비를 통원해 모든 석재 위치를 3D로 기록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원형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IT를 활발하게 접목하고 있다"며 "원형과의 오차가 최대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체하며 수집한 기상변화 등의 데이터를 통계 기법으로 분석한 자료와 탑 하단의 광섬유 센터 등을 활용한 상시계측시스템을 도입해 유지관리에 나선다.

한편, 현재 미륵사지 석탑 주변에는 내부 관람이 가능한 가설 덧집이 설치되어 있어 석탑의 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일반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복원과 함께 인근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북도, 익산시가 공동 개최하는 '미륵사지 석탑 사리장엄 특별전'이 2014년 3월 30일까지 계속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차장 직제 축소… 첫 여성 차장 임명

###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정기 인사 단행

**노동위 · 종평위, 사회부 복귀**
**문화사업단, 종무기관에 편입**
**40여 명 이동… 직제 개편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중앙종무기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반직 종무원 인사 이동과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조계종은 11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불기 2557년 중앙종무기관 일반직 종무원 인사를 결정했다. 이번 인사는 개편된 중앙종무기관 직제 규정에 따라 이뤄져 40여 명에 달하는 인원이 부서 이동을 하게 됐다.

먼저, 총무 · 기획 · 포교 · 교육 · 문화 등 기존 5명의 차장직이 총무 · 포교 · 교육 3명으로 축소됐다. 관심을 모았던 총무차장에는 이석심 기획차장이 임명됐으며, 김영일 총무차장은 문화재연구소 사무국장으로 보직 이동했다. 교육원 김병주 교육차장은 유임됐으며, 포교원 포교차장에는 윤영희 문화사업단 팀장으로 결정됐다. 박희승 문화부 차장은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 총무팀장은 김성동 교육원 교육팀장으로 결정됐으며, 사찰교무팀장은 윤승환 팀장이 유임됐다. 기획실 대외협력팀장에는 박주현 행정관이, 법무감사팀은 김한일 총무팀장이 자리를 옮기게 됐다. 김용구 기획팀장을 비롯해 황충기 재무팀장과 정종모 시설관리팀장, 문화부의 정유탁 문화팀장은 유임됐다.

이번 직제개편과 인사 이동으로 노동위원회와 종교평화위원회는 사회부로 복귀하게 됐으며, 사회부 정원도 2명이 늘어났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남아 활동하게 된다.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는 화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팀장 1명과 팀원 4명으로 재편됐다. 팀장에는 이상봉 불교사회연구소 사무국장이, 팀원으로는 성만제 총무부 총무팀 행정관, 김은혜 사서실 종책특보실 행정관, 홍선영 포교원 포교부 주임으로 구성됐다.

또한 조계사 성역화 사업을 담당할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사업추진위원회에는 팀장 1명과 팀원 1명이 배정됐으나, 아직 공석인 상황이다.

조계사와 봉은사, 보문사, 선본사, 약사사 등 5개 직영사찰 종무실장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직원 33명은 중앙종무기관 정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종무원 120명과 문화사업단 및 승가복지회 등 산하기관 종무원 60명 등 총 180명으로 조정됐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불교와 사회는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 조계종 화쟁위 27일 토론회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1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자 조계종 화쟁위 기획위원인 이창곤 소장이 사회를 맡아 이호근 전북대 교수와 백승권 전 화쟁위 사무국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정주진 박사 등이 발제하고 종합토론으로 진행한다.

이호근 교수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맡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외국 사례로 본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제하고, 백승권 전 국장은 '화쟁위원회 사례로 본 사회적 대화', 정주진 박사는 '사회적 대화에서의 종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신중일 기자**


Chinese as Second Language

남경대학한국캠퍼스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중의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12월 27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南京中醫學大學 1954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 필리핀 태풍 재난 돕기에 불교계 '한마음'

## 조계종 · 구호단체 등 구호 · 모금 활동 전개 활발

유례가 없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돕기에 불교계가 한마음으로 나섰다. 조계종은 2억 원의 지원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으며,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긴급구호단을 파견해 구호활동을 전개했다. 불교계 사찰과 단체들의 성금과 모금활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조계종의 구호 행보다. 조계종이 구성한 긴급구호봉사대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선발대를 보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대를 파견했다.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대는 11월 19일부터 24일까지 현지에서 긴급구호물품키트를 구성해 전달하는 구호활동을 펼쳤다.

**〈현지 구호활동 차주 상보〉**

봉사대는 레이테 섬 동부의 돌레사 지역에 거주하는 4천여 가구 약 1만 7천여 명의 주민들에게 쌀 10㎏과 라면 10개, 소금, 설탕, 담요를 양동이에 담은 긴급구호키트 4천개를 돌레사군청을 통해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구호 파견 전 브리핑에서 김동훈 조계종 긴급구호봉사대 선발대장은 "태풍이 지나간 모든 지역이 타클로반과 같이 심각한 재난상황이지만 주목 받지 못해 방치된 사각지대가 많다"며 "타클로반 동부 해안 빨로, 타나우완, 돌레사 등 지역은 전력과 석유, 식량 공급을 통한 긴급구호가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을 돕기 위해 조계종 전국 사찰들의 성금 답지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구본

**조계종 긴급 구호단 파견**

**2억 원 지원… 성금 답지**

**조계사 · 천태종 모금법회도**

사주지협의회(회장 돈관)는 1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필리핀 구호기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했으며, (사)홍법문화재단(이사장 정우)도 구룡사, 여래사와 함께 필리핀 구호기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 제5교구본사 법주사(주지 현조)는 11월 21일 아름다운 동행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조계사는 11월 20일 필리핀 태풍 피해 성금을 모연하는 설치하고 불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태고종(총무원장)도 필리핀 돕기에 적극 나선다. 태고종은 11월 12일 종무회의에서 타클로반 지역주민들을 위한 구호성금 모금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으며, 종단 중진 스님과 신도회 등에서 성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11월 17일 '필리핀 태풍 피해돕기 모금 법회'를 봉행했다.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순례법회를 열고 나누며하나되기를 통해 필리핀에 성금을 전할 예정이다.

일선 사찰의 성금 모금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총본산 조계사(주지 도문)는 11월 20일 경내에서 필리핀 태풍 피해자 구호기금 모금함'을 설치하고 십시일반 모연을 시작했다. 조계사는 12월22일 동지까지 모금함을 설치하고 불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토회 산하 구호단체 JTS도 생필품을 전하는 등 필리핀 재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로터스월드와 참여불교재가연대, 우리는선우 역시 필리핀 재난 구호성금 기부를 기다리고 있다.

**신중일 · 이나은 기자**

# 불교여성개발원, 여성불자 108인 선정

## 올해로 6번째… 27일 선정기념식

조계종 포교원 산하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경연)은 오는 11월 27일 오후4시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불교여성개발원 13주년 및 제6차 여성 불자 108인 선정기념식을 봉행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 2003년부터 불교계 여성 지도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격년제로 여성 불자 108인을 선정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6차 여성 불자108인은 방송, 정치행정, 법률, 보건의료, 경제, 언론출판, 문화예술, 교계단체, 사회단체, 복지, 자원봉사, 교육연구, 포교신행 13개 분야에서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박강자 금호미술관 관장, 탤런트 김영애, 문보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 한말선 화계사신도회장 등이 선정됐다.

1차 108인으로 불교여성개발원 창립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정경연 원장은 "창립 13년이 매우 감회가 깊으며, 650여명 여성불자108인이 무한한 여성의 힘, 어머니의 힘으로 불교계에 큰 복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나은 기자**

# 흰개미 피해 사찰에 긴급 방재

## 문화재청, 16개 사찰 및 전국 목조물 대상

아열대 기후 변화로 사찰의 흰개미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사찰 문화재를 중심으로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충청 · 호남 · 제주 지역 총 88개소 지정문화재에 실시된 이번 조사 결과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보은 법주사 대웅보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공주 마곡사 대웅전' 등 16개 사찰에서 흰개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조사와 별개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곳 5건에 대해 긴급방제를 실시하고 6건 12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긴급보수비를 지원해 방제를 시행하도록 했다.

또 조사결과 방제가 필요한 54건 255동에 대해서는 군체 제거시스템, 토양처리, 방충 · 방부처리 등을 시행했다.

문화재청은 2014년에는 서울 · 부산 · 경남 · 인천 · 경기 · 강원지역의 목조문화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더욱 포교활동에 매진해 달라"

## 조계종 포교원, 우수전법도량 16곳 지원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11월 20일 포교 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전법중심도량 16곳을 지원하는 한편 2013 신규 전법중심도량 8곳을 선정했다.

우수전법중심도량은 조계종 포교원이 어린이청소년분야 및 장애인분야 포교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지역별 113곳의 지역사찰이 선정돼있다.

올해 우수 전법중심도량에는 서울 화계사를 비롯해 완도 신흥사, 창녕 창녕포교당, 의정부 회룡사, 비로자나국제선원 등 16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찰에는 장애인용 카트, 디지털 피아노, 컴퓨터 등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수원 용주사와 예산 수덕사, 서울 흥천사 등을 신규 전법중심도량으로 선정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전법중심도량은 121곳으로 늘어났다.

이날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법중심도량 지원이 미약하지만 종단이 포교에 나서는 사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라며 "더욱 열심히 포교활동에 나서주길 바라며 종단도 더욱 많은 사찰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포교원장 송묵 스님(사진 오른쪽)이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에게 포교물품을 지원하는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 한·중·일 불교대회 中하이난서 개최

## 26~28일 400여 명 참가

한중일 3국 불교계간의 우의를 다지기 위한 제16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1월 26일 중국 하이난섬에서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8일 서울 종로 조계사 인근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하이난섬에서 진행되는 제16회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일정을 공개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등 3국 불교지도자 4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3국 교류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세계평화기원법회, 국제학술강연회 등 발표 등을 통해 3국의 불교교류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대회 둘째날인 27일 대회 개막 이후 '자연재해 후 심리치료'를 중심으로 학술강연회가 열려 필리핀 태풍피해와 사천성 지진피해 등의 사례와 불교계의 기여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 측에서 조계종 서광 스님, 천태종 월도 스님이 대표로 발제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종교 방송도 이제 HD로 본다"

## BTN, 12월부터 HD 송출

BTN불교TV(이하 BTN, 대표 구본일)가 종교방송사 최초로 HD방송을 송출한다. BTN의 HD방송 송출로 인해 앞으로 BTN 시청자들은 기존 아날로그 화질에서 벗어나 고화질로 BTN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2008년부터 HD방송을 준비해온 BTN은 4년 여 동안 장비를 갖췄고 지난 1년간 모든 프로그램을 HD로 제작했다.

최덕주 전략기획실장은 "HD방송 장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온 BTN이 HD방송 송출을 시작함에 따라 고화질 방송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 문체부 우수도서에 불서 10여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산업 진흥 및 독서문화 향상을 위해 실시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원영 스님의 〈계율, 꽃과 가시〉, 동국대 정승석 교수의 〈버리고 비우고 낮추기〉, 서광 스님의 〈치유하는 불교 읽기〉 등 불서 10여 권이 선정됐다.

이번 선정에 불서는 종교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아동청소년 등의 분야에서 고루 우수도서로 이름을 올렸다. 문학 분야에서는 법안 스님의 〈스님의 생각〉, 김용필 씨의 〈화엄경에서 배우는 성공비결 108가지〉등이며, 아동청소년분야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이 발행한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와 〈나는 김시습이다〉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우수도서는 각각 500만원 이내에서 구입해 12월까지 공공 및 작은 도서관, 소외지역 초중고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2,500곳에 배포 지원된다. **신중일 기자**

# 동행, NGO · 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

## 오는 12월 20일까지 접수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를 대상으로 '2014년 아름다운동행 NGO 및 복지단체 지원' 사업을 12월2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저소득가정 복지 증진 △인도적 지원 위한 국제개발 △대북, 탈북자 복지 증진 △환경보전 및 의식고취를 위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며 한 단체당 최대 1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NGO 및 사회복지단체, 복지시설로서 어느 곳이나 신청이 가능하며 e메일(thenanum@hanmail.net), 우편(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직접 방문으로 접수하면 된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을 2014년 1월~12월 1년 간 진행한다. **신중일 기자**




BTN 불교TV 대외협력국
인재채용

불교텔레비전(주)에서는 **본사** 및 **진주, 안동, 전주, 울산, 원주** 지역의 지사확대를 위해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찾습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모집분야는 사찰영업 (광고, 협찬 등 사찰 사업담당) 및 취재업무 입니다. 불교활동 유경험자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13년 12월 4일까지
- 접수서류 이력서, 사진, 자기소개서
- 모집분야 사찰영업 (광고, 협찬 등 사찰 사업담당) 및 취재업무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 관련문의 ☎ 02-3270-3360
- 접수방법 이메일입사지원 [bigdy4@btn.co.kr] 또는 우편접수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137-851)]

BTN 불교TV 방송문의 02.3270.3333 | ARS후원 060.800.7000
facebook.com/BTNkorea | www.btn.co.kr
youtube.com/user/BTNWORLD

## 일 주 문



**군종특별교구 국방부에 필리핀 기금**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11월 21일 국방부에 필리핀돕기 모금액 1000만원을 전달했다.



**네팔 · 북인도 성지순례**

김호성 동국대 교수는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네팔과 북인도 등지로 성지순례를 진행한다.



**제4회 민세상에 한형조 교수**

한형조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1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제4회 민세상을 수상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수상**

박종명 생명나눔 대구본부장은 11월 14일 생명나눔 활성화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 본지 정혜숙·이나은 기자 불기협 대상

### 연중기획 '마음산업-신행 · 포교 지도바꾼다' 12월 2일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서 시상식

제17회 한국불교기자상 대상인 선원빈 기자상에 현대불교신문사 정혜숙 · 이나은 기자의 '마음산업&불교' 가 선정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이강식)는 11월 19일 오후 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접수된 12작품(기획 · 해설부문 9개, 취재 · 보도부문 3개)을 심사, 2013년 제17회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현대불교신문사 정혜숙 · 이나은 기자의 연중기획 '마음산업-신행 · 포교 지도바꾼다' 를 대상인 선원빈기자상으로 결정했다.

기획해설부문에는 불교신문 안직수 · 엄태규 기자의 '특별기획-한국불교 20년 후를 생각한다' , 취재보도부문에는 법보신문 이재형 기자의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공정성 잃었다' , 특별상에는 제주불교 이병철 기자의 '사진으로 보는 제주불교 100년' 이 선정됐다.

이번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는 "불교계 기자들이 취재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고생한 흔적이 흠뻑 배어 있는 작품들이었다" 고 밝혔다.

불교기자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최승천)도 이날 회의를 열고 20주년 공로상 수상자로 채한기 법보신문사 상임논설위원, 이재우 주간불교신문사 취재부장을 선정했다. 불교기자상 시상식은 12월 2일 오후 7시 서울 STX남산타워 만복림에서 열린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 〈부고〉 박종수 안양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모친상

박종수 안양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모친 김춘자 여사께서 11월 22일 별세했다. 발인은 11월 24일에 치러졌다.

# "내성천 지켜야 환경 재앙 막을 수 있다"

### 불교계 내성천 한평 사기 운동 펼치는 지율 스님

내성천을 지키며 환경운동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지율 스님이 세상으로 나왔다. 내성천 천평 사기 운동을 불교계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기 위해서다. 11월 18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시민산방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스님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내성천 개발의 문제점을 밝히고 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스님은 지금까지 내성천 한평 사기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는 내성천 개발 계획 취소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서 있었던 천성산 개발 취소 소송은 계속 제가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는 거였어요. 때문에 내성천 땅을 사버리면 직접적인 피해자가 생기게 되는 셈이죠. 이를 통해 예산까지 책정된 공사가 취소되면서 위급한 상황은 넘어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은 그동안 내성천의 모습을 카메라에 혹은 영상에 담아 다큐 영화를 만들어 냈고 '습지와 새들의 친구' 라는 모임을 만들어 내성천 습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하천정비사업 등 또다른



**사찰 중심으로 1천 명 모금 목표**

**캠페인으로 '강' 의 소중함 알려**

이름으로 내성천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스님은 내성천 한평사기 운동을 불교계에 적극 호소하고 나섰다.

스님은 천성산 지킴이로 지난 10년 동안 10여 차례에 소송을 진행해왔고, 또 몇몇 일간지의 오보 등을 소송을 통해 바로잡기도 했다. 불교계 환경운동을 주도해온 장본인 중 한 명이기도 하지만 스님은 이 일련의 과정들이 불교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지율 스님은 스님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각 사찰을 돌면서 내성천 한평 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는 지율 스님. 공사 중단 혹은 취소가 아니라 강 개발의 문제점을 밝히고 우리의 강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는 동시에 강을 습지보존 지역으로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스님은 앞으로 △낙동강 100before& after 모래강 내성천 도록 편찬 △내성천 개발 계획 철회를 위한 가처분 소송 △모래가 흐르는 강 2 다큐 제작 △먹황새 보존과 멸종위기 종의 보호를 위한 상소(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지율 스님과 함께하는 '내성천 1박 2일 릴레이 캠핑' (11월 18~12월 18일)△내성천 모래 글쓰기, 내성천 습지에 사는 생물들 수놓기 확대 캠페인 등을 펼칠 생각이다.

특히 1박 2일 '내성천 릴레이 캠핑' 은 경북 영주시 평은면 금광리 캠프 일원에서 펼쳐지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강변에 모래글 쓰기, 내성천 소식 알리기, 지인에게 편지 쓰기 활동 등을 통해서 내성천지키기에 동참할 수 있다. (010)3017-0909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동국대 장학금 쾌척 잇따라

### 성불사 학명 스님 15일 2억 원, 소녀시대 서현 19일 1억원 기부

종립대학 동국대에 장학금 쾌척이 잇따르고 있다. 소녀시대 멤버 서현은 11월 19일 서울 중구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우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 며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서현은 "사실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며 "동국대에서는 꿈과 열정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그 친구들과 학교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어 기부를 결정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불사 학명 스님은 11월 15일 동국대를 방문해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2억 원을 기부했다.

학명 스님은 김희옥 동국대 총장에게 "동국대 불교대학과 불교대학원의 비전선포식 및 동문의 밤 행사를 앞두고 기부하게 됐다. 불교대학 발전을 위해 써달라" 며 1억원을 전달했다. 또 학명 스님은 은사스님인 철웅 스님의 법명을 딴 강의실을 만드는 데에 보태달라며 1억원을 추가로 쾌척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문이기도 한 학명



소녀시대 서현(사진 오른쪽)이 김희옥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스님은 지금까지 불교대학원 발전기금, 벽담장학, 교지매입기금, 교육연구환경 개선기금 등으로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 제 21회 불교언론문화상 수상작 선정

### 대상에 EBS 다큐프라임 '천장(天葬)'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보리가 주관하는 제21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EBS 다큐프라임 '천장(天葬)' (2부작)이 선정됐다.

'천장天葬' 은 망자의 육신을 독수리에게 내어주고 영혼을 하늘로 떠나보내는 독특한 장례의식, '천장' 을 통해서 불교의 가르침과 생사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네팔 무스탕 지역과 중국 티베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TV부문**은 최우수상에 KBS 파노라마석굴암이 우수상은 BTN 3.1절 특집 '암흑 속에 핀 화엄 불국토, 초월의 일심교' 와 부산MBC '선문촬요, 마음속 부처를 읽다' 에게 각각 돌아갔다.

**라디오부문** 최우수상에는 울산 MBC 부처님 오신날 특집 '바그마티강의 이별' 이 우수상에는 BBS불교방송 다큐에세이(2부작) '라디오 템플스테이' 나를 위한 행복 여행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문부문** 최우수상에는 불교신문 취재 2부(안직수 하정은 엄태규) '특별기획 한국불교20년 후를 생각 한다' 와 중앙일보 신준봉 기자의 '육조혜능 열반 1300주년, 한국 선불교의 뿌리' 가 각각 차지했다. **불교언론인상**은 이동식 조계종 미디어위원회 회장(前 KBS 기자), 특별상은 아창재 감독의 다큐영화 '길위에서' 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21회 불교언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5



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 일본사찰, 동전모아 보덕사에 기증



일본 불교성지인 남장원(주지 하야시가쿠죠)이 11월 18일 한국관광객들이 보시한 동전을 모아 보덕사(회주 삼중)에 기증했다.

남장원은 일본 불교 성지 고야산 진언종의 규슈지역 본산으로 세계최대 와불로 유명하여 연간 1만명의 한국불자들이 찾는 곳이다. 주지 하야시가쿠죠 스님은 1997년 부터 보덕사 삼중스님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오고 있다.

삼중 스님은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일주일간 보덕사에서 기도한 후 남장원측의 숭고한 뜻을 살려 소년원과 재활시설, 교도소, 이수현 재단 등에 전달하겠다" 고 밝혔다. 양측스님은 이 행사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협의했다.

**노덕현 기자**

## 일붕선교종 법계고시 품수식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11월 21일 신영동 일붕선원 대법당에서 '전 종도 법계고시 품수식' 을 봉행했다. 이날 품수식에는 원로의장 혜천 스님, 총무원장 경원 스님, 교육원장 법해 스님, 고시위원장 용운 스님 등 종단 임원 및 종도 100여명이 참석했다.

원로의장 혜천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일붕존자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에 전념하고 종단의 기둥으로 거듭나자" 고 당부했으며, 총무원장 경원 스님은 "승가의 품위로 스스로가 종단 자체임을 명심하여 정진하자" 고 축사를 대신했다. 가사 및 법계증을 수여한 선덕, 계덕, 종사, 명덕까지 총 55명의 스님이 법계를 품수했으며 법계고시 성적우수자 도우 스님 외 5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 종단발전에 노력한 교육원장 법해스님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노덕현 기자**


봉 행

#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 불기 2557년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산림 및 전종도 법계고시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 비구니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전종도 법계고시를 봉행한바,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제방에 사룁니다

**종 정 : 석진 지공**
**총무원장 : 경원**
**교육원장 : 법해 고시위원장 : 용운 고시위원 : 승원, 보성**

**법계품수자**

덕봉, 대륜, 해월, 용운, 현암, 경담, 석성, 보성, 지성, 혜수, 경담, 승원, 지명, 동청, 무착, 도허, 편궁, 자운, 제법, 연화, 호원, 대각, 법일, 도우, 현오, 령산, 정암, 보은, 일명, 자림, 혜성, 무상, 해동, 정철, 붕원, 원공, 수오, 보원, 일현, 연오, 법려, 지흘. 덕운. 성운, 혜암, 혜청, 혜정, 호준, 현초

**구족계수계산림 입제일 : 불기 2557(2013)년 11월 12일**
**법 계 고 시 입제일 : 불기 2557(2013)년 11월 13일**
**법 계 고 시 회향일 : 불기 2557(2013)년 11월 14일**
**법 계 고 시 장 소 : 인천 호 불 사**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 일붕선원 1층 /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02)991-8176

# 불자들 연말 보시행…겨울이 따뜻하다

## 2013년 겨울 나눔행사 활발

또 다시 겨울이 성큼 찾아왔다. 추운 날씨 속에 겨울을 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찰과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들의 자비나눔행이 활발하다. 전국 각지의 사찰과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홀로 사는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가정을 위해 김장김치를 담그거나 연탄 및 난방비, 동절기 한파 대비 서비스를 지원하기에 나섰다.

### 출재가 한마음 돼 김장김치로 나눔보시

연말 보시행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김장김치 나눔이다. 특히 사찰에서는 김장 운력이라 하여 한철을 나기위한 김장담그기를 겸해 관내 복지관 등에 나눔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밖에도 동짓날을 맞아 팥죽나눔 등 다양한 먹거리 나눔행이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는 11월 23~24일 경내에서 1만 포기 김장을 담근데 이어 담근 김치를 12월 초까지 관내 복지관 및 강남구청에서 추천한 독거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해 배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3월부터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자비동전으로 만드는 희망공동체' 캠페인을 진행해 모은 동전을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한다. 봉은사는 복지법인 봉은이 설립·운영 중인 달마학교 외에도 광진희망세상, 도깨비방망이 등 총 9개 지역아동센터를 후원한다. 이와 함께 12월 21일에는 동지 팥죽 나누기 행사를 열고 자율 공양형식으로 팥죽을 판매한 수익금을 '책붓다'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에 사용한다. 또 매주 신도들의 자원봉사자들의 독거어르신 밑반찬 나눔봉사와 작은 보시 또한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02)511-6070

**서울 성북 길상사(주지 덕운)**는 11월 29~30일 길상사 공양간에서 2013김장나눔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불교자원봉사 모임 맑고향기롭게도 12월 4~5일 길상사 주차장에서 김장담그기 행사를 열고 성북구 내 불우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다. (02)741-4696

교구본사를 비롯한 지역 각 사찰은 사중 스님들이 한마음이 되어 김장운력을 진행한다. **예산 수덕사(주지 지운)**는 12월 1~2일 예산 노인요양원의 배추 2500포기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스님들이 직접 담근다. (041)330-7700. **순천 송광사(주지 무상)**도 12월 2~4일 120여 사중 스님들이 모두 하나가 돼 김장을 담근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순천지역아동센터, 송광면 소년소녀가장, 우석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직접 마을공동체를 구성해 배추를 심어 수확해 김장을 담그는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은 11월 22~24일 1만포기의 김장을 담갔다. 마곡사에서 먹는 김장은 3000포기로, 나머지 김치 7000포기는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된다. 김장기간 동안에는 지역 내 복지관에서 배추를 직접 수확해 가져가도록 하는 한편 마곡사를 찾는 일반인들에게도 남은 배추를 나눈다.

**서울 잠실 불광사(회주 지홍)**의 경우 공공기관에도 김장을 담가 전달한다. 불광사는 12월 6~7일 김장김치 2000포기를 담그고 매주 월요일 자비반찬을 전달하는 독거어르신 50가구와 사찰인근 노인정, 송파소방서 등 기관에 전달한다. (02)413-6060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주지 탄웅)**는 동지를 맞아 도심에서 나눔행사를 벌인다. 12월 23일 동짓날 국제선센터에서는 목동 현대백화점에서 팥죽 무료나눔과 함께 장애인을 돕기 위한 나눔행사를 연다. 국제선센터는 동짓팥죽 수익금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돕기와 신정동 독거어르신 돕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자승)**은 1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서울 SK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에서 진행된 'SK행복나눔 김장행사'에 참여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이하는 SK행복나눔 김장행사에는 SK그룹,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성공회푸드뱅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등 종교계와 시민단체, 기업이 동참했다. 이날 담근 김장김치는 8만 2000여 포기로, SK그룹 임직원과 각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단체와 SK그룹은 전국의 결식아동,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소외가정과 전국의 사회복지시설·무료급식소 등에 김치를 전달했다. 이밖에 **속초시노인복지관(관장 묘근)**은 11월 21일 속초시노인복지관 광장에서 '김장나눔! 孝 플러스'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 당일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은 김장김치를 만들어 속초시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300가정에게 김장김치와 겨울나기에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라면, 치약, 기저귀 등을 박스에 담아 겨울나기세트로 전달했다. **고양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성화)**도 11월 14~18일 복지관 재가대상 어르신 118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를 실시했다. 행사는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통도사 일산포교당 여래사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11월 14~15일 양일간 약 1180kg 김장담그기를 진행했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118 가정에 김장김치 각 10kg를 제공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1월 26일 자양동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KT&G 복지재단과 광진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7곳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에 동참했다. 복지관은 김장김치를 만들어 기타 복지관과 함께 저소득 독거어르신 등 1200세대에 전달했다.

종립대학인 동국대에서도 동국대 교수, 학생, 직원 등 100여명의 구성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11월 16일 중구지역 관내 총 17가구에 각 100~300장씩 총 5,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가 2007년 이후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자비나눔행사는 매분기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지원되는 대규모 나눔 행사다. 12월 13일 열리는 자비나눔행사에서는 총 5100만원 상당의 겨울나기 물품이 전달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저소득층 600세대 80개 소에 각각 쌀 10kg 1포대와 라면 1박스, 전기포트가 전달되며 지역경로당 80개소에 쌀20kg 라면 2박스가 전달된다.

**수효사(주지 무구) 효림원**은 겨울을 맞아 어르신들이 매주 독거어르신 밑반찬 배달을 강화한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효림원 반찬봉사단 단원 어르신들이 직접 95가구에 밑반찬을 배달할 예정이다.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은 동절기 새봄 성북 하온 마을 대상자를 모집한다. '새봄 성북 하온하우스'는 지난해 7월 더운 여름에도 마음만은 따뜻한 집을 만들자는 의미로 시작한 방역사업 이다. 복지관은 동절기에도 장애인과 저소득 어르신이 건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방풍비닐·문풍지·안전지지대 설치작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연말까지 2014년 입학하는 저소득 가정 학생을 위해 '선재의 선물-책가방 보내기 모금 캠페인'을 실시해 눈길을 끈다. 2009년부터 매년 연말 진행돼 온 '선재의 선물-책가방 보내기' 캠페인은 기부자가 5만원 상당의 책가방을 지원하고, 아름다운동행에서 5만원 상당의 학용품과 도서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캠페인은 12월 31일까지 성금 후원을 받으며, 2014년 1월 중 전국의 조손·한부모·다문화가정의 아동들에게 책가방 키트가 전달된다. 캠페인 후원 및 참여 (농협 301-0118-4499-3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

### 독거어르신·장애인·저소득가정 십시일반 지원해
### 방풍비닐·안전지지대 설치 등 한파대비 서비스 눈길

### 돌보미 서비스 등 노력 봉사 이어져

이와 함께 복지단체들은 동절기 생활여건이 어려운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돌보미가 매일 방문해 점검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급식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불교계 복지관은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진각재가노인지원센터, 효림재가노인지원센터, 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송파노인복지센터 등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침체로 개인 및 기업의 후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결식아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덕현·이나은 기자


동국대 참사랑봉사단 소속 학생들이 11월 16일 중구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봉은사에서 진행된 김장나눔행사의 한 모습. 봉은사에서는 1만 포기 김치를 담궈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신사종합사회복지관의 김장나눔행사


아름다운동행의 '선재의 선물' 캠페인물품.


영주시 장애인복지관의 라면 및 김치 등 장애인 가구 겨울나기 물품전달 장면.

**김장나눔 및 팥죽나눔**

| | | |
|---|---|---|
| 서울 길상사 | 11월 29~30일 | (02)741-4696 |
| 예산 수덕사 | 12월 1~2일 | (041)330-7700 |
| 순천 송광사 | 12월 2~4일 | (061)755-0107 |
| 잠실 불광사 | 12월 6~7일 | (02)413-6060 |
| 서울 봉은사 | 12월 21일 | (02)511-6070 |
| 서울 국제선센터 | 12월 23일 | (02)2650-2200 |

**물품나눔**

| | | |
|---|---|---|
| 아름다운동행 | 12월 말까지 | (02)737-9595 |
| 진각복지재단 | 12월 초 | (02)942-0144 |
| 속초 신흥사 | 12월 13일 | (033)636-7044 |
| 수효사 효림원 | 매주 화·금 | (02)313-5124 |
|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상시 | (054)633-6415 |
| 승가원자비복지타운 | 상시 | (031)-642-1300 |

**노력나눔**

| | | |
|---|---|---|
| 성북장애인복지관 | 상시 | (02)915-9200 |
| 옥수재가노인지원센터 | 상시 | (02)2282-1118 |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상시 | (02)466-6242 |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상시 | (02)992-6783 |
| 광진노인종합복지관 | 상시 | (02)466-6242 |
| 일산노인종합복지관 | 상시 | (031)919-8677 |


세계최고 마애삼존불이 모셔진 천태산 천태사에서 기도하며 영감(靈感)을 받아 제작된 영험한 ***지장보살 황금도자기!***

# 법성스님 330位 지장황금도자기


높이 35cm 둘레 80cm

**지장보살 황금도자기란?**

손수 빚은 백자에 진사를 입히고 330분의 지장보살님을 순금으로 전사한 황금도자기입니다. 법성스님께서는 원효대사께서 창건한 천년고찰 천태산 천태사 무량수궁 마애삼존불에서 기도 중 영감(靈感)을 받아 점안한 도자기입니다. 진우대사님께서 증명한 법기로 가정에 모셔두면 330분의 지장보살님께서 위기에서 구해주고 어려울 때 지혜를 주어 절묘하게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영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는 일 마다 가로막는 느낌과 매사 잘 안 풀리는 경우 동향에 모셔둠
*자녀들 중에서 혼사가 늦어지는 경우 이름을 적어 넣어 서향에 모셔둠
*부모형제 자식 중 건강이 않 좋은 분 이름을 적어 넣어 남향에 모셔둠
*자녀들 중 갑자기 삐뚤어진 행동과 성격이 변하는 경우 서향에 모셔둠
*잘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 지고 집에 우환이 겹치면 북향에 모셔둠
*취업, 승진시험 등 공부를 하는 집안에는 지장도자기를 서향에 모셔둠
*부부지간 사이가 않좋은 분은 대주의 이름을 적어 넣어 동향에 모셔둠
*사찰에 49재, 천도재, 원불, 위패, 납골함을 모신 분은 북향에 모셔둠

보시가 108만원 | 주문전화 055)372-5517 | *보시금은 노인복지원 건립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제 낭송 경전이 점자도서관에 보내질 때 뿌듯”

## 김상진 불자, 가족과 시각장애인 위해 녹음봉사

**장애인합동법회 참여하면서**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만들어**
**지난 8월부터 녹음봉사 시작**
**“남녀노소 누구든 참여 가능”**

“책으로 불교를 접하고 싶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김상진(55 · JM음악녹음실 대표) 씨는 서울 공릉에 위치한 녹음실에서 아들인 김철웅(26 · 대학생)씨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녹음을 시작했다.

아들 철웅 씨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서는 일타 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의 내용 한 줄 한줄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두 부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 활동을 시작한지는 3개월. 가족들과 광림사(주지 해성)에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청각 · 시각장애인 합동법회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시각장애인들은 옆에서 법요집과 경전을 읽어주는 봉사자가 있어야 법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분들이 불교 경전과 불교관련 서적을 읽고 싶어도 오디오북이 부족해 읽지 못한다는 해성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상진 씨〈사진 오른쪽〉와 아들인 김철웅 씨가 스튜디오에서 웃고있다.


김상진 씨 아들인 김철웅 씨가 일타 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을 읽고 있다.

전국에는 점자도서관이 10여개가 있으나, 점자로 된 불교서적과 오디오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0여 년간 녹음 엔지니어링 일을 해온 김상진 씨는 불자 시각장애인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가족들과 봉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근무 시간 외에 매일 2~3시간씩 아내와 아들, 딸이 녹음한 내용을 편집하고 다듬었다. 여기에 행복사 주지 능인 스님과 해성 스님도 함께 녹음봉사에 동참했다.

지난 8월부터 틈틈이 작업해 만든 오디오북은 〈나를 깨우고 마음을 열어주는 108 참회문〉〈생활 속의 천수경〉〈지장보살본원경〉〈법공양〉〈부모은중경〉 등 총 6개. 지난 10월 31일 점자도서관에 보내졌다.

김상진 씨는 30여 년간 안치환, 조용필, 인순이, 윤정희 등 유명가수 들과 녹음작업을 해온 전문가다. 축구를 즐겨하는 건장한 청년이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근육에 힘이 빠지는 이상증세를 느꼈다. 하지만 통증을 무시한 채 해병대에 입대하게 됐고, 점점 악화됐다.

“그때 당시에는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시절을 보내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1990년대 10여 년간 일본에서 음향 · 녹음엔지니어링을 공부한 김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유명가수들과 작업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러다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뇌병변과 근이영양증으로 지체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

“근이영양증이 근섬유가 서서히 쇠약해지고 소모되는 병이랍니다. 어릴 때 아팠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 계기로 일본에서 녹음엔지니어링 공부까지 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녹음봉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일로 제2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합니다.”

아들 김철웅 씨도 녹음봉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 김 씨는 “불자이긴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나 경전과 불교서적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내용이 와 닿는 것을 느꼈다며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내 목소리가 녹음된 오디오북이 점자도서관에 보내졌을 때 신기하고 기뻤다”고 말했다.

김상진 씨는 녹음봉사 외에도 광림사에서 만난 청각장애인 부부와 교류하며 친목도 다지고 있다. 부부에게 수화를 배우고 김 씨는 불교교리를 알려준다.

김 씨는 “청각 · 시각장애인 합동법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의 신심 깊은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오디오북을 제작해 점자도서관에 보내고 싶다. 하지만 봉사자가 부족하다”며 “녹음봉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좋아하는 불교서적을 갖고 언제든 방문해도 좋다”고 말했다. (010)3213-2466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10.27 법난, 청년 불자들에 널리 알려야”

**대불련 학생들,**
**법난 피해자 원행 스님과 대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 소속 학생들이 10.27 법난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불련 대학생 20여 명은 11월 16~17일 오대산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모시고 ‘10.27 법난 피해자 스님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0.27 법난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문학 강연 ‘2013 KBUF 청춘토크파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담은 월정사에서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장 도재경 서기관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담당자 및 각 지역에서 청춘토크파티 행사를 준비하는 20여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했다.

대담에서 원행 스님은 “전국 각지의 사찰에 군인들이 난입해 당시 주지스님을 비롯해 재무를 담당하는 모든 스님을 데려가 승복을 벗겨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폭행 및 고문을 일삼았다”며 “당시 고통을 받았던 많은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나를 비롯해 피해자가 몇 남지 않았는데 국가는 3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갖은 이유를 대며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대불련 대학생 20여 명은 11월 16~17일 오대산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모시고 ‘10.27 법난 피해자 스님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이어 스님은 “그 당시 발목을 잘못 맞아서 11월 무렵이 되면 겨울이 지나가기 전까지 발목을 비롯한 다리 통증이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역사는 항상 되풀이 되는 만큼 이와 같은 비극이 불교계, 그리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와 준 대학생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학생들은 월정사 사찰순례 및 월정사 내 박물관 관람, 스님과의 대담 및 10.27법난에 대한 마음나누기 등의 시간을 진행했다.

한편 대불련은 12월 13일~25일 인도 일원에서 ‘대학생 불교문화교류 및 인도 불교유적 탐방’을 실시한다. ‘구도와 전법을 향한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도 탐방은 IIT 뭄바이 대학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무드 인디고 축제’에서 연등축제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IIT대학 학생들과의 교류와 뭄바이지역 불교활동가와의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아잔타석굴과 산치대탑, 타지마할, 델리박물관 등 다양한 인도유적지를 참배 및 관람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 동련, 어린이지도자 승가연수교육

**11월 29일~12월 1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겨울방학을 앞두고 어린이포교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연수가 진행된다.

사단법인 동련은 11월 29일~12월 1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56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실시한다. ‘햇살처럼 빛나는 행복한 어린이법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연수교육 인증과정’과 ‘지도자 연수교육’이 동시에 진행된다.

승가연수교육 인증과정은 스님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3일 동안 진행되며 이수시 승가연수점수 30점을 받게 된다.

인증과정은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이 ‘2557년 어린이청소년포교를 말하다’를, 어린이청소년전법단장 성행 스님이 ‘어린이청소년포교 희망을 말하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조한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이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포교 현장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분임토의 등이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 국제포교사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1월 11일 예선, 본선은 1월 18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7회 영문 자타카(Jataka)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부처님의 전생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본생담인 자타카를 영어로 외워 발표하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영어실력 향상, 가족간의 친밀감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회 예선은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으로 참여가능하며, 오는 2014년 1월11일 전법회관 3층 국제포교사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본선은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12월 20일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대회의 원고는 국제포교사회 인터넷 카페(cafe.daum.net/IDIA)에서 초등학교 1~4학년은 A형,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은 B형을 내려받아 암송하면 된다. 스님과 외국인, 국제포교사 등이 심사위원을 맡으며 표현력과 발음, 태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나은 기자

# 사단법인 대불, 2014년도 장학생 선발

**12월 2일까지 사무국 접수**

사단법인 대불(이사장 원유자)은 대학생불자 육성과 대학 포교 활성화를 위해 대불장학생을 선발한다.

대불장학생 선발은 대불련 중앙본부 임원과 대불련 회원에게 100만원씩을 수여하는 일반장학금부문과 대불련 지부 또는 지회에 100만원씩 수여하는 단체지원금부문, 대학생불자 2명에게 600만원씩 지원하는 시곡장학금부문으로 나눠 수여한다.

장학금 수여 희망자는 12월 2일까지 소정양식의 대불장학금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불 사무국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16일 선발 결과를 공고하며 12월 25일 오후4시에 열리는 대불 12월 정기법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5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특수작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2월 5일까지
◆ 개강일시 : 2013년 12월 6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 ·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 / 박사 / 석 · 박사통합 과정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 안내

| 학 과 | 전 공 | 과 정 | 인 원 |
|---|---|---|---|
| 문화예술콘텐츠 | 문자조형, 회화예술, 문화예술, 옻칠조형, 콘텐츠융합디자인 | 석사<br>박사<br>석 · 박사통합<br>연구<br>외국인 | ○○명 |
| 불 교 문 예 | 불교역사 · 철학, 불교문학, 불교예술, 불교상담복지 | | |
| 교 육 | 평생교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IT융합, 커뮤니케이션 | | |
| 자 연 치 유 | 자연치유, 최면치유, 식이양생, 운동댄스치유, 피부미용치유, 명상심리, 요가치유, 영상예술치유 | | |
| 미래예측경영 | 명리인상, 풍수지리 · 부동산, 주역철학, 동양고전 · 상장례학 | | |

◆ 전형 일정
가. 원 서 접 수 : 2013년 12월 2일 (월) ~ 12월 11일 (수)
나. 전 형 일 자 : 2013년 12월 14일 (토)
다. 합격자 발표 : 2013년 12월 19일 (목), 본교 홈페이지

◆ 원서 접수
가. 홈 페 이 지 : www.dongbang.ac.kr 원서접수 바로가기
나. 방 문 접 수 : 본관 1층 교학부 9:00 ~ 16:00
다. 우 편 접 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동방대학원대학교 교학부

문의 02)3668-9811,9812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새로운 인생의 리뉴얼 대학
동방대학원대학교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 청소년 IT교육…자격증 취득 무료 지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한화 S&C**
**저소득 청소년 IT인재 양성 현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한화 S&C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IT교육과 사무자동화 자격증 취득을 위해 SC다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IT 문화나눔 프로젝트 'SC다빈'**
**소외계층 청소년 IT인재양성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사업 실시**
**강의 · 교재비 등 전액 지원**

'다다다다…'

11월 20일 오후 서울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컴퓨터 교실. 11명의 학생들이 빠르게 워드를 치면서 주어진 교재에 있는 문서와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 제법 능숙한 솜씨로 컴퓨터를 다루지만, 한글과 파워포인트 작업이 어려운지 여기저기서 선생님을 부르느라 난리다.

"선생님, 이 도형에다 색깔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험 볼 때는 중간 저장 꼭 해야 하는 거죠?"

학생들이 듣는 수업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한화 S&C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IT문화나눔 프로젝트 'SC다빈' 의 '청소년 컴퓨터 교실' . 성동구 지역 내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지난 6월 10일부터 매주 월 · 수요일에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모여 이 수업을 듣고 있다. 이날 학생들은 일요일에 응시하는 한글 ITQ(정보기술 및 활용능력 공인 인증) 자격시험에 대비하고 있었다.

SC다빈 사업은 사회복지재단과 한화 S&C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사회공헌 사업이다. 순수 우리말인 '다빈' 은 '빈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IT인재 양성' 사업과 'IT문화공간 조성' 사업으로 구성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또래의 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르게 좀 더 일찍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모든 분야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처리가 기본인 현대 사회에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OA 능력이 중요시 되고 있지만,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는 OA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환경적 ·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SC다빈' 은 기업의 특성을 활용한 사업 운영을 통해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봉사자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원봉사단은 현재 매주 월, 수요일 오후 5시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단계별 교육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컴퓨터 강사 이혜숙 씨는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검색 등은 잘 하지만 한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실무적인 지식은 낮은 편이다.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대학 진학 및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혼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자 분들이 같이 멘토 역할을 해주니 도움이 되고 학생들도 좋아한다"고 설명했다.

SC다빈 사업은 특히 경제적, 환경적 요인으로 충분한 경험과 학습 기회를 갖지 못하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비, 교재비, 시험 응시료, 교통비 등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처음 시작돼 IT교육을 받은 28명의 청소년 가운데 1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결실을 맺었다.

IT교육과 함께 한화 S&C 자원봉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컴퓨터 점검 및 수리, 노후 장비 교체 등의 활동을 펼치며 IT문화공간을 구성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수민(11 · 옥정초)양은 "한글 문서작업 자격증을 따고 싶어서 수업을 듣게 됐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배우다보니 쉽게 이해가 갔다. 앞으로도 엑셀, 파워포인트 모두 배워서 자격증에 도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경제적 부담으로 전문적인 배움을 포기한 청소년들이 전문직종 직업군 봉사자와의 심층적인 만남을 통해 평소에는 접할 수 없었던 직업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과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직 ·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의지를 갖고 노력해 적극적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장위실버복지, '늦바람 청춘제' 장원 수상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위실버복지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2013 두근두근 늦바람 청춘제' 에서 장원을 수상했다.

진각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위실버복지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2013 두근두근 늦바람 청춘제' 에서 장원을 수상했다.

장위실버복지센터는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펼쳐진 청춘제에 참가했다.

'2013 두근두근 늦바람 청춘제' 는 전국 노인 복지관에서 지난 10개월간 노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체험하며 창작해온 결과물을 한자리에 모아 확인하는 자리였다.

장위실버복지센터는 올 상반기 복지기관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을 통해 사진과 음악분야 2분야의 지원을 받아 문화예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결과물을 청춘제에서 발표했다.

어르신들은 직접 노래를 선곡해 노래에 얽힌 사연을 라디오 대본으로 만들고, 노래를 다양한 형태로 연주하는 라디오극 '보이는라디오 뻔뻔(funfun)한라이브' 와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전시하는 '사진, 재미진' 을 선보였다. (02)913-3369

이나은 기자

# 복지관 벽에 새겨진 어린왕자

**희망캔버스봉사단, 중림복지관에 벽화그리기 봉사**

중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용갑)은 11월 16일 관내 프로그램실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소속 희망캔버스봉사단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꿈을 키우는 벽화 그리기' 를 실시했다.

희망캔버스봉사단은 대학생과 직장인 등 15명으로 구성돼 그림을 통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밋밋하던 복지관 프로그램실 벽면에 꿈을 키우는 어린왕자 벽화를 그려 한층 공간감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더욱 친숙한 복지관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6층 다목적실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김예솔(가명, 10세)양은 "동화 속 어린왕자를 매일 만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강의실이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 보여 참 좋은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희망캔버스봉사단이 중림종합사회복지관내 프로그램실에 어린왕자 벽화를 그리고 있다.

이나은 기자

# 어르신 · 주민이 함께 하는 명사특강

**대치노인복지센터, 개관 2주년 오는 26일 이음예술제 개최**

대치노인복지센터(센터장 손화정)는 11월 19일 KRA 선릉지사 마사회 3층에서 노인의학전문가인 이상일 원장(이상일의원 원장)을 초청해 '품격있는 노년의 완성' 을 주제로 노년을 준비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을 공유하는 명사초청특강 시간을 가졌다.

이상일 원장은 재밌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은퇴 후 노인 스스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방송출연 및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한편 대치노인복지센터는 11월 26일 오후 1시 대치2문화센터에서 회원 어르신 및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어르신 이음예술제' 를 개최한다. '이음예술제' 는 주 · 야간 보호 및 시설입소 어르신, 복지센터 어르신이 준비해온 작품 발표와 함께 강남구치매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02)564-0108

이나은 기자

# 스님 700명에 장기기증교육 실시

**태고종종회 수석부의장 혜공 스님이 직접 교육 맡아**


태고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혜공 스님은 11월 13~15일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열린 '2013 전국 승려연수교육에 참석한 스님 700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교육을 진행했다.

한국불교 태고종(총무원장 도산)이 장기기증 홍보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그동안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로서 꾸준히 장기기증운동을 진행해 온 태고종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혜공 스님이 스님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혜공 스님은 11월 13~15일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열린 '2013 전국 승려연수교육에 참석한 스님 700명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 교육을 진행했다.

혜공 스님은 장기기증의 개념부터 시작해 희망등록 하는 방법, 실제 기증은 어떻게 하는지 전달했다. 특히 불교와 생명나눔의 연관성을 자세히 다루며, 육바라밀의 제일 덕목으로서의 보시를 행하는 방법으로 장기기증이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태고종은 교육을 통해 스님들이 인식을 전환해 스스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듯이 신도들에게 장기기증을 홍보해 희망등록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11월 13일부터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를 시작해 등록한 스님들부터 각 사찰에서 접수 받아 내년 시무식 때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홍천군장애인복지관, 육상대회 참가 메달획득



복지관 소속 지적장애 선수 6명과 임원 2명 등 8명이 참가해 금메달 5개와 은메달 6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도운)은 11월 8일 강원도장애인육상연맹에서 주최한 장애인 육상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복지관 소속 지적장애 선수 6명과 임원 2명 등 8명이 참가해 금메달 5개와 은메달 6개 등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은 "이번 대회를 위해 홍천군생활체육회 코치의 지도하에 기초 체력훈련과 근지구력 훈련을 통해 운동기능을 향상시켰다"며 "짧은 기간 내 많은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내년에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지원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 자 격 과 정 | 교 육 기 간 |
| --- | --- |
|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 14주 과정 목요일 반 |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진로 · 적성 · 상담 안내

C.A.C 분석서
◇ 16개 항목 분석 자료 추출 ◇
■ 학습유형별 정보 제공
■ 선천적으로 적합한 계열과 학과 제공
■ 기타 성격. 인품. 평생주기별 운 예측
■ 대학 진학 (입학사정관. 수시. 정시)
■ 나와 인연되는 대학명
■ 대학 진학하는 해! 세운 분석
◈ 상 담 료 : 20만원
■ 상담 후 미 진학시 상담료 환불
◈ 학습진로상담사 학회

〈본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탑동 873-2. 1층
〈지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01-98 2층
상담사 겸재 정 비오 (010-5524-7053)
〈지부〉 서울 성북구 동선동 5가 36 2층 (다솜)
상담사 박 홍언 (010-7925-4749)

인재 양성

◇프로필 :
• 명리철학교육학 석사
• 미래예측학 박사
• 미래전략교육학 교수
◇ 동방대문화교육원 수업 [목] (오후 2시 ~ 5시)
◇ 국제문화대학원 수업 [토] (오전 10시 ~ 오후2시)
◇ 저서 : 규명 (1. 2. 3권 : 한솜미디어) 실전성명학 - 상원문화사
◈ 개인 지도 : 입 문 자 10개월 과정 명리전문반 3개월 과정
◈ 수업일 : 매주 화 · 금요일(오후 5시 ~ 7시)

오시는길
1호선 수원역 하차 ➡ 맞은편 720-2버스 탑동우방사거리 ➡ 새하늘교회방면 ➡ 도보 30m 규명철학연구소 1층 010-5418-5972

# 인간과 지구, 서로의 인과 연이 되다

## 대한불교진흥원 화요열린강좌

황보영조(경북대 교수)

진화란 말은 어쩌면 연기(緣起)를 함축하고 있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흔히 인류가 자연을 개척하고 정복해왔다지만 이 역시 지구 환경에 적응해온 과정의 일부였을 따름이다. 불을 발견하면서 다양한 음식 속 영양분을 섭취하여 수명이 길어지게 된 것도, 기온이 따뜻해지고 식물의 생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경작과 정착생활이 시작된 것도, 그리고 그곳에서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 배후엔 '지구' 나 '환경' 이 있었다. 인류는 환경의 변화 과정에서 스스로 진화하며 문명을 일구어 온 것이다. 11월 19일 대한불교진흥원에서 열린 황보영조 교수의 강의 또한 지구와 인간이 태초부터 맺어온 네트워킹을 들여다보고 서로의 상호의존성을 확인함으로써, 우리 삶을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었다.

정리=배현진 기자

### 커피 한 잔에 든 지구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구 환경과 문명의 역사를 다룬 〈인류의 발자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새로운 세계사' , '지구사' 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새로운 세계사는 1970년대 미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했으며 그 배경은 세계화에 있습니다. 2차대전 이후 세계가 하나로 엮이게 되고 소통하게 되면서 전 세계가 네트워크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금융이죠. 자본이 한 국가 내에 있지 않고 활발하게 세계를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황사가 일어나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하와이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있듯 이젠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떤 지역이나 국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또한 미국이나 독일의 교육제도를 벤치마킹해서 들여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현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의 고정된 지역중심적 관점으로는 실재를 제대로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세계화의 관점에서 새로 만들어진 역사학의 분야가 '새로운 세계사' 입니다. 결정적 계기는 1969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사건입니다. 일반인들은 달에 착륙한 닐 암스트롱의 모습 보고 감격했지만 역사가들은 TV를 통해 보는 달의 모습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달을 하나의 행성으로 느꼈으며, 지구를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본 후,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기 시작한거죠.

새로운 세계사는 시간이나 공간을 전과 다른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전에는 시간을 고대, 중세, 근세, 현대로 나누지만 새로운 세계사는 그보다 이전으로 시간을 끌어올립니다. 지구 역사를 46억년으로 잡고, 우주자체의 역사를 137억년으로 간주하면서 엄청나게 시야를 확장합니다.

또한 공간적으로도 개인, 가족, 도시, 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기존역사관이라면 새 역사관은 국가, 지역, 교차지역, 반구, 지구, 우주적 차원에서 흐름을 살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주제도 다양해지죠. 정치, 경제, 문화가 기존 관심사였다면 지금은 '이주' 란 주제로 선사시대부터의 이주, 최근의 노동이주, 유학이주 등을 살펴보고 강, 바다에서 일어나는 상호교류가 연구주제가 되며 사회문화적 성이나 생태나 복원 기술, 질병의 흐름들에 관심을 가집니다. 기술 또한 역사학의 연구테마로는 생각지 못했으나 제지기술의 변화 등은 기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문화와 문명을 바꾼 자연환경과 관련있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연구가 확대됩니다.

이렇듯 새로운 세계사의 관심은 상호교류의 확대, 그로인한 다양성 등입니다. 관심사가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며, 커피 한 잔에서 지구를 보는 거죠. 커피 안에 지구성이 들어있다는 거에요. 그 네트워크를 살펴보는 것이 새로운 세계사입니다.

### 지구 변화에 따른 생물의 진화

46억년 전에 태양계가 형성되고 여기서부터 지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0억년을 1년으로 환산하면 13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고 4년 전에 지구에 첫 생물이 등장합니다. 아프리카에 현생인류가 출현한 것은 50분전이고 농업은 5분전부터, 도시건설은 3분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인류문명은 참으로 짧은 기간동안 일어난 거죠. 인류 역사시대는 1분도 채 안될 것이고 우리가 지나온 20세기는 3분의 1초도 안 되겠죠.

이 과정에서 섭씨 천도의 용암 덩어리였던 지구가 빙하기를 거치고 현재의 모습이 되기까지, 주목해야할 부분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생물은 그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죠. 지구환경이 바뀌는 가운데 다양한 식물 조류가 출현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진화도 일어났습니다.

네발달린 포유동물은 햇볕에 노출되는 면적이 넓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를 들이마시기 쉽기에 코를 길게 발달시킵니다. 공기의 흐름을 증가시키고 시원하게 하며 공기 속 수분을 증발시키기 위해 숨을 헐떡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물들은 체온을 조절하며 열대지방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기후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적응한 거죠.

또한 현생 인류를 이루는 직립 보행 영장류를 일컫는 호미니드(hominid)는 똑바로 서서 햇볕에 노출되는 면적을 줄이고 바람을 쐬어 체온을 조절했습니다. 직립보행을 하며 환경에 적응한 종이 네발달린 포유동물보다 유리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뇌가 발달하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됐죠. 체온이 오르면 시상하부가 신경을 통해서 땀샘을 자극하고 땀이 증발하며 체온이 떨어지는 원리입니다. 머리카락도 햇빛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하며 그에 맞는 신체조건을 갖추어나갑니다.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먹거리가 풍부해지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정착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조직이라는 것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기후와 환경변화에 적응해간 예죠.

### 상황의 역전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점차 늘어가는 인구가 산업화를 거치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는 환경문제를 야기시킵니다. 19세기 초 인구가 10억명이었다면 1900년대는 1600억명으로 늘었고 그만큼 식량공급도 늘어났습니다. 화석연료와 비료가 투입되었기에 가능했죠. 여기서 환경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소비료는 생산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질소 2.5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석탄 1톤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질소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석탄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질소는 땅을 딱딱하게 하고 부영양화를 가져옵니다. 합성화합물의 남용이 지구의 생태균형을 파괴하고 땅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농부는 자연을 보존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듯 합니다.

또 다른 환경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선진국은 1인당 연료소비량이 제 3세계보다 32배나 많다고 합니다. 지구환경에 더 많은 해악을 미치죠. 오늘날 인구의 절반이상은 도시에 거주한다고 합니다. 1800년대까지만 해도 200만명 이상이 사는 곳은 세계적으로 200곳 밖에 되지 않았지만, 2015년에는 550곳이 된다합니다. 도시에 밀집해 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일 큰 문제가 폐수처리인데 이는 로마시대부터 골칫거리였습니다. 날마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쌓이고 이 쓰레기는 파리떼를 불러와 전염병의 온상인 미생물을 번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상하수도 시설 정비에 정성을 들였죠.

도시발달이 인류와 환경과의 관계 또한 바꿔 놓았습니다. 이전에는 인류가 환경 변화에 종속되어 절대적 영향을 받고 살았는데 도시를 이루면서는 그 관계가 전도되었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인류가 환경에 결정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 "일생동안 쓰는 자원의 소비 · 폐기 처리 위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면적, 생태발자국은 1인당 1.8ha 한국은 4.05ha로 초과상태 2050년에는 지구 3개나 필요해"



황보영조 교수는 …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스페인 마드리드 콤플루텐세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다. 지은 책으로 〈세계화 시대의 서양현대사〉, 〈꿈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중독재〉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대중의 반역〉, 〈세계사 특장〉, 〈아메리카노〉, 〈인류의 발자국〉 등이 있다.

도시를 건축하려면 자재가 필요하죠. 벽돌로 집을 짓는다면, 벽돌을 구울 때 쓰이는 가마와 땔감이 필요합니다. 땔감은 숲에서 구합니다. 그러므로 도시가 건설된다는 것은 숲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숲이 고갈되면 복잡한 생물군집이 파괴되고 생태계 순환이 무너지게 됩니다. 수분을 머금은 삼림지대는 수분증발을 제한하고 토양침식을 막아주며 계절풍의 속도를 줄여주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죠.

4대강 정비사업 또한 자연스레 흐르는 강물의 물줄기를 바꿈으로써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강물흐름으로 유지되던 수온이 올라가며 녹조현상을 일으키고 강기슭 생태의 변화를 야기시킵니다.

또한 인류의 증가는 식량 생산의 범위를 원거리까지 넓힙니다. 자원을 만들거나 폐기하는데 드는 비용을 토지면적으로 환산한 것을 일컫는 생태발자국 또한 넓어지죠. 선진국일수록 생태발자국은 더 깊고 넓습니다.

제철 제조업 또한 수천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산업화의 전조가 되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광물이 채굴되면 온갖 오염물질이 나오면서 대기에 유입되며, 지반안정성에 위협이 가해져 지반침하가 일어납니다. 또한 숯을 생산하려면 삼림을 베야 하는데, 숯 1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나무 7톤이 베어져야 합니다.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자동차가 발명된 것이죠. 차량 1톤 생산하는데 폐기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29톤이랍니다. 또한 자동차 1대 만드는데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그 차가 10년 동안 운행하며 발생시키는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현재 지구상에 있는 자동차는 10억대입니다.

이처럼 현대의 소비행위는 단순소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킵니다.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석연료가 얼마나 투입되고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주는지 눈으로 보면서 살아간다면 경각심이 일어날 텐데, 직접 보지 못하니까 환경문제에 대한 감이 떨어집니다.

커피 또한 미국인들은 하루에 4잔, 핀란드인들은 11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커피나무의 성장 을 촉진시키기위해 살충제와 석유화학비료를 뿌리는데, 소비행위에도 환경적 함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겠죠.

이렇듯 지구환경과 인류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존재 이래로 지금까지 상호작용해 왔습니다. 도시화 이전에는 환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었지만, 산업화가 되면서부터는 환경에 영향을 주는 존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생태환경사와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다면 클라이브 폰팅의 〈녹색세계사〉와 존 맥닐이 쓴 〈20세기 환경의 역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인류의 발자국〉의 책 구절을 인용하며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날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그 파장이 어느 한 지방에 국한되지 않고 전지구로 확산된다. 그 영향에서 자유로운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고 나서 책임소재를 따져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도 4대강, 핵 발전소 등 성장이란 미명하에 이뤄진 인류발자국을 되돌아보고 파국을 피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항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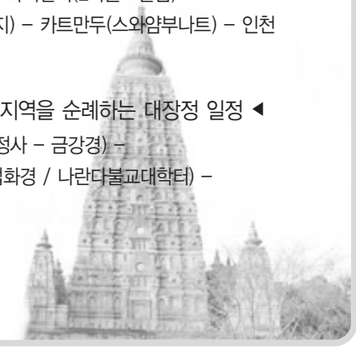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뭄바이 – 엘로라 / 아잔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가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항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얌부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가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터) – 보드가야(성도지)–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아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론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야 – 콜롬보 – 인천



*상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1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2 구간별 한식조리팀 동행 및 한식 제공
3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팁 포함
4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5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6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7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8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9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10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메라 등) 불포함 *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❶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❷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 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첫 설법을 하신 곳, 佛 · 法 · 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❸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 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 / 능엄경 / 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❹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 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축산(영취산)이 있는 곳.
❺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 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❻ 쿠시나가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❼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룡못이 있는 곳.
❽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마루 티에스 Maru Tour Service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 김영곤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 maru@maruts.co.kr

# ‘잊혀진 한국의 불교사상가’ 조명

**동국대·금강대 불교계 인문한국(HK) 연구 공동 국제학술대회**
**11월 29~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한·중·일·독일 학자 11명 참가**
**일본에 끼친 한국불교 영향 등 발표**
**HK사업 연구성과 지속 공유**

인문한국(HK) 사업을 진행하는 두 종립 대학이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사업 성과를 공유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천학)은 11월 29~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잊혀진 한국의 불교사상가’ 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과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는 인문한국(HK)사업의 불교분야 주관연구소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은 ‘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 을 주제로 2011년부터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10년간 5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은 ‘불교고전어, 고전문헌의 연구를 통해 본 문화의 형성과 변용 및 수용과정의 연구’ 를 주제로 2007년부터 10년간 86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국내외 학자 11명이 새로 발견된 한국불교 사상가들의 자료 및 사상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한국 측에서는 최연식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의 ‘〈삼론현의〉의 성립배경 검토: 신라 삼론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와 박광연 동국대 교수의 ‘동아시아 미륵사상의 전개에서 경흥(憬興)의 위상’ , 박인석 동국대 교수의 ‘〈유가론기〉에 나타난 혜경(惠景)의 사상경향 분석: 오식신상응지(五識身相應地)와 의지(意地)의 주석을 중심으로’ , 김성철 금강대 교수의 ‘현륭(玄隆)의 유식사상’ , 김천학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장의 ‘또 하나의 신라승려 〈법화경론〉 주석서에 대해서’ 등이 발표된다.

해외 학자로는 먼저 후쿠시 지닌(福士 慈稔) 일본 미노부산대(身延山大) 교수의 ‘일본불교에서 해동불교 인용에 관한 제문제-보이지 않는 한국불교의 영향’ 이 발표된다. 후쿠시 지닌 교수는 한국불교가 일본불교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계획이다.

이어 노로 세이(野呂 靖) 일본 용곡대(龍谷大) 교수의 ‘고산사계 화엄학에서의 한국불교 수용’ 을, 미나미 히로노부(南 宏信)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 교수가 ‘의적(義寂) 찬술 〈무량수경술기〉의 인용 경론에 보이는 사상적 특색’ 을, 오치아이 토시노리(落合 俊典)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 교수가 ‘당대(唐代) 밀교 흥륭기의 신라승 현초(玄超)의 활약’ 을, 장원량(張文良) 중국 인민대 교수의 ‘〈석마가연론〉의 찬술지역’ 을 발표한다.

중국과 일본 측 일본 측 학자들의 발표와 함께 요르그 플라센(Joerg Plassen) 독일 보쿰대(Bochum Uni) 교수의 ‘혜균(慧均)의 〈대승사론현의기〉에 대한 재고와 동아시아 불교에서의 위치’ 발표도 진행된다.

이날 학술대회 이후에는 연찬회에서는 각 사업 추진 내용 등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041)731-3614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전국 옛 절터에서 국보급 문화재 대거 발견 ‘눈길’

**불교문화재硏 · 강원고고문화硏, 연달아 성과 발표**
**보성 개흥사지, 고려시대 불상 · 소탑 출토**
**원주 법천사지, 고려 최대 규모 사찰 밝혀져**

옛 절터에서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유물이 대거 발견돼 교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11월 21일 보성 개흥사지 유적 시굴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석축으로 이루어진 동원(東院) · 서원(西院)의 여러 동 건물지를 확인했으며 각 건물지에서 용이 조각된 소맷돌이 출토됐다. 불두가 결실된 선정인을 하고 있는 소조 불상과 청동 소탑편, ‘개흥사’ 명 막새 등이 출토됐다”고 공개했다.

수륙재 거행 및 불경 간행의 기록이 있는 보성 개흥사는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1678년 이전까지 세 차례 중건됐으며 1680년대에 불사가 활발했음이 〈청광집〉에 전해진다. 개흥사는 수륙재 거행과 함께 다양한 불경과 문중의 족보를 간행했던 사찰로, 계수 스님에 의해 동원석교와 마천석교가 세워지는 등 보성 지역 중심적인 사찰이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흥사는 금당으로 추정되는 정면 3칸(어칸 5m, 협칸 3.5m), 측면 3칸(어칸 5m, 협칸 2.5m)의 동 · 서원과 좌우 건물지로 둘러싸인 중정(中庭, 중앙마당)으로 구성돼 있는 대형 사찰이었다. 중정에서는 석탑 옥개석과 석등 옥개석이 발견됐으며 특히 개흥사 진입로 주변에서 출토된 비석편에는 시주자 이름이 함께 발견됐다.

불교문화재연구소장 각림 스님은 “추녀마루에 용두를 장식한 청동 소탑편과 태선어골문 기와류 또한 발견됐는데 개흥사 창건연대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된다”고 말했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11월 27일 오후 2시 보성군 득량면 해평리 현장 발굴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원 지역에서는 고려 법상종 중심사찰이었던 원주 법천사의 사지(原州 法泉寺址)가 고려시대 최대 규모의 사찰인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은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지현병)은 11월 20일 “법천사의 중심사역 정밀발굴조사 결과 고려 중기에서 조선 전기에 이르는 40여 동의 건물지가 확인됐다”며 “우리나라 사찰 건물지 유적 중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건물지 평면 형태를 분석하면 구역별 다원식(多院式) 가람배치애 관아 건물을 연상시키는 좌우에 익사(翼舍)를 거느린 대형 건물지도 확인됐다. 그 밖에도 대형 방형우물지와 개방식 배수시설, 석등의 하대석으로 추정되는 연화대석, 탑지와 공양보살상의 지대석으로 추정되는 유구 등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보성 개흥사 추정 금당지 중정 전경과 진립로에서 출토된 비석편(사진 왼쪽 원). 사진 오른쪽 원 안은 원주 법천사지에서 발견된 금동불입상.

이날 법천사지 출토유물로는 법천사 창건기를 가늠할 수 있는 통일신라시대 8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인화문토기편과 당대(唐代) 월주요에서 생산된 옥벽저(玉璧底) 청자편, 나말여초기의 옥환저(玉環底) 청자, 고식연화문 와당과 소형 금동불입상, 고려중기 법천사의 전성기를 보여주는 양질의 청자, 송대(宋代) 수입 자기와 송전(宋錢), 법천사 중심건물에 사용되었던 대형의 치미 등이 공개됐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법천사가 고려왕실의 후원과 지방호족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법상종(法相宗)의 중심사찰로써 그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며 “각 건물지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면 법천사의 창건에서 폐사에 이르기까지의 변천사를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 진출

한국이 역대 세 번째로 세계유산위원국에 진출했다. 지난 1997년과 2005년에 이어 2013~2017년까지의 4년 임기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가 19일 파리 유네스코본부에서 열린 제19차 세계유산보호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13~2017년 임기 세계유산위원회 선거에서 위원국 진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문화재청은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개도국 역량 강화 사업 지원 등을 통해 세계유산보호 분야 발전에 적극 기여한 것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세계유산보존분야를 포함해 총 1700만 달러 규모의 29개 신탁기금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회에 즈음해 문화재청은 신탁기금과는 별도로 6만 달러 규모의 세계유산 기금 기여 의사를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 등재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정부간 위원회이다. 21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한국불교학회, ‘고익진 학문세계’ 세미나

현대 한국불교학자의 삶과 학문을 재조명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한국불교학회(학회장 김용표)는 12월 6일 오후 12시 30분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병고 고익진의 학문세계'를 주제로 동계학술워크숍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이봉춘 동국대 명예교수가 ‘고익진의 삶과 학문세계’ 를 주제로 기조강연하며 이어 이중표 전남대 교수가 ‘초기불교와 아함경 연구’ , 김영일 동국대 외래교수가 ‘한국불교사상과 원효연구’ , 조은수 서울대 교수가 ‘한국불교전서 편찬과 과제’ 를 발표한다. (02)2260-3835

노덕현 기자

## 밝은사람들연구소, 제12회 학술연찬회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와 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와심리연구소(소장 윤희조)는 12월 21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를 주제로 제12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의 ‘초기불교-붓다의 괴로움과 그 소멸’ △박승찬 가톨릭대 교수의 ‘서양철학-서양철학의 역사에서 고통의 의미 찾기’ △전중환 경희대 교수의 ‘진화심리학-괴로움은 왜 진화했는가’ △권석만 서울대 교수의 ‘삶이 고달픈 이유’ △은해사 기기암 선원장 월암 스님의 ‘선불교-괴로움의 뿌리인 번뇌가 곧 보리’ 등이 발표된다. 이날 연찬회 발표논문들은 12월 초 총서로 출간될 예정이다. (02)720-3629

노덕현 기자

## 불교지화장엄전승회 ‘지화’ 주제 학술세미나

불교문화 중 하나인 지화(紙花) 장엄에 대한 전승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불교지화장엄전승회(회장 정명)는 11월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지화장엄의 세계와 전승현황’ 이란 주제로 제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불교지화장엄전승회장 정명 스님이 불교지화에서 단절되었던 한지 천연염색을 복원하는 방법 등을 발표할 계획이며 양종승 무속박물관장이 ‘불교, 무속, 궁중지화의 비교’ 를 통해 지화에 대한 종류 등을 비교한다. 또 강현모 한남대 교수가 ‘불교지화의 전승현황’ 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불교지화장엄전승회는 학술세미나에 이어 12월 11~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염화미소(染花微笑)’ 를 주제로 지화전시회를 개최한다. (02)2011-1877

노덕현 기자

## 동악미술사학회, 제63회 정기학술발표회 개최

동악미술사학회는 11월 30일 오후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제63회 정기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박지선 용인대 교수의 ‘한국 불화의 재료와 제작기법’ △정우택 동국대 교수의 ‘군산 동국사 조선전기 쌍림열반도’ △최응천 동국대 교수의 ‘일본소재 통일신라의 사리기’ 등 논문이 발표된다. (02)2260-3722

노덕현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사찰법당앰프설치전문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조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고성능 구조넥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 수강생 모집 >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30~9:00
■ 수강자격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에서는 심리상담 및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소에 도움을 주실 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충청불자 힘모아 불교 가르침 전하자”

## 보은 법주사, 11월 19일 조계종 제5교구 신도회 출범

‘24개 전체 조계종 교구 중 신도회 구성은 16개에 불과하다’ 는 본지 보도<11월 6일자 965호 1면> 이후 지역 교구신도회 활성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제5교구가 그 첫걸음으로 교구신도회를 구성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보은 법주사(주지 현조)는 11월 19일 청주 한마음예식장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구신도회를 출범시켰다.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을 비롯해 본사 국장 스님들과 말사 주지스님들, 신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그동안 추려진 임원진을 추인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조계종 제5교구 교구신도회(이하 교구신도회)에는 최윤철 법무법인 ‘주성’ 대표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부회장에 박용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감사에 이범수 서보산업 대표이사, 곽대순 중부매일 경영기획실장, 사무국장에 이장균 삼인종합건설 전무이사, 기획실장에 김홍길 조아호텔 CEO, 홍보부장에 박세웅 뉴시스 충북취재본부장, 조직부장에 유영준 교수, 문화부장에 윤용근 청주불교방송 총괄국장 등 충북불교계 대표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다.

교구신도회는 이날 임시총회에서 변진수 휘슬러 대표이사 외 10명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했으며 차기 총회에서 총무부장, 교화부장, 사회부장, 대외사업부장 등을 임명키로 했다. 교구신도회 당연직 총재로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으로 하여 본사와도 포교 및 신도조직화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윤철 변호사

**최윤철 변호사, 초대 회장 선출**
**충북 불교계 대표인사들 대거 포진**
**현조 스님 “충청불자 조직화 계기”**
**지역신도회 전국조직망 구축 신호탄**

교구신도회는 지난해 10월 조계종 측의 교구신도회 구성에 대한 지적 이후 주지 현조 스님이 신도회 구성을 공약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올해 3월 법주사 종무회의에서 최윤철 대표를 회장으로 임명했으며 차분히 회칙과 임원 구성 등을 해왔다.

최윤철 교구신도회장은 “제5교구신도회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5교구 관할 사찰 신도회 및 교구에 등록된 지역단위 신도단체 회원들의 대표 기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교구 내 사찰 수호와 발전에 호법조직으로 힘을 보태는 한편, 불교지도자 양성 및 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불자들의 힘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구신도회는 향후 계획으로 △삼보의 호지, △교구 내 수행, 포교사업, △교구 내 불사 추진 및 지원 사업, △교구 내 불교지도자 양성, 연구, 교육 사업, △교구 내 사찰 수호, 발전 사업, △교구 내 사회, 문화, 복지 사업, △기타 부대사업 등을 제시했다.

현조 스님은 “불교가 자기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조직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신도회 발족은 충청불자들의 힘을 조직화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다 활발히 펼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만의 전유물로 소유할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알려 불교를 통해서 희망을 찾고 평화와 안락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신도회 측에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1월 18일 열린 조계종 제5교구 임시총회에 참여한 스님들과 선출된 임원진들의 모습(사진 위)과 출범식에서 활발한 활동을 다짐하는 충청불자들의 모습.

# 청화 스님 열반 10주기 추모법회

한국불교의 큰 스승이셨던 청화 스님(1924~2003)의 열반 10주기 추모재가 11월 21일 곡성 성륜사(주지 무상)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 다례재에는 문도회 의장인 용타 스님,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금강선원 대중스님, 비구니 스님, 신도회 임원 등 300여 불자들이 참석했다.

추모 다례재는 종사영반, 삼귀의, 반야심경, 청화 스님의 육성법문에 이어 헌향 · 헌다 · 헌화, 성륜사 주지 무상 스님의 인사말, 용타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성륜사 주지 무상 스님은 인사말에서 “큰스님은 하루 한 끼 공양과 계율을 엄격히 지키며 치열한 구도자의 길을 걸으셨다”며 “하지만 후학들에게는 따듯한 말로 불교의 교리와 수행을 알기 쉽게 전해주신 선지자였다”고 회고했다.



청화 스님은 1923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 백양사 운문암에서 금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40여년간 대흥사, 사성암, 벽송사, 백장암, 상원암, 칠장사 등 선원과 토굴에서 수행정진했다. 지난 1992년 말에는 미국에서 미주 금강선원을 개설하며 해외포교에도 힘썼고 열반에 들기까지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활동했다. 스님은 지난 2003년 11월, 세납 80세, 법납 56세로 입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 길상사, 남방불교의식 카티나 법회

남방불교의 승보공양 의식인 ‘카티나 법회’가 광주에서 마련됐다. 광주 길상사(주지 도제)는 11월 17일 길상사 대웅전에서 스리랑카 이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스리랑카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카티나 법회를 봉행했다.

남방불교의 전통인 ‘카티나’는 음력 6월 보름~9월 보름의 여름철 우기(雨期) 안거가 끝난 뒤 대중들이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하며 함께 독경을 하는 법회이다.

이날 법회에는 싼타시리 스님(구미 마하붓다사), 비안난다 스님(대구 황카라마), 시다라나나(위덕대, 박사과정), 반야기띠 스님(충남 아산), 다미다(경기 부천) 등 스리랑카 스님 13명이 동참했다.



행사를 주최한 도제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법회는 타국에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이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한 행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언어와 문화를 같이 소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행사 의미를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광주불교연합회 창립… 3년간 이어진 내홍 끝내고 화합

## 11월 20일 초대회장에 증심사 연광 스님…72개 사찰 참여

지난 3년간의 긴 혼란의 시간을 뒤로하고 광주불교를 대표하는 새로운 승가단체인 광주불교연합회가 창립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20일 동구 수자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을 초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추대, 새로운 정관과 임원 등을 의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 스님,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 선암사 주지 설운 스님을 비롯해 광주지역 90개 사찰 주지 스님 등 지역 불교계가 모두 모여 연합회 발족을 축하했다. 광주불교연합회에는 광주지역 72개 사찰이 회원사찰로 참여했다.

준비위원회 측은 “지난 20여 년 광주불교를 대표했던 사암연합회에는 60여 사찰이 참여했는데 그에 비해 많은 사찰이 동참한 것”이라며 “광주불교의 미래를 위한 새 출발”이라고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1부 법요식에 이어 2부 창립총회, 저녁공양이 진행됐다.

법요식에서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총회에 참여한 스님들 개개인이 자신이 연합회의 주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전법에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광주지역 72개 사찰 회원**
**지선 스님 “주인의식 가져달라”**
**첫 행보로 봉축기획단 발족**

법요식에 이어 2부 창립총회에서는 세심정사 주지 법일 스님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돼 정관과 회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장으로 추대된 연광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불교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종단과 종파를 떠나 모두가 화합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석부회장에 법일 스님(세심정사 주지), 명신 스님(연화사 주지), 감사에 응묵 스님(선덕사 주지), 보혜 스님(비전사 주지) 등 선출직 임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중 임명직 부회장과 각 부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임원진 선출이 완료되는 대로 성도재일법회와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기획단을 발족하고 광주불심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연합회 창립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감사 응묵 스님, 수석부회장 법일 스님, 회장 연광 스님, 수석부회장 명신 스님

# 군산, 4대 종단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송월, 성흥사 주지)는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의 4대 종단 지도자들과 함께 ‘4대종단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사랑나눔 김장 담그기’를 개최했다. 11월 21일 군산시 종합운동장에서 4대종단 자원봉사자 300여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10kg들이 1,000박스의 김장김치를 담아 군산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 800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배부했다. 또 송월 스님과 원불교 최세종 교무, 천주교 장상원 신부, 개신교 홍기표 목사등은 종교를 초월한 사회 통합과 나눔문화 구현 등 자원봉사 활성화의 비전과 꿈을 실현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는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장김치 나누기행사에는 동국사, 흥천사, 상주사, 관음사, 정안사, 불주사, 수도암 등의 사찰 스님들과 불자들이 함께 동참했다.



송월 스님은 “종교를 초월한 아름다운 마음이 군산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고창 지역의 4대종단 지도자들도 11월 15일과 16일 이틀간 배추 1,600포기의 김치를 담아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375세대에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내가 직접 만드는 나만의 108염주

나를 위해 만든 108염주의 공덕도 크지만 남을 위해 만든 공덕은 무량합니다. 시방법계에 부처님 법을 전하고 회향하는 큰 실천이 시작됩니다.

**본 수행은 다음과 같은 좋은 인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 일심으로 참회의 절을 부처님께 올리며 그 정성이 담긴 한알 한알의 염주를 한번 절할 때 마다 한 알씩 꿰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108염주만들기' 수행은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내딛었던 길, 불자들이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서원은 아닐지라도 정성스레 마음의 향을 사르며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을 참회하며 청정심 내어 달라고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 그동안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을 **‘108염주만들기’** 수행을 계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하고 108염주가 만들어지면 내가 아닌 다른 이의 목에 걸어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다짐합니다.

❀ 이 인연을 통하여 시방법계에 회향하며 마지막 인내의 힘을 다해 절을 올리고 염주를 꿰게 되면 업장은 멸하고 공덕이 녹아 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108염주가 되는 것입니다.

❀ 스스로 만든 염주를 부처님 앞에 일주일 또는 보름간 모신 후 가져가시면 더욱 불심이 돈독하게 됩니다.



## 108염주 만들기 순서


1 염주세트키트 : 108염주 (10mm) 마감용 염주 1개(10mm) 모주 1개(12mm), 줄(살색), 코핀1개, 팬던트, 이쑤시개


2 염주 하나하나를 줄에 끼웁니다. 가끔 구멍이 막혀있는 염주는 준비물 중 이쑤시개로 해결합니다


3 108개의 염주가 다 끼워졌으면 모주(구멍이 3개) 양쪽으로 줄을 교차시켜 모아줍니다.


4 수직으로 나와있는 모주의 구멍에 코핀을 이용하여 두 개의 줄을 빼냅니다.



5 끝부분까지 빼냈으면 3회 정도 힘껏 매듭을 합니다. 매듭부분이 모주구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6 모주로부터 나온 두 줄을 마감용염주로 통과시킵니다.


7 마감용 염주를 통과 시킨 두 줄에 팬던트를 끼워서 다시 마감용 염주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8 이때 팬던트와 마감용 염주 사이에 3mm정도 남겨두고 모주와 마감용 염주 사이는 5mm정도 남겨둡니다.


9 두 줄로 2회 앞 뒤로 가볍게 매듭을 만듭니다.


10 다시 매듭을 3번 힘껏 조이면 됩니다.


11 가위로 2mm정도 남겨두고 자른 후 라이터로 살짝 지져서 손으로 가볍게 눌러줍니다.


12 108염주 완성

실용신안특허출원
20-2011-0003592
20-2011-0004171
20-2011-0005656



**108염주만들기 수행 프로그램**

*템플스테이, 사찰법회, 각종기도 수행, 어린이 법회 프로그램에 적합합니다. **「염주세트키트」는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또한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는 본사에서 진행중인 미얀마돕기캠페인 등 각종 공익사업에 후원 됩니다.

DdM 카페 108염주만들기운동본부

**현대불교신문 108염주만들기 운동본부**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문의 :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화엄의 바다로 구법행 떠나자

## 통도사 2013년 화엄산림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 · 교 · 율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진리를 갈구하는 구법대중들을 위해 화엄산림 대법회를 개최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12월 3일~31일 경내 설법전에서 진리를 갈구하는 구법 대중들을 위해 화엄의 법석을 펼친다.

12월 3일 통도사 방장 원명 대종사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총 29명의 선지식이 〈화엄경〉의 정수를 담은 법문을 펼칠 예정이다.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신라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현재의 화엄산림대법회는 1971년 12월 경봉 스님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은 영남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몰려드는 구법 대중들로 인해 화엄산림법회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화엄산림의 어원은 〈화엄경〉의 화엄이고 이는 진리의 법신이고 광명이다. 산림이란 '최절인아산장양공덕림( 斬人我山 長養功德林)에서 파생된 말로 '나다 너다 하는 아만심을 꺾어 없애고 공덕의 숲을 키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나를 꺾고 공덕을 쌓아 진리의 세계인 화엄의 바다에 도달하는 구법 여정인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는 그래서 소중하고 희유하다. 이 기간 동안 〈화엄경〉 현담을 비롯해, 세주묘엄품, 비로자나품, 여래출현품, 입법계품에 이르기까지 화엄경의 진수를 총망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번 법석의 법사진은 한국불교 선 · 교 · 율의 대표적 선지식들이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대종사의 입재법문으로 시작해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회향법문으로 막을내린다.

도문 · 인환 · 암도 · 월파 스님 등 원로의원은 물론 혜남(통도사 율주) · 법산(동국대 명예교수) · 종범(전 중앙승가대 총장) · 종진(해인사 율주) · 무비(전 교육원장) · 혜총(전 포교원장) · 지안(고시위원장) · 각성(화엄사 회주) 스님 등 우리 시대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는 법사들이 법좌에 오른다.

**12월 3일~31일 설법전서**
**선 · 교 · 율 대표 선지식인 초청**
**원명 스님 등 29명 법사로**

통도사는 "화엄산림대법회 기간은 매일 같이 불자들이 스님들의 다양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화엄경〉을 통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055)382-7182

박경수 부산지사장

**통도사 화엄산림 대법회 일정**

| 날짜 | 담당 법사 |
|---|---|
| 12월3일(화) | 방장 원명 스님(입재법문), 우진 스님(전 통도사 강주) |
| 12월4일(수) |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
| 12월5일(목) |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
| 12월6일(금) | 도문 스님(원로의원) |
| 12월7일(토) | 혜거 스님(탄허문화재단 이사장) |
| 12월8일(일) | 종범 스님(전 중앙승가대 총장) |
| 12월9일(월) | 무여 스님(축서사 회주) |
| 12월10일(화) | 인환 스님(원로의원) |
| 12월11일(수) | 암도 스님(원로의원) |
| 12월12일(목) |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
| 12월13일(금) | 해월 스님(해인사 강주) |
| 12월14일(토) |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 |
| 12월15일(일) | 무비 스님(전 교육원장) |
| 12월16일(월) | 혜총 스님(전 포교원장) |
| 12월17일(화) |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
| 12월18일(수) |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
| 12월19일(목) | 용학 스님(범어사 강주) |
| 12월20일(금) | 반산 스님(원각사 주지) |
| 12월21일(토) | 지안 스님(고시위원장) |
| 12월22일(일) |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
| 12월23일(월) | 성림 스님(통도사 선덕) |
| 12월24일(화) | 현진 스님(통도사 강주) |
| 12월25일(수) |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
| 12월26일(목) | 심산 스님(홍법사 주지) |
| 12월27일(금) | 도암 스님(송광사 강주) |
| 12월28일(토) | 각성 스님(화엄사 회주) |
| 12월29일(일) | 월파 스님(원로의원) |
| 12월30일(월) | 중선 스님(수도암 감원) |
| 12월31일(화) |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

# 화랑정신으로 새로운 청년정신 창출한다

##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학술대회

청도 운문사(주지 일진)가 신라 화랑정신을 통해 새로운 청년정신 창출에 본격 나섰다. 운문사가 최근 설립한 원광화랑연구소는 11월 16일 운문사에서 '원광법사와 화랑정신 새천년 청년정신을 꿈꾼다'를 주제로 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를 가졌다.

학술대회에는 동국대 이기동 석좌교수와 운문승가대학 학장 진광 스님, 대구 한의대 박홍식 교수, 일본 츠쿠바대 니시나카 켄지 박사들이 참석 원광법사와 운문사의 인연, 화랑정신의 일본 전파 경위와 현대적 구현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오전 학술대회 입재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과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등 200여명과 사부대중이 참여해 연구소 설립과 학술대회를 축하했다.

이날 명성스님은 법어를 통해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전한 세속오계는 신라 삼국통일 정신의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세속오계의 중요성과 불교적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원광화랑연구소 소장인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원광법사와 화랑정신에 대한 조명은 우리 청년들의 혼을 일깨우는 동시에 새천년 청년정신의 등불을 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광화랑연구소 개소기념으로 열린 학술대회

지난 9월 설립된 원광화랑연구소는 앞으로 원광법사와 화랑정신에 대한 학술조사와 국내외 학술교류, 연구용역 수행 등을 통해 새로운 청년 정신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불교승가연, 108고승 법회

### 12월11일, 부산KBS홀서

전국 고승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법회가 마련된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이사장 조연, 회장 법민)는 12월 11일 오후1시 KBS 부산홀에서 '전국108고승 불자봉정 사자후 청법 대법회'를 개최한다.

창립 1주년을 맞아 호국안보와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화합을 기원하며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대종사가 증명 대법주로 전국 185개 종단 400여명의 대중스님들과 부산 재부기관장과 3,500여명이 참석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고, 대회사(이사장 조연), 봉행사(회장 법민), 축사(허남식 부산시장), 법어(태고종 종정 혜초), 호국인왕경 봉독, 불자 봉정으로 진행된다.

법회에 앞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개최된다. 한복페스티벌, 부산불교합창단, 라온제나 오케스트라 공연, 초청가수공연 등이 이어진다. 특별행사로 대형 괘불화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도 진행된다.

이사장 조연 스님(법연원 종정)은 "부산을 불교 1번지로 수호하기 위해 108명의 고승을 모셔 대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불자 봉정을 통해 파사현정의 정법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놓기 위한 법회"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권했다. (051)557-1041

박경수 부산지사장

## 청도사암聯 청도군청 항의 방문

청도사암연합회(회장 연암) 스님들은 11월 18일 지역축제 찬송가 공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도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본지 967호 11면 기사 참조)

청도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30여 명은 이 자리에서 종교편향적 공연을 한 이유를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공연으로 군민 화합이라는 축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중근 청도군수는 "우려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 소방 설비 사찰 경관 고려해야

겨울이 왔다. 이맘때쯤 되면 산사에서는 화재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스님들이 바빠진다. 바람이 불고 건조하기라도 하면 더욱 더 마음을 졸인다. 불자들이 켜놓은 촛불이나 향불은 꺼졌는지, 혹시라도 종무실이나 요사에 켜놓은 난방기가 과열되지는 않았는지 살피기에 분주하다.

사찰에서의 화재는 어느 계절이라고 마음 놓을 수 없지만 불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 아무래도 마음을 놓기 어려운 계절이다. 예전과는 달리 소화용 설비나 다양한 방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그나마 마음의 짐을 덜기는 했지만, 경내가 대부분 목재건물로 채워진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불이 나면 그것을 끄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에서는 아직까지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오래된 포스터의 글귀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4조 4항).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다양한 경보설비와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화재방지 및 진화를 위한 설비들이 전통사찰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다는데 있다. 물론 화재방지와 진화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장소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떨어져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도 무방하거나 그러한 설비를 차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더구나 관리하지 않아서 녹이 슨 것도 있고, 소방설비 근처에 짐을 쌓아놓기도 한다.

일본의 사찰에서는 법적으로 일 년에 한 번씩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수시로 경보설비와 소방설비를 점검한다고 한다. 또한 문화재사찰에서 갖추어야 할 화재방지 및 진화를 위한 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찰의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소방설비를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띠지 않고 사찰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전통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사찰이 오랜 시간동안 형성해온 사찰경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화재예방 및 진화용 설비의 설치위치를 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차폐를 하여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화재시 진화를 위해 설치한 물대포가 사찰의 경관을 해친다. 또한 실제상황에서 필요한 철저한 관리도 요구된다. 경상남도 ㄱ사찰




# 메마른 가슴 활짝 열게 해 주는 '開心'의 도량

## 기도하기 좋은 지장도량- 서산 개심사

개심사 가는 길이 예쁘다. 개심사로 향하는 647번 지방도는 운산면 목장지대를 관통한다. 뾰족하지 않고 완만한 곡선을 가진 언덕들이 포개진 형국이다. 봉긋한 언덕들을 보고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하다. 운산면의 목장은 1960년대 후반 김종필씨가 조성했다. 정식 명칭은 농협 가축개량사업소다. 봄이면 능선을 따라 벚꽃이 가득 피워 장관을 이룬다.

지난 9월에는 진입로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구가 정갈하다. 산책 코스로도 환상이다. 목장지대를 지나면 신창저수지가 나온다. 큰 규모는 아니지만 예쁜 다리도 있고 가장자리에 물풀도 있어 제법 운치가 있다. 작은 쉼터도 마련돼 있어 숨 고르고 가도 좋다.

역시 최근에 넓혀진 주차장서 개심사 경내까지는 그리 멀지 않다. 10여분, 솔숲을 오목오목 짚어 가면 돌계단 끝에 절집이다. 해탈문 들기 전 만나는 외나무다리는 개심사가 유명해지는데 큰 일등공신이다. 반듯한 직사각형 연못을 가로질러, 큰 통나무 기둥을 길게 반 갈라, 떡하니 걸쳐 놓았다.

초겨울 길목서 바라본 연못 주변 풍경은 우아하고 고상하다. 그래서인지 관람객들에게 카메라 셔터가 제일 많이 눌러지는 곳이다. 수면에는 떨어진 낙엽이 유유히 떠다니고 연못을 에두른, 아름드리 팽나무, 굴참나무의 울긋불긋한 이파리 등이 어우러지는 풍광은 불국토를 연상시킨다.

외나무다리를 건너지 않아도 경내로 들 수 있지만, 일부러 걸음 한 이들 가운데 열에 아홉은 이 풍경에 반해 다리를 건넌다. 개심사가 있는 곳은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 상왕산이라 불린다. 코끼리가 목이 마르면 산세가 기우니 우물을 만들어 이를 해소했다고 전한다.

개심사는 뜻 그대로 '마음을 여는 절'이다. 백제가 망하기(660년) 불과 6년 전인 의자왕 14년, 서기 654년에 창건되었으니 말 그대로 천년 고찰이다. 당시 절을 창건한 해감 스님은 절의 이름을 개원사(開元寺)로 했으나 고려 때인 1350년에 처능 스님이 중건하면서 오늘의 이름인 개심사로 개칭했다고 한다. 지금의 모습은 1955년 전면 보수 공사의 결과물인데 코끼리의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연못을 지나면 해탈문, 안양루, 심검당, 대웅보전 등이 등장한다. 규모로 보아서는 작은 절이지만 어쩐지 차분한 기운이 절의 안팎을 휘감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개심사 전각에는 특징이 있다. 각 가람들을 지탱하는 기둥이다. 굽어있고 배가 불룩하며 위아래의 굵기가 다르다. 매끈하지 않고, 참 못생겼다. 나무를 전혀 손질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대로 갖다 쓴 탓이다. 대웅전만 빼고, 해탈문, 범종각, 심검당 등 대부분이 다 그렇다. 특히 범종각 지붕을 받치고 선 네 개의 기둥은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개심사가 좋은 이유로 이 기둥을 드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절다운 고즈넉함이 많아서 일까 개심사는 기도하기 좋은 절이다. 수행자들의 향훈이 서려 있기에 더욱 그렇다. 한국불교 선종 중흥조인 경허 선사가 이곳서 주석하며 정진한 선기도 어려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허 선사의 수법 제자였던 혜월 스님도 이 사찰서 인가를 받았다고 하니 선풍진작의 유서가 깊은 가람이다.

그리 잘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사실 개심사는 4대 지장 기도도량으로도 유명하다. 명부전이 있어서인지 노인들이 자주 개심사를 찾는다고 한다. 명부전

**나무 기둥 살린 자연스런 미학 돋보여**
**경허선사 주석처, 혜월 스님 인가 받아**
**지장보살 모신 명부전 인상적**

은 오른쪽으로 좀 떨어져 있다. 대낮인데도 어두운 분위기와 무섭게 생긴 신상들 때문인지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마치 저승에 와서 심판을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문 옆으로 보면 금강역사가, 지장보살 좌우엔 명부의 재판관 10명이 노려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생을 위해 변론 역할을 맡아서인지 오직 지장보살만이 지긋이 응시하고 있다. 그 중 다섯 번째가 염라대왕이라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이 심판을 할 때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한다. 이생에서 개심사 명부전을 몇 번 참배했느냐고. 진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개심사 명부전을 참배하면 공덕이 쌓인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다. 아무튼 좀 떨어져 있어 놓치기 쉽지만 염라대왕의 질문에 당당히 답하려면 개심사를 방문할 때 꼭 명부전도 참배하자.

서산 개심사= 김주일 기자


휘어진 나무를 그대로 살린 기둥이 자연스런 파격미를 드러내는 개심사. 전망이 빼어나진 않지만 금북정맥의 험하지 않은 산세와 내포의 넉넉한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절집이다.


굽어있고 배가 불룩한 나무기둥이 인상적인 심검당.


코끼리 형상인 개심사의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연못.

### 주변 볼거리

**'백제의 미소'…서산 마애삼존불상**



운산면 용현리에 마애삼존불상(사진 · 국보84호)이 있다. 바위 한 면에 본존여래상, 보살입상, 반가상을 조각했는데 그 모습이 우아하고 곱다. 이들 마애불의 미소는 '백제의 미소'로 불린다. 여느 돌부처처럼 위엄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표정 대신 해맑은 웃음을 머금고 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예쁜지 보고 있으면 덩달아 미소 짓게 된다. 암벽에 부조로 새겨진 마애불상으로 중앙에 여래입상, 좌측에 보살입상, 우측에 반가사유상이 조각돼 있다. 1958년에 처음 발견돼 일반에게 공개됐으며,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면 관리사무소에 문화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으니 미리 예약하면 된다. (041)660-2538

**해미읍성…이국적 풍광 인기**

해미읍성은 다른 읍성과 달리 성 뒤쪽 구간에는 성벽과 평지 사이에 골을 파놓음으로써 들판을 달려온 적군들이 곧장 성벽을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해 두었다.

해미읍성의 역사는 고려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지역은 왜구의 출몰이 극심했다. 사태의 심각성과 대책을 알고 조선 정부가 1417년 태종 17년이 되어서야 축조 사업을 시작, 세종 3년인 1421년에 이르러 완성된 군사 행정 시설이다.

읍성이 활발할 당시에는 동헌을 비롯해 아사 및 작청 등의 건물들이 빼곡히 있었고, 개화기 때 조선 정부가 천주교도들에게 끔찍한 박해를 가한 슬픈 현장이기도 하다.

그 뒤로 망국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름답던 해미읍성은 폐허가 되었다.

그러다 1974년에 동문과 서문이 복원됐고, 1981년 성내 일부를 발굴한 결과 현재의 동헌 서쪽에서 객사와, 현재의 아문 서쪽 30m 지점에서 옛 아문지가 확인되었으며, 관아외곽석장기지가 발견됐다.

### 맛집&숙박



개심사 입구에는 **고목나무가든**(산채정식, 041-688-7787)을 비롯한 음식점이 두어 군데 있다. 해미읍성 앞의 **시장순대**(041-688-4370)는 직접 만들어 파는 순대와 얼큰한 순대국밥 맛이 일품이다.

서산마애삼존불 입구의 **용현집**(사진 위 · 041-663-4090)은 잘게 간 미꾸라지와 밥, 소면을 함께 넣고 얼큰하게 끓인 어죽이 맛있다.

서산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가 위치한 용현계곡의 맨 안쪽에는 숙박시설가 휴식공간을 두루 갖춘 **국립용현자연휴양림**(041-664-1971)이 자리잡고 있다. 용현리에는 **숲속의민박**(041-662-2121)을 비롯한 민박집도 여럿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8-3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 전화 010-7415-0803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미얀마 불교 이야기

16. 중국과 인도 사이의 미얀마

# 중국과 인도, 불교 이용 동남아서 힘싸움

**인도, '불교코드'로 중국 견제**
**정부지원 하에 국제불교대회 열어**
**티벳 달라이라마 위상 강화 개입**

중국의 외교전략은 미얀마 등지의 인접국에 대한 종교적 문화적 정서에 바탕한 실용주의 전략(diplomatic pragmatism) 구사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불교인구는 많게는 4억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세계 불교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 집계다. 중국은 문화혁명 당시 파괴됐던 유교와 불교 등 종교문화를 부흥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처음 중국은 자국에서 기원한 유교를 중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불교를 중흥하려는 움직임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유교보다는 불교가 아시아 국가에서 살아있는 종교와 문화로 자리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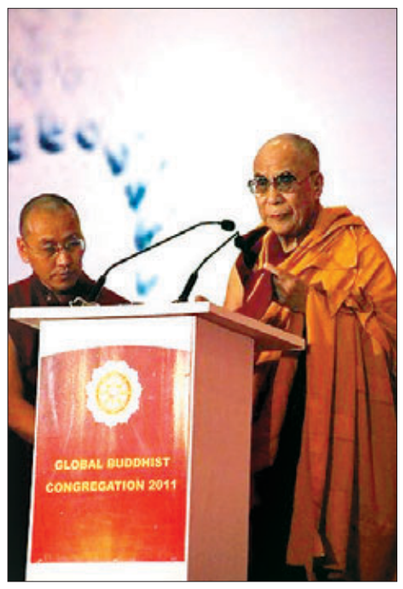
특히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강한 멜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고 인도양에서 미얀마를 경유해 중국으로 연결되는 송유관을 연결한 바 있다. 중국은 미얀마의 송유관을 따라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해 인도양 진출을 꾀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대응해 중국이 인도양으로 진출하려는 '진주목걸이' 전략은 동남아 캄보디아에서 인도 아대륙을 거쳐 아프리카 예멘까지 이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전략이 인도를 긴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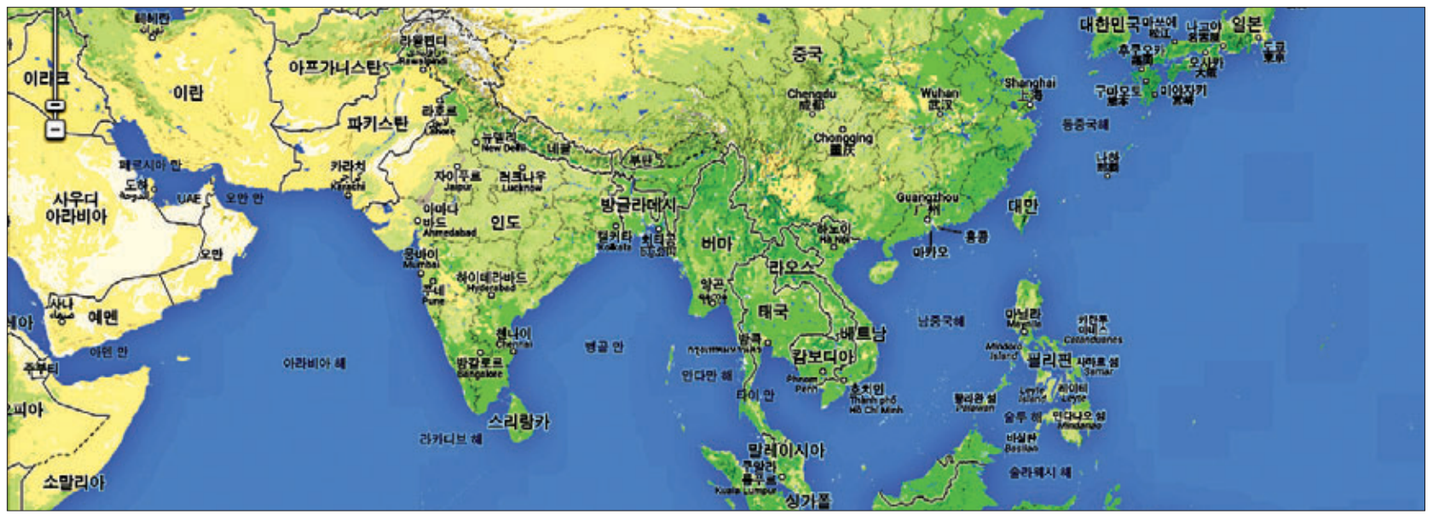
중국의 인도양 진출은 미얀마의 시트웨 항구와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양에 위치한 스리랑카와 몰디브 그리고 파키스탄에 연결되는데 이는 인도를 그대로 포위하는 형국이다.



2011년 열린 아소카 불교포교회의의 국제불교대회 GBC 2001 모습. 이 대회에는 800명에 달하는 불교 학자, 사업가 등이 참여했다.



GBC 2001에서 발언하는 달라이라마.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미얀마를 통해 인도양 방면으로 진출하려 하고 있다. 이에 인도 또한 동남아에서 중국세력의 확대를 견제하고 있다.

### 인도 동방정책으로 중국 인도양 진출 제어

인도는 중국의 동남아로의 남진정책(南進政策)과 '진주목걸이' 전략에 대응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를 동방정책(Indian Look East Policy)이라 한다. 인도가 중국의 남진에 대응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움직임이다.

그로 인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와 중국은 필연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고려하면 인도양 진출이 필수적이며, 인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인도양에 진출하면 또 다른 압박을 받기 때문에 중간지점인 동남아에서 대결하는 양상을 띄고 있다.

여기서 중국과 인도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로 불교가 각각 이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동남아의 주요 나라들의 대부분이 불교인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는 미얀마를 위시한 동남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장을 위해 불교를 통한 '종교 문화적 코드'로 접근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경쟁국인 중국이 불교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크게 자극을 받은 것으로 향후 인도의 이런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인도의 동방정책에는 중국이 불교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접근한 데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 담겨 있다. 인도 측에서는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임을 들어 이러한 불교코드가 중국에 비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언론들은 미얀마 등 동남아 불교권을 두고 중국과 인도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앞다투어 기획보도한 바 있다. '중국과 인도는 전략적인 지역과업으로 고타마 붓다를 이용하고 있다' (China and India use Goutam Buddha for regional Karma)에서 '양국은 붓다를 일종의 무기로 이용' (using the Buddha as weapon), '붓다를 사이에 두고 양국 간의 전쟁은 이제 미얀마에 당도했다' (India-China 'battle for Buddha' reaches Myanmar) 등의 표현이 나오기까지 했다.

인도는 힌두교가 지배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지배종교인 대륙부 동남아 지역에서 불교를 매개로 '문화적 종교적 친밀도'를 끌어가는 전략을 선택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적극적인 인도 정부 지원 눈길

최근 '인도-미얀마' 간 불교 행사 개최의 배경을 살펴보기에 앞서 인도가 인접국에서 개최한 몇몇의 불교행사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도의 불교행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생각이 확연히 든다.

인도 정부는 인도 아소카 불교포교회(Asoka Mission)를 지원해 2011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석가모니 붓다의 성도(成道) 기원(紀元) 2,600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실 이 행사는 2011년 5월 16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미국 뉴욕 유엔 총회 대회의장에서 진행한 기념행사에 비해 무척 뒤늦은 시점에 열린 것이었다.

인도 정부는 이 행사에 32개국 대표 800여 명을 초청했다. 대회에는 태국 종정을 비롯해 스리랑카, 몽골, 부탄 등의 각국의 수상들과 불교지도자, 그리고 인도 문화부(ICCR)와 고엔까 세계 위빠사나 수행단체 등 다양한 관계 단체들이 참가했다.

이 대회에서는 인도 수상과 각료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인도대통령의 개막식 연설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인사들이 성도지인 보드가야와 초전법륜지인 녹야원을 성지순례하기도 했다. 6일간 열린 대회 주요 내빈의 숙박 및 일체 경비는 인도정부가 지원하기도 했다.

이 대회 당시 중국은 이 대회에서 인도에 망명한 달라이라마의 참여를 배제해야 함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도 측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달라이라마에게 행사의 시작과 끝에 막중한 역할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인도정부는 스리랑카에서 열린 봉축행사를 열기도 했다. 스리랑카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데 이를 염려한 인도 정부가 뉴델리 국립박물관에 안치돼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 '까필라와스트 진신사리(Kapilavastu Relics)'를 스리랑카에 이운해 대대적인 봉축행사를 개최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인도는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인도 중앙정부와 U·P주와 비하르(Bihar)주 등 지방정부와 연계해 다시 국제불교대회(International Buddhist Conclave 2012)를 개최하기도 했다.

불교의 발상지인 U·P주와 비하르주에 걸쳐있는 불교성지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미얀마를 비롯해 불교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아시아, 또 유럽과 미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약 350명의 해외 불교관련 사업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이 대회에는 주로 언론 관계자와 대학교수, 관광사업 종사자들이 초청됐다. 이들과 함께 인도정부는 인도 불교유산의 홍보와 관광자원화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특히 인도 연방의 16개 주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신이 속한 주의 불교유산과 그 가치를 적극 홍보했다.

**불교기원 활용해 '동방정책' 펼쳐**
**중국 대응해 동남아 공략에 사활**
**미얀마 사원 복원 등에 힘보태**

여기서 인도는 자국의 불교유산을 이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이익도 얻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먼저 불교유적지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고용증대를 꾀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연합해 대대적인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자국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전 세계에 홍보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도의 대표신문 중 하나인 'Hindustan Times'가 당시 '정부는 불교유적지의 관광자원화로 3000만(3croe) 일자리 창출 기대'라고 제목을 붙인 글을 보면 인도 중앙정부 관광청 장관인 'Subodh Kanta Sahay'는 "30개 나라에서 대략 5억(50croe)의 불교도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인도로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 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속돼 U·P주와 Bihar주에 이어 동부인도 Odisha주 또한 2013년 2월 1~3일 Udaygiri에서 국내외 불교학자들과 문화 관계자들을 초청해 '국제불교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서 더 나가 최근 인도는 미얀마나 캄보디아 등지에 불교문화유적지를 복원시키는데 많은 비용과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원하고 있다. 자국의 문화유산을 정비하는데도 소요경비와 예산에 따른 어려움이 많지만 이 지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다.

대표적 예로 미얀마의 바간(Bagan)의 아난다(Ananda) 사원의 벽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인도 고고학 연구청(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이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도는 미얀마에 부처님의 성도지인 보드가야(Bodhgaya) 성지순례 등에 연계상품을 개발해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다. 양곤과 보드가야 그리고 콜커타-양곤의 직항루트를 신설하고 증설을 또한 검토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봉 축

용암사 오백나한 봉안 원만 회향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시방삼세에 두루 고합니다



한 송이 두 송이 용암사 도량에 피는 꽃, 한번 피면 지지않는 우담바라와 같이 사바세계에 두루하여 어두운 마음을 빛나게 하소서...
나투소서! 나투소서! 오백성중님이시여!

죽비소리 한번울려 사마외도 잠이들고 죽비소리 두번울려 모든 중생 눈을 뜨네,
부처님의 높은 법문 그윽히 메아리치는 용암사 죽비소리 오늘도 멈출 수 없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 대다라니 108편. 독송 천일기도 접수합니다

오백나한도량 용마산 용암사

주지 관 오
신도회장 정진심 후원회장 법인월
수선회장 대법장 합장

龍馬山 龍巖寺

서울 광진구 중곡4동 176-42 ☎ 02)446-1571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 이야기 ⑨ 향로봉



# 소나무는 향, 봉우리는 향로

향로봉은 북한산의 족두리봉과 비봉 사이에 있는 봉우리로 북한산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봉우리 모양이 향로처럼 생겨서 향로봉이라 불린다고도 하고, 지금은 사라졌지만 고려시대에 융성했던 절, 향림사의 뒷봉우리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구파발 방면에서 보면 사람 옆모습을 닮았다 하여 인두봉이라고도 하고,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졌다 하여 삼지봉이라고도 한다.

안녕? 난 향로봉 소나무. 500년을 살았어. 500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내가 무척이나 클 것 같지만, 미안, 난 그렇게 크지 않아. 다른 소나무들과 비슷하지. 왜냐구? 그게 바로 나의 장수비결이야. 너무 크지 않는 것. 그래야 마구 베어가는 사람들한테서 나를 지킬 수 있지. 이런 지혜는 할아버지한테 배웠어. 아버지는 200살밖에 못 사셨어. 아버진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키를 키웠지. 이 높은 데까지 누가 와서 베어갈까 싶었던 거야.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큰 소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나무가 더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까지 올라 왔단다. 이미 키를 다 키워놓은 아버지는 숨지도 못하고 잡혀가신 거지. 그래서 난 할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어.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게.

내가 아주 어린 묘목이었을 때, 이 바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단다. 그때 내가 쉽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셨지. 우리는 척박한 바위에 뿌리를 내리느라 거의 모든 힘을 쏟고 있으면서도,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어서 봉우리에 살게 된 것을 운이 좋다고 여겼지. 능선 아래로 보이는 넓은 평야와 평화롭게 흐르는 강, 강 끝에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 하늘은 시시각각으로 바뀌고, 들판의 풍경은 언제나 아름답지.

우리가 주로 서쪽을 바라본 이유는 할아버지가 바다를 좋아해서야. 할아버지는 바다와 하늘의 빛깔만으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시는 분이셨어. 할아버지가 뿌리에 단단히 힘을 주라고 하는 날에는 큰 바람이 불며 세찬 비가 오곤 했지. 서쪽 하늘에서 먹구름이 빠르게 밀려오면 할아버지는 새들과 짐승들에게도 안전한 보금자리로 돌아가라고 큰 소리로 일러주셨지. 그러면 짐승들은 서로서로 이야기를 해주며 산 아래에 있는 나무들에게까지 소식을 전해주었지. 가끔 산 아래에 있는 키 큰 나무들이 허리가 뚝 부러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달려오는지 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아무튼 우린 다른 나무들보다 높은데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심심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비바람에도 더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 내 어린 시절은 하루 종일 할아버지와 함께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단다. 날아가는 새들에게 가지를 내어주며 쉬는 새들과 얘기를 나누는 것도, 쫓기는 짐승들을 숨겨주며 그 보답으로 산속의 소식을 듣는 것도 모두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란다.

할아버지가 아주 젊었을 때 저 강가는 평화롭게 물고기를 잡거나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 길이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로 바뀌기 일쑤였다지. 참으로 오랫동안 그렇게들 싸웠다더구나.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산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군사들이 밀려오기도 하면서 이 산에 있는 짐승이나 나무들도 많이 죽었단다. 그러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살게 되면서 이 산속에도 많은 건물이 지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었다지. 여기저기서 크고 멋진 나무들이 베어져 건물 짓는 데로 이용되고, 또 작은 나뭇가지들은 땔감으로 베어져갔어. 잘 생긴 소나무들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는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크지 않게 관리를 하신거야. 키는 자그마하고 가지는 낮게.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새들이 편안히 쉬고, 짐승들도 안심하고 숨어 들었던거야.

산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시끄러워졌고, 거기에 견디지 못한 짐승들 대부분이 산을 떠났어. 가끔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키느라 사람들과 싸우는 짐승도 있었지만, 사람들이란 웬만해선 두려워할 줄 몰랐지.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돌을 깨고 성벽을 쌓고 절과 병사들의 숙소를 지었어. 북한산성을 쌓기 시작했던 거야. 아! 그때 우리들은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시끄러워서. 사람들은 소란스럽기만 한 게 아니었어.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건 모두 가져갔어. 그래서 우리들 목숨은 한 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아주 위험했지. 우리는 사람들이 시퍼런 톱이나 도끼를 들고 다가오기만 해도 몸을 움츠리고 그들이 지나가기만 빌다가, 그들이 지나가면 휴우~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 그렇게 불안하게 지내던 날, 아버지가 잘려 나가신 거야. 사람들 눈에 띌 만큼 늠름하고 잘생기신 때문이었지. 난 그때 몹시 슬펐지만 목을 움츠리고 슬픔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 그날부터 나는 더욱 더 나를 낮게 가꾸어 갔어. 그러다보니 외모는 그저 그랬지만 마음속에서 겸손이 자라나게 되었어.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마음속의 겸손이, 화려한 외모보다 훨씬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겸손해지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나를 좋아했고, 나를 도우려고 마음을 써 주었거든. 그렇게 백년 쯤 살았을 때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봉우리가 내게 말을 걸었지.

"네가 내 머리위에 있으니 내 몸이 향기로워지는구나. 나는 너를 머리에 인 향로가 될 테니 너는 향내를 뿜어내는 귀한 향이 되어라. 그래서 이 산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성취되도록 도와주자."

난 봉우리가 한 말에 감동해서 더욱 더 깊게 뿌리를 내리며, 향로 위에 켜진 향처럼 내 몸을 향기롭게 가꾸려고 노력했어. 그렇게 세월이 흐르자 봉우리와 나는 한 몸이 되었고, 북한산에 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로봉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단다.

〈얘기꾼〉 박용희

# 백제 후손 행기 스님의 원력, 면면히 서려



신중일 기자 일본 관서 교찰을 가다
⑨ 나라 도다이지



일본 나라 도다이지(東大寺)의 대불전 전경. 세계 최대 목조건축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나라대불로 알려진 청동불이 안치돼 있다.



도다이지의 백미인 청동대불. 높이가 16.2m, 얼굴 크기만 5m에 이른다.

도다이지, 일명 동대사(東大寺)는 한국인에게도 친숙한 사찰이다. 나라를 찾으면 꼭 들리는 관광코스이기도 하거니와 실제 이곳 저곳에 볼 거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홍준 명지대 교수는 도다이지를 보고 "이곳을 들리지 않으면 나라에 다녀왔다 할 수 없다. 마치 불국사를 보지 않고 경주를 다녀왔다고 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16.2m의 세계 최대 청동대불과 수많은 전각뿐만 아니라 도다이지에서는 천 마리의 사슴이 거닐고 있다. 도다이지를 찾는 순례객을 처음 맞아주는 것은 바로 사슴이다. 사슴들은 경내를 유유히 걸으면서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먹고 때로는 먹이를 줄 것을 종용한다. 표지판에도 사슴을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있다. 초식 동물이라 공격성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갑자기 머리를 들이대면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도다이지는 남도(南都) 7대 사찰 중 하나이며 화엄종의 본산이다. 745년 쇼무 천왕의 발원으로 로벤 스님(良弁, 689~773)이 창건했다. 본존은 비로자나불로 크기 16.2m, 얼굴 길이만 5m로 속칭 '나라 대불(大佛)' 이라고 한다. 대불이 안치된 '다이부쓰덴(大佛殿)' 은 세계 최대의 목조물로 본래는 건물은 화재로 소실됐고 현재 건물은 에도시대에 세워진 것이다.

무엇보다 도다이지의 '백미(白眉)' 는 청동 대불이다. 높이가 47m에 이르는 전각 안에 16.2m에 이르는 대불이 놓여 있는 모습에 참배객은 압도될 수 밖에 없다. 대불을 주위로 협시보살과 금강역사상 등도 그 위용이 대단하다.

이런 청동 대불을 700년대에 세운다는 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다. 당대 가장 유명한 불모들과 기술자들이 불상 조성에 온 정열을 쏟았을 것이고, 국민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함께 순례를 했던 동국대 선학과 교수 보광 스님은 "당시 이 정도의 대불을 조성할 수 있는 기술력은 현재 핵 개발과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대형 불사는 당시 백성의 결속을 도모하고 자국의 문화 능력을 타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도다이지에 가기 위한 기차 역에 세워진 행기 스님의 동상. 행기 스님은 백제 후손이다.

**16m 청동대불 위용에 감탄**
**경내의 삼월당은 숨겨진 보물**
**행기 스님 삶은 불자의 귀감**

도다이지에서 행기당과 삼월당을 찾지 않는다면 도다이지를 모두 본 것이 아니다. 행기당에는 도다이지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구세제민' 의 원력을 실천한 행기 스님이 모셔져 있고, 삼월당은 도다이지를 완성시키는 목조건축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월당에 대해서는 유홍준 교수의 저서를 살펴보면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삼월당은 다르다.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은 훌륭한 작품만이 지닌 특권이다. 이런 삼월당이 있기 때문네 동대사는 디테일이 살아 있는 명찰로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적 가치가 적지만 행기당을 둘러보길 권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행기 스님이 백제 도래인의 직계 후손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일본에서는 '보살' 까지 추앙받는 그의 삶이 현대 불자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기 때문이다.

행기 스님은 도다이지 건립 당시 대불 건립 기금을 권선했던 역할을 맡았다. 그렇다고 해서 행기 스님을 정권에 기댄 인물이라고 섣불리 재단해서는 안된다. 15세 출가해 20년을 수행한 행기 스님은 포교활동에 자신의 모든 원력을 쏟아부었다. 교각과 제방, 고아원, 도량 등 사회 제반 시설을 건립해 민중을 도왔고 스님을 쫓아 제자가 된 사람들이 수 천명에 이르렀다. 과거나 현재나 명망있는 재야 종교인을 그냥둘리 없다. 당시 야마토 정권은 행기 스님을 옥에 가두는 등 탄압했으나, 그의 대중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대불 기금을 권선하는 중책을 행기 스님에게 부탁했고, 대불 조성 불사는 원만히 회향하게 된다. 이런 공로로 행기 스님은 대승정에 지위까지 올랐으며 현재까지도 그를 보살로 추앙하고 있다.

실제 스님의 고향에는 행기 스님에 대한 박물관이 있으며 도다이지에 가기 위한 기차역 광장에는 행기 스님을 기리기 위한 동상도 세워져 있다.

민중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그래서 정권의 탄압을 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던 행기 스님의 삶은 오늘날 불자들이 가져야할 화두이다. 도다이지는 그런 행기 스님이 원력과 삶이 면면히 내려오는 도량이다.

이 원고는 조계종 교육원 승려 연수프로그램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병고로 시름하는 모든 분들이 약사여래부처님 신앙으로 병마로부터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
"병고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약사여래부처님이 상주하고 계시는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으로 오십시오"

중생의 병고에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고 했지요? 사대가 조화되지 않아서 오는 병은 병원에 가면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업의 과보로 오는 업병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또 귀신이 붙은 병은 못 낫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붙었건 업병이건 사대의 조화가 되지 않아서 왔건 간에 약사부처님한테 오면 문제가 해결 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약사부처님이 계시는 이 약사궁을 찾아오라 그거예요. 기도도 붙이고, 오늘과 같이 약사재일날 함께 공양도 올리고 해라 그거요. (2013년 10월 12일 약사재일 자재만현 큰스님 소참법문 중에서)



약사삼존불을 봉안하는 점안식 ㅡ 약사여래부처님과 좌우보처 일광불 일광변조보살님 월광불 월광변조보살님께 스님들이 공양을 올리고 있다

사고사할 뻔한 남편이 약사부처님 가피로 기적처럼 소생하다

리모콘의 오작동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기계 중간에 몸이 끼어서 모든 장기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갈비뼈가 8대 부러졌고 콩팥, 폐, 간, 위 등이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약사여래부처님께 첫 번째 공양을 올리고 나자 마음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사고가 난 지 25일만에 의식이 돌아왔고, 중중환자실에서 45일만에 일반병실로 옮기고 10일 정도 더 치료했습니다. 지금은 창원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혼자 걸을 수 있고, 음식도 잘 먹고, 말도 잘 하고 정상인처럼 되었습니다. 의사도, 환자의 처음 상태를 본 주위사람들도 이건 기적이라고 말들 합니다. (2012년 4월 20일 창원에서 정경숙)

– 현지사 홈페이지 '신행담' 중에서

약사재일 - 매월 음력 8일 (9시 30분) 봉행합니다.
약사여래부처님 공양 · 기도 접수받습니다.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길 7 팩스 033)681-5538
영산불교 현지사 고성분원 약사성전 전화 033)681-5515
※ 약사재일에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에서 버스가 출발합니다.

부처님이 무아속 절대계에 여여히 계심을 선언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Ⅰ·Ⅱ
(영산불교 현지사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춘천본사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95 전화 033)243-1787, 팩스 033)243-4371,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만약 인연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그 마음이 있다거나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인연에 호응할 때에도 또한 종적이 없다.**

수불 스님의
## 완릉록 선해 〈21〉



범어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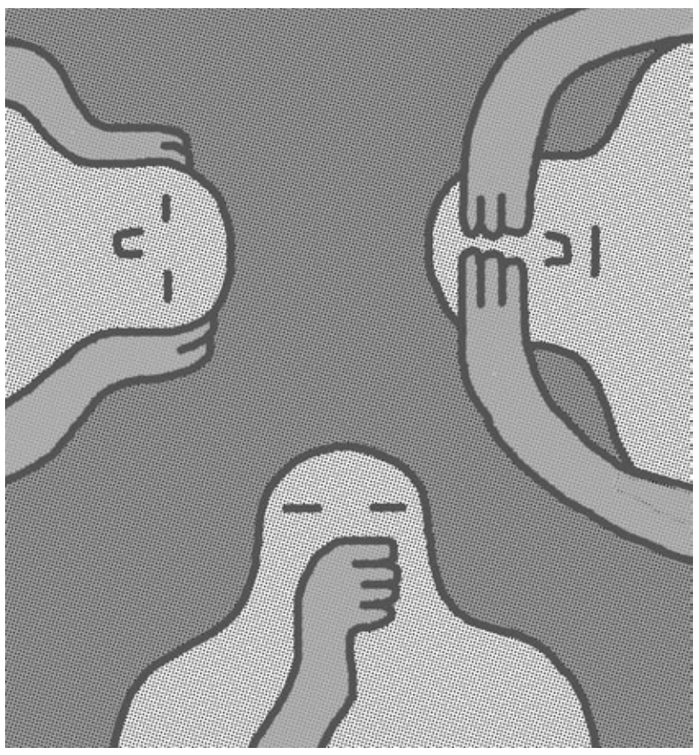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마음은 작용할 때나 작용하지 않을 때나, 모양이 없기 때문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없다고도 할 수 없다. 아무리 찾아도 있다고 할 근거는 없으며, 또한 그러면서도 대기대용(大機大用)으로서 온갖 작용을 다하고 있기에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분명 작용은 있는데 몰종적(沒 蹤跡)으로 흔적이 없으니,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마음이란 전도몽상에서 깨어나기 전에는 아무리 그 이치를 알아들어도 마침내 소화가 안 되어 마냥 더부룩하기만 한데, 일단 의심의 뭉치가 한 번 터져나가면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아직 공부가 안 된 입장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란 생각으로써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간파해야 한다. 이럴 때 학인은 "그러면 사구(四句)와 백비(百非), 모든 것을 부정한 입장을 여의고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하고 묻게 된다. 눈 밝은 선지식이라면 풀을 쳐서 뱀을 시험해보듯이 타초경사(打草驚蛇) 하여 상대방을 간파한다. 진짜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교학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것인지를 담박에 가려내는 것이다. 만약 진짜 약이 오른 뱀이라면, 급소를 찔러서 한 방에 탁 터져나가게 만들어준다. 만일 진정 근본에 대한 의심으로 꽉 차있는 학인이라면, 바로 터지든지 아니면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의단(疑團)이 더욱 뭉칠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열리는 기연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미 이런 줄 알아서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쉴 수 있다면, 곧 모든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것이다.**

있다 없다는 입장을 넘어선 '없음' 가운데 머물러 쉬는 것이 곧 머무름이 없는 '무주(無住)'다. 제불보살께서는 언제나 이곳에 계신다. 그곳이 바로 눈앞에 환히 드러나 있지만, 무명에 눈이 가려진 사람은 눈 뜬 장님이 되어 망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눈 뜬 장님에게는 천지가 어둠 속이지만, 다만 눈만 떠버리면 선 자리가 그대로 개명천지의 정토다. 눈을 떠서 잠에서 깨어나느냐, 아니면 잠 속에서 계속 악몽에 시달리느냐는 선택을 진실 되게 받아들일 때, 공부의 발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머문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다.**

〈금강경〉에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보살이 보리심을 발한 다음 그 마음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여쭈었을 때, 부처님께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셨다.

**마음은 모양이 없기에**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없다고도 할 수 없다.**

**마음은 본래 머문 바**
**없기 때문에,**
**보살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다.**

**마음이 담연하게**
**자기 집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떠돌기 때문에,**
**육도윤회하며 생사를**
**거듭하고 있다.**

**한 마음 사라지면,**
**온갖 경계도 없어진다.**

육조 혜능스님께서도 이 '응무소주이생기심' 구절에서 몰록 깨치셨다. 알고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본래 머문 바가 없다. 본래 머무는 바가 없기 때문에, 보살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본래 머무는 바 없는 이 마음에 계합하면 그만이지, 새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려고 애쓰는 것은 부처님이나 조사의 뜻에 어긋난다. 무위법을 알아듣고, 만사를 내려놓고 바보 천치가 되어 시간 보낼 줄 아는 것이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수 있는 바른 공부길이다.

**모든 중생이 생사를 윤회하는 것은, 의식이 인연을 좇아 조작하고 마음이 육도를 떠돌며 가만있지 못하기 때문이니, 마침내 갖가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마거사가 이르기를, '교화하기 힘든 사람은 그 마음이 원숭이 같아서, 몇 가지 법으로 그 마음을 제어한 다음에 비로소 조복시킨다.'고 하였다.**

마음이 담연하게 자기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서 떠돌기 때문에, 육도윤회하며 생사를 거듭하고 있다. 경계를 반연하여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로 인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계속 일어나서 훌쩍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 돌아보면 아득히 일장춘몽인데, 백발이 성성하니 북망산이 가까운 것이다. 오랫동안 이렇게 떠돌던 사람의 마음은 원숭이 같아서 조금도 제 자리에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대상을 기웃거리며 집착하게 된다. 그럴 땐 방편을 써서 먼저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원숭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비로소 마음을 조복시키고, 본래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본지풍광에서 안심입명 하게끔 이끄는 것이다.

마음공부에 입문하여 조금이라도 체험을 맛본 사람도 업력에 의해 때때로 뒤집어지기는 매한가지다. 여기 배휴 재상도 황벽스님을 만나자마자 무언가 맛을 보았지만, 아직도 업력에 의해 원숭이처럼 의심 많은 마음이 묻고 또 물으면서 다스려지기까지 선지식 곁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모든 중생들의 본래 마음이 청정하여 완전한 것은 일체가 평등하여 차별이 있을 수 없지만, 집을 떠나 밖으로 떠돈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은 업력 따라 차등이 나기 때문에 스스로 의심이 끊어질 때까지는 묵묵히 정진에 정진을 거듭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마음이 나면 갖가지 법이 생겨나고, 마음이 없어지면 갖가지 법이 사라진다.'고 한 것이다.**

한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에 따라 온갖 경계가 펼쳐지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사라지면, 그에 따라 온갖 경계도 없어진다. 그러나 무념무상을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외도가 된다. 무념무상을 만들려는 그 마음이 본래 무념무상을 가리고 마음을 밖으로 찾아 나서게 하여 평지풍파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하여튼 말귀를 잘 알아먹어야 한다. 보리자성이 본래청정 하다고 하니, 그 말을 딱 믿고 모든 허튼 노력을 내려놓으면 저절로 근본이 드러날 텐데, 다만 원숭이 마음이 가만있지를 못하고 천지사방을 쏘다니면서 온갖 좋다는 법을 다 배워 속에 더부룩이 쑤셔넣고 소화도 못시키고 알음알이만 가중시키니 고향 돌아갈 날은 더욱 아득하기만 하다.

김호성 교수의
## 에세이 경구 ㊼



# 사람 · 하늘 · 용 · 신 · 왕이 되어주시네

〈무량의경(無量義經)〉

신은 누구인가?

얼마 전, 남쪽의 한 절에 다녀왔다. 자원봉사로 해설을 해주시는 불자님이 계셔서, 어느 때보다 도량을 진지하게 둘러볼 수 있었다. 그 큰 절에서, 특이한 것(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람각(伽藍閣)'의 존재였다.

친절한 문화유산해설사는 "주지스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러나 정작 '가람각'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셨다. 무슨 부처님이라 하였으나, 역시 '가람신'이 아닌가 싶었다.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었고, 얼굴은 셋이었다. 중국의 절에서도 '가람전'은 흔한데, 그 분은 바로 관성(關聖, 〈삼국지〉의 주인공 관운장. 도교에서 신으로 모신다.)이다. 도교의 신을 데려다가 불교의 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삼은 것이다.

"주지스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다. 주지스님의 도량수호 의지를 읽을 수 있어서이기도 했고, 도량의 수호신인 신중 한분 한분의 존재에 대한 경건한 신심이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도대체 가람신은 누구이길래, 주지스님은 그렇게 간절히 예배한다는 말씀일까? 사실 우리는 그러한 각론적 고찰에 약하다. 그 절의 '가람각'에 모셔진 가람신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는 이야기다. 그저 '신중'의 한 분이 아닐까 짐작할 뿐이다.

그래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신중의 존재를 말하는 〈화엄경〉의 제1품을 찾아보았다. 60권본 〈화엄경〉 제1품의 제목이 세간정안품(世間淨眼品)인데, 거기에는 수많은 금강역사를 비롯하여, 도량신 등 신중들을 나열하고 있다. 〈화엄경약찬게〉에도 등장하는 "주ㅇ신"이라는 존재들이 바로 다 그와같은 신중들이다.

"ㅇ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뜻이니, 산, 나무, 물 … 등등 자연현상을 비롯한 모든 존재들에는 사실상 다 신이 존재하고 있다(혹은 그 존재들이 다 신이다)는 입장이다. 다신교(多神敎)이다. 이 다신교의 세계를 〈화엄경〉에서는 받아들여서, 그 만다라의 체계 속으로 집어넣었다 볼 수 있으리라.

신이 된 까닭

도대체 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화엄경〉(60권본)을 열어보았다. 과거에 한량없는 시간 이전에 부처님을 모시고 큰 서원을 세웠다. 깊이 수행한 덕분에 수많은 공덕이 생겼다. 이제 불가사의한 해탈경계를 내보일 수 있게 되자, "모든 중생들을 따라다니면서 마땅히 제도할 만한 자들에게는 능히 그 몸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정답이 나왔다. 불교에서 말하는 신중, 즉 불교의 수호신들은 그 위상이 '보신(報身)'이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보신은 수행의 과보로 얻어진 몸이다. 아미타불 같은 분도 보신이다. 48가지 서원을 세우신 뒤 5겁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유(思惟, 명상)한 결과 아미타불이 되셨기 때문이다.

신은 서원을 세우고 수행해서 공덕을 성취한 뒤에는, 즉 보신이 된 뒤에는 다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능히 그 몸을 나타낸다"고 했으니, 이는 화신(化身)을 나



그림 · 박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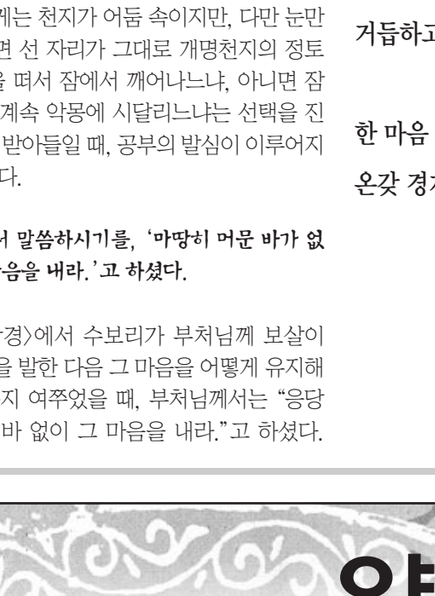
투신다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가람각'의 가람신도 그러한 화신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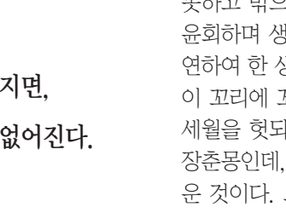
그런데 바로 똑같은 이야기가 〈무량의경〉 덕행품(德行品)에서도 반복된다. "세존께서는 과거의 한량없는 세월동안 / 갖가지 덕행을 정성껏 부지런히 닦았기에 / 우리를 위하여 사람, 하늘, 용, 신, 왕이 되어주시고 / 두루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 버리기 어려운 재물과 보배, 처자와 나라까지 / 능히 다 버리시며 / 안으로든 밖으로든 아끼는 것이 없으시니 / 머리, 눈, 골수 등도 모두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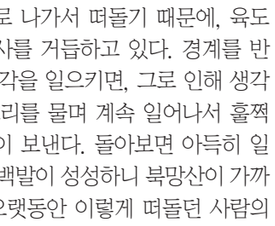
세존 부처님께서 직접 천(天=神), 용, 신들로 나투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어찌 신중이 우리의 숭배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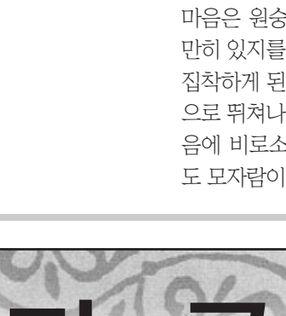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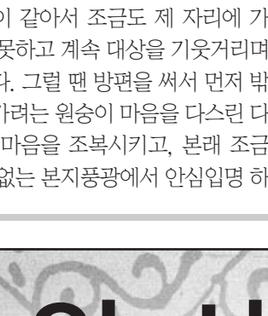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그대의 자리는 따뜻한지요?

추사는 강상에 머물며 불경 연구에 매진하였다. 이는 1850년 2월 보름, 초의에게 보낸 편지와 〈완당전집〉 〈여초의〉 31신에 "〈법원주림〉백 권을 얻어 좋은 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특히 〈나가묵연첩〉에 수록된 편지의 말미엔 "승연노인 지월십일(勝蓮老人 至月十日)"라는 간지가 있는데, 지월(至月)은 11월을 이른다. 따라서 이 편지는 대략 1850년 11월 10일에 쓴 것이 분명하고, 승연노인(勝蓮老人)이란 호(號) 역시 강상 시절에 사용했던 것이라 짐작된다. 〈완당전집〉 〈여초의〉 및 〈영해타운첩〉, 〈나가묵연첩〉에 수록된 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체의 소식이 미치지 않으니 정계(淨界:번뇌가 없는 깨끗한 세계)와 범로(凡路:번뇌가 가득한 속된 세계)는 이처럼 먼 것인가요. (이렇게 그대와 멀어진 것)또한 사람이 스스로 막은 것이지 산하가 가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므로 차 끓이는 일에 마음을 써서, 그대는 평소 깊고 깊은 열진 속에서도 생각에 매임이 없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근래 추위에 수행하는 그대의 자리는 따뜻하고 편안하지요. 염려가 큽니다. 이 몸은 못나고 어리석기가 옛날과 같은데, 강상에 돌아와 머물며 산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이것은)번뇌 망상에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법원주림〉 백 권을 얻어 좋은 날을 보내고 있는데, (스님이)곁에서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나머지는 인편 때문에 대략 알리며 이만… 승연노인, 11월 10일

(一切聲聞不及 淨界凡路如是懸絕歟 抑人之自阻 山河非能阻 以此懸懸於竹 石涼之間 知師無



〈나가묵연첩〉 추사 친필본

**"정계와 범로는 이처럼 먼 것인가"**
**신묘한 경계 열었던 초의차**
**추사 예술혼 · 불교적 사유 심화시켜**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쁨 '충만'**

庸結想於十尺熱塵中 固宜矣 近寒團蒲暖安 念切此頹癡如昔 來留江上 未及歸山 到底惱業 但得法苑珠林一百糾好作消遣 恨不使傍證耳 餘[illegible]更 申不宣 勝蓮老人 至月十日)

당시 초의의 소식이 한동안 끊겼던지, 그를 향한 추사의 일갈은 "정계(淨界:번뇌가 없는 깨끗한 세계)와 범로(凡路:번뇌가 가득한 속된 세계)는 이처럼 먼 것인가"였다.

서로가 멀어지고, 소식이 막힌 것은 산하(山河) 탓이 아니라 초의 자신이 막은 것이란다.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끈끈한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기(知己)의 범속을 초월한 경지를 인정했던 추사는 "그대는 평소 깊고 깊은 열진 속에서도 생각에 매임이 없는 것이 원래 당연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벗, 초의가 생각에 매임이 없는 경지를 이룬 것은 바로 전다삼매(煎茶三昧)였다는 그의 확신은 "차 끓이는 일에 마음을 써서"라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아울러 맑고 시원한 차의 신묘한 경계를 열었던 초의차는 추사의 완숙한 예술혼과 불교적 사유를 더욱 심화시킨 매개물이기에 따뜻하고 진솔한 성의가 담긴 초의의 편지나 차를 기다리는 추사의 마음은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한편 추사가 편지를 보냈던 11월은 한겨울이다. 이런 엄동설한 중에 수행하는 초의의 안부가 궁금했던지 "추위에 수행하는 그대의 자리는 따뜻하고 편안하지요" "염려가 크다"고 하였다. 번뇌의 열업에 빠진 자신은 괄목(刮目)할만한 성취도 없이 "못나고 어리석기가 옛날과 같다"고 한 것은 분명 그의 겸손함이 드러나지만 뜻이 통하는 벗에게 부려보는 투정은 아닐까.

강상에 머물던 추사는 외형적으론 답답한 나날을 보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속내는 불경 연구하고, 차를 마시며, 가장 학인(學人)다운 여유를 즐겼던 시기였으니 "〈법원주림〉 백 권을 얻어 좋은 날을 보내고 있다"는 그의 말은 벗을 안심시키기 위한 희언(戱言)만은 아닌 듯하다.

그의 아쉬움은 오직 초의와 함께 불경을 참증(參證)할 수 없는 것뿐이라니 그의 일상은 분명 나날이 새로워지는 기쁨으로 충만(充滿)되었던 시기이었으리라.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SNS는 부처님 말씀 전하는 소통의 창구"

**희망플래너 이준길 씨 (정토회 온라인 위원회 미디어 담당)**

2003년 1월, 미국의 폭격을 받아 폐허가 된 아프가니스탄에 JTS국제국호 활동을 하러 갔던 스물 한 살의 청년은 아비규환의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곳의 실상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카메라를 들었던 그를 보고 그곳의 아이들은 도망을 갔다. 오랜 시간 전쟁을 겪은 아이들이 카메라를 총으로 착각한 것이다. 벽에 그려진 아이들의 그림은 죄다 총과 탱크 같은 것들이었다. 부모도 잃고 덮을 담요 한 장 없는 아이들에게 전쟁은 우연히 들이닥친 재앙이 아닌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청년은 108배를 하며 펑펑 울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부처님께 물었다. 당시 재학중이던 서울교육대를 나와 평범한 교사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헐벗은 아이들을 위한 봉사자가 될 것인가? 답은 너무나 뚜렷했다.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한 보현행을 펼치자"

정토회 활동가 이준길 씨(온라인위원회 미디어 담당)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정토회 상근 활동가를 선택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주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정토회에서 대중생활을 하는 활동가로 북한동포돕기, 청춘콘서트, 즉문즉설 온라인 홍보 등에 힘을 쏟아왔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그가 소속되어 있는 정토회와 그 산하단체들의 사업이지만 세상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SNS 포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 약자의 아픔 알리는 희망 메신저가 되다

온라인상에서 본명보다 희망플래너라는 닉네임으로 더 유명한 그는 희망편지 페이스북 친구 4만 8천명, 트위터 팔로우 3만 8천명, 메일링서비스 3만 3천명 등에게 매일 법륜 스님의 희망편지와 즉문즉설 등을 전하고 있다. 젊은층을 위주로 하는 SNS 포교의 성과를 톡톡히 일구어 낸 것이다.

이 씨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일까? 이는 2008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곤기 식량난으로 북한에 아사자가 속출했지만 세상은 어느 누구도 이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만 사회문제의 초점이 맞춰졌기에 북한의 식량난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당시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70일 단식에 들어갔고 정토회 활동가들은 북한돕기 서명운동을 하러 거리로 나섰지만 한계가 있었다.

이 문제를 널리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서원을 세운 이 씨는 젊은이들에게 당시 가장 어필하고 있던 블러그를 선택했다. 하지만 해외 NGO활동과 북한동포 돕기 운동을 하며 현장 위주의 봉사활동을 펼치던 그에게 온라인상의 블러그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다. 나름의 방식으로 글을 작성해 북한 소식을 알렸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정했다. 하루에 한 명도 방문자가 없을 때도 있었고 많은 날은 고작 10여 명 정도였다.

"왜 방문자들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계속 파워 블러그를 연구했어요. 소위 잘 나가는 블로그들을 찾아 읽어보면 글의 서론 본론 결론이 뚜렷했고 사진과 동영상이 가미되어 있어 대중들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파워 블러그 수십개를 탐독했다. 이렇게 한 달 가량이 지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00선생님의 삭발 사연' 이란 단 한 건의 글로 20만 명이 희망플래너 이준길 씨의 블로그를 방문한 것이다. "북한의 굶주림을 알리기 위해 삭발을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글을 올렸는데 자고 일어나보니 20만 명이 다녀갔어요. 다음 사이트 포털 메인에까지 글이 실렸죠. 다른 전문가 블로그와 대등한 평가를 받았어요. 큰 충격이었죠. 블로그가 하나의 언론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북한 돕기 운동을 두고 어떻게 글을 쓸까를 매일 연구했고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소재들을 발굴하기 시작했다. 인도 브라만 출신의 엘리트 쁘리앙카 씨가 활동가가 되어 북한동포를 돕는 사연, 영화 크로싱을 본 탈북 청년의 소감 등을 실으면서 30만명의 방문자가 그의 블러그를 방문했다. 주 1회씩 올리던 글을 매일 올리면서 그의 블로그는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고 다음 블로거 특종상을 그리고 2011년도에는 대상까지 받게 된다. 특히 그의 블로그는 북한의 식량난을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블로그로 주목을 받았고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을 올리면서 네티즌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모았다.

"블로그가 유명해지면서 갑자기 스님 책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즉문즉설〉 책이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들었어요. 정토출판에서는 계획에 없던 인쇄를 하는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죠. 또 젊은이들 사이에 스님의 즉문즉설이 폭넓게 알려지는 계기가 됐어요. 그때를 즈음해 정토회에서도 블로그 전담 소임만 맡게 되었죠. 그만큼 홍보 효과가 컸어요."

### 군인들 고충 어루만지는 군종병으로

이렇게 희망플래너의 블로그는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을 밝혔지만 이 활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시점이 오게된다.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입대하기 전 밤 11시까지 정토회 회원들에게 블로그 교육을 하고 다음날 새벽 블로그에 군대가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2009년 2월 입대를 했다. 그렇게 대한민국 국군으로 열심히 군복무를 하던 중 그에게 또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상병으로 진급할 무렵 그가 속해 있던 맹호부대 연호사 군종병으로 배치를 받게 된 것이다.

"다리를 다쳐서 의무대에 갔다가 군법사 법기 스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정토회에서 활동했던 얘기를 했더니 스님께서 대대에 군종병이 병으로 전역을 해 자리가 비었다며 군종병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셨죠."

**JTS 아프가니스탄 구호활동 다녀와**
**교사의 길 접고 정토회 활동가 입문**
**북한식량난 알리고자 블로그 제작해**
**다음 파워블로거 특종상 · 대상 수상**

**군종병 시절 법당예절 3D동영상 제작**
**법문포켓북 〈힘내라 청춘〉 후원 제작**
**2만권 무료배포 · 군자살 예방 캠페인도**

이렇게 군종병 소임을 맡게 된 그는 법회 진행, 마음나누기, 불교상담 등을 통해 군인들이 군생활에서 갖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의 정성을 군인들도 느끼게 된 것일까? 처음 1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던 법회에 150명이 참석을 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법회 참석 인원이 늘어나자 봉사자가 필요했어요. 중대별로 1명 씩을 선발해 15명을 모았어요. 1박 2일 수련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면서 불교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 주었죠. 그리고 법회 운영시스템을 갖춰서 봉사자들에게 각자의 소임을 주어 법회를 운영했어요. 사회, 음향, 공양 등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주니 모두가 열의를 가지고 일을 했어요."

이후 군법당 예절 형식을 매뉴얼화해 전육군에 배포했다. 호랑이가 군복을 입고 나와 설명하는 법당예절 3D 동영상은 병사들이 손쉽게 사찰 문화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초청강연도 마련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배우 김여진 씨, 노희경 작가 등을 초청해 위로 강연을 펼쳤다. 그리고 삼고초려 끝에 1년 스케줄이 꽉 차 있는 법륜 스님을 초청하기에 이른다. "맛보기 영상을 통해 법회를 알리고 질문지를 미리 나누어 주면서 스님의 법회를 홍보했어요. 당시 사전 질문지만 100개를 받았어요. 분류해보니 대표질문을 10개로 정리할 수 있었어요. 주로 여자친구와의 이별, 사회와의 단절, 선임의 괴롭힘, 말 안 듣는 후임 등으로 내용을 분류할 수 있었죠."

2010년 7월 법륜 스님을 군법당으로 초청해 법회를 여니 700여 명의 장병들이 모였고 반응 또한 뜨거웠다. "당시 군인들의 자살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 되던 때였어요. 이 법문을 녹취해두었다가 책으로 배포하면 군생활을 힘들어하는 군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북한 식량난과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을 실은 블로그로 2011년 다음 블로거 대상 수상 장면.



2003년 1월 아프가니스탄 봉사활동을 계기로 봉사의 삶 결심



**이준길 씨**는 … 1981년 경북 안동에서 출생해 2007년 서울교대를 졸업했다. 2003년 2월 정토회 상근 자원활동가로 입문해 북한 식량난을 알리기 위해 희망플래너라는 닉네임으로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북한 소식을 알리는 유일한 블로그로 인정받아 2008년 다음블로거 특종상을 받으면서 파워블로그로 급부상했으며 2011년에는 다음블로거 대상을 수상했다. 2009년 군복무 시절 군종병으로 법회 활성화를 이끌었으며 힘들어하는 군인들을 위해 전역후 2011년 〈힘내라 청춘〉을 법문 포켓북을 제작해 군자살예방캠페인을 벌였다. 2012년 평화재단 청춘콘서트 미디어팀장을 거쳐 현재 2013년 정토회 온라인위원회 미디어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역을 해 전국 불자들의 후원을 받아 2011년 6월 군인들을 위한 법문집 〈힘내라 청춘〉이 나오게 됐어요"

이 책은 군복 앞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켓북 사이즈로 제작, 군인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정토회는 〈힘내라 청춘〉 책 보내기 운동을 펼치면서 2만여권이 군부대로 보내졌다.

###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 매진

이렇게 전역을 한 그는 다시 온라인 활동에 매진하게 된다. 그가 군대에 간 세월동안 온라인 환경은 PC에서 모바일로 바뀌었고 이에 대한 적응이 필요했다. "그 몇 년 사이에 세상은 또 변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온라인 세상은 블러그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바뀌었고 이에 맞는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2012년 법륜스님 희망세상 만들기 300회 강연 현장을 따라 다니면서 스님 말씀을 요약해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리기 시작했죠."

이후 2012년 말 모바일의 중요성을 깨닫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들어간다. 봉사자들로 운영팀을 꾸려 '희망편지' 앱을 개발, 정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시작했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마음나누기 등을 볼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은 초창기 정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배포되었지만 확대 재생산 되면서 대중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현재까지 35만 명이 희망편지를 받아보고 있다고. "희망편지는 매일 1회씩 업데이트되는데 하루에 500~600명에게 확산돼요. 또한 다음 블로그에서도 이 내용을 연재하면서 메인화면에 주기적으로 노출되는 코너가 되었어요. 현재 희망플래너 다음 연재는 1만3천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륜 스님의 법문 영상과 오디오도 큰 인기를 끌었다. 유투브 하루 조회수는 7만명에 달하고, 팟캐스트 오디오는 5만명이 다운로드 한다. 이런 성과는 즉문즉설이라는 좋은 콘텐츠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이 씨는 강조한다. "초창기 블로그를 운영할 때는 북한식량난을 알리기 위한 정보 전달자 역할이었죠. 그런데 스님의 강연 현장을 따라 다니며 현장 소식과 법문을 올리다 보니 즉문즉설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문즉설은 치유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고 들으면 힐링이 되니 대중들이 좋아하죠. 저는 매체의 특성에 맞게 이를 잘 편집하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결국 좋은 콘텐츠를 잘 가공해 전달해주면 확산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가 즉문즉설 현장 내용으로 글을 쓸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청중들의 반응이다. "스님 말씀에 울고 웃고 박수 치고 하는 대목의 포인트를 잘 포착해 글을 쓰면 인기콘텐츠가 될 확률이 높죠. SNS 포교는 좋은 콘텐츠와 가공자 전달자 이렇게 3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안정된 직장도 달콤한 청춘의 향연도 접어두고 나누는 삶으로 20대를 보내고 30대를 맞이한 그는 자신의 청춘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람되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행복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불자들이 언제 어디에서나 불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불법을 알려나가겠다는 이준길 씨. 올 하반기부터 전국 기자단 운영을 하면서 자신과 같은 희망플래너를 양산해 나가겠다는 그는 SNS 포교를 확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토회 역시 미디어홍보국 등을 개설 향후 인터넷 방송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이 씨 또한 그간의 경험을 여기에 쏟아부을 예정이다.

매일 글 하나를 올릴 때마다 지극한 3배를 올린다는 그는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좀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기도한다. "아마 월급을 받고 일을 했다면 이만큼의 성과를 내지는 못했을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딱 그만큼만 일 했겠죠.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발원으로 자발성에 기초하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할 수 있었고 꾸준하게 노하우를 쌓아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올린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

글=정혜숙 기자



군법당 법륜 스님 즉문즉설 강연 후 군장병들과 기념촬영




군인들을 위한 포켓 법문집 〈힘내라 청춘〉

전법일기

# 어떻게 돕는 것이 잘 돕는 것일까

## 나의 인도성지순례기(1)

인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7명의 불자들과 함께 홍콩을 거쳐 거의 열두시간의 시간을 지나 도착한 곳은 델리. 델리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시 비행기로 바라나시로 향했다. 우리의 처음 순례지는 초전법륜지 사르나트다. 먼저 부처님이 정각을 이루신 후 옛날에 같이 수행하던 다섯 동료들을 찾아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이 부처님을 맞이했던 곳을 기리는 영불탑을 참배했다.

주변은 공원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차분하고 아름답다. 흰옷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온다. 스리랑카인들이다. 2500년 전 평화로운 들판에서 다섯 비구를 만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니 환희심이 벅차오른다.

다시 버스를 타고 초전법륜을 굴리신 녹야원으로 갔다. 우리는 합장을 하고 줄지어 들어갔다. 부처님이 처음 법륜을 굴리신 자리에 다메크 스투파가 웅장하게 서있다. 세계의 여러 불자들이 참배를 하고 나름대로의 기도를 한다. 우리도 자리를 폈다. 천수경을 독송하고 석가모니불을 정근하며 당시의 광경을 만난다.

우리는 전생에 어떤 인연이였기에 지금 이 순간 함께할까? 이번 인도성지순례에 인연된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인연이다. 딸의 간청에 의해 온 엄마, 엄마의 강요에 의해 함께 온 딸, 언니를 따라온 동생, 아빠의 권유에 온 아들, 친구의 권유에 이끌려 온 친구, 다들 여러 가지 사연들로 함께한다.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고 한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만이 있을뿐.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무언가 얻고자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번 성지순례에서 모두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림 · 박구원

탑 앞에서 잠시 선정에 들어본다.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해지고 나뭇가지에 새소리들이 커진다. 우리는 승원을 돌아 나오기로 했다. 담장 넘어 사슴동산에 사슴들이 순진한 눈망울로 이방인들을 바라본다. 돌아나오는 길에는 걸인 아이들이 줄줄 따라오며 돈를 구걸한다. 옷도 제대로 걸쳐 입지 않은 시커먼 맨발의 아이들, 그리고 처량히 아이를 안고 구걸하는 여인. 녹야원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느끼고, 만나는 사람은 걸인 아이들이다.

마음이 착찹하다. 만일 석가모니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바치라고 하실까? 아니면 가이드처럼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하실까?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어떻게 돕는 것이 잘 돕는 것일까? 이것은 나에게 커다란 화두다.

선원을 개원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의 일이다. 그리 크지 않고 작은 포교당인데도 얻으러 오는 걸인들이 종종 있다. 한번은 좀 젊어 보이는 남자가 왔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 쌀을 얻으러 왔다는 것이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간청한다. 마침 겨울이 지나는 길목이라 혹시 쌀이 상할 수 있다는 생각에 10kg을 주었다.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을 하거든 능력 따라 베풀어라. 한 몸이라 생각하는 큰 자비가 참다운 보시일세. (貧人來乞 隨分施與 同體大悲 是眞布施)"

내가 찾아다니며 도와주어야 하는데 직접 오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 사람은 아주 기뻐하며 떠났다. 그리고 2주일이 지나서 그 사람이 또 왔다. 당시에는 쌀이 많지 않아서 작은 봉지 하나를 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얼굴이 이상했다.

"스님,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것밖에 안 줍니까"하며 으름장을 놓는다. 그의 눈빛은 쌀을 받은 감사함보다는 조금 주었다는 원망에 가득차 있다. 순간, 황당했다. 화가 났다.

"아니, 제가 왜 당신을 먹여 살려야 하나요? 쌀이 많지 않아서 조금 드리는 것인데, 그럼 그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했더니 아주 불만이 많은 얼굴로 쌀봉지를 들고 떠난다. 이후로 나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10kg의 쌀은 그의 분에 넘치는 것이었을까? 내가 그를 망친 것은 아닐까? 순례동안 이 질문은 나의 뇌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죄가 되지만,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인생을 건너가는 지혜를 주는 마가 스님의 '마음 수업'
'자비로워지는 것'이 왜 궁극의 치유가 되는지를 전하는 성찰의 언어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 추천!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
언론에서 집중 보도한
화제의 책!

알고 보면 괜찮은

나답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




마가 글
256쪽
13,000원



마가 스님 아버지가 남긴 상처를 딛고 일어선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웃음과 따뜻한 말을 되찾아주는 힐링 멘토가 되었다. "마주한 이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궁극의 치유"라고 말하는 스님은 전국의 기업, 학교, 사찰, 관공서를 돌며 자비 명상 보급에 힘쓰고 있다. 중앙대학교에서는 1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되는 최고 인기 강의 〈내 마음 바로 보기〉 수업을 이끌었으며, 최일도 목사, 김영택 신부, 권도갑 교무와 함께 희망이 되는 종교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사단법인 자비명상 대표, 한국마음치유협회 회장, 동국대학교 정각원 교법사를 맡고 있다.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 “근본불교로 서구문화 족쇄 풀겠다”

## 네팔 ‘캄마타나’ 45분짜리 동영상, 미국 언론 이목 붙잡아
## 출락 린포체 “서구 정신에 내재된 고(苦), 없애고 행복 추구”


출락 린포체. 급진적인 불교운동을 전개하며 서구의 이목을 잡아온 캄마타나(Kammathana)의 지도자

45분짜리 동영상이 미국 언론의 이목을 붙잡았다.

〈어니언(The Onion)〉 지는 지난 20일 “불교근본주의 그룹인 캄마타나(Kamma-thana)를 이끄는 출락(Tsuglag) 린포체의 메시지를 담은 45분짜리 동영상이 티베트 웹사이트에 포스팅 되면서 미국 언론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이 동영상에서 출락 린포체는 서구 정신문화의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캄마타나가 그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캄마타나는 1970년대 후반 네팔에서 설립된 불교단체로, 사성제 등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으로 돌아가, 이를 포교의 근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적인 대(對)사회 불교운동’을 전개해 왔다.

서구 대도시에서 ‘계릴라전’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론으로 활동을 전개한 캄마타나의 이력 중에는 미국과 영국의 심장부인 뉴욕 지하철과 트라팔카 광장에서 대규모 집단 법회나 큰 소리를 외치듯 진행하는 통성 법회를 봉행해 서구인을 놀라게 한 일도 있다.

그러나 그 행보에 비해 ‘히말라야 모처에 본부를 둔 다국적 조직’으로만 추정될 뿐, 캄마타나의 면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동영상은 ‘문화적 정신적 성전을 연상케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 외에도 캄마타나 리더의 모습과 그 육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언론의 관심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번 동영상에서 “캄마타나는 서구 문화, 나아가 정신에 내재된 고(苦)의 모든 근본을 없애고 변화시키겠다는 각오로 노력하겠다”고 전제한 출락 린포체는 “이는 서구 사회에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인 연민, 자비의 씨앗을 심고, 싹을 키울 때까지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순수한 마음을 억압하는 서구의 문화적 정식적 족쇄를 풀고, 개개인 모두가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출락 린포체는 “불교 근본 수행인 명상으로 서구의 욕망과 불안을 다잡고, 이를 통해 고통과 분별이 없는 서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만약 서구인들이 철저히 성찰하고, 사성제 · 팔정도 등 진정한 영적 해방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자기 의심’이라는 혹독한 댓가를 치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구 사회는 이미 명상에 집중하고 있고, 그 가치를 배우고 익히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전제한 〈어니언〉 지는 “서구 사회에 대한 경고라기보다는 캄마타나 지도부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풀이했다.

한편 미국 국토안보부 랜드 비어스(Rand Beers, Homeland Security) 대변인은 “‘뉴욕 지하철 게릴라 법회’에서 경험했듯, 캄마타나의 활동은 대도시의 질서에 자칫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캄마타나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 스님 vs 벤츠, 최후 승자는?

## 새 모델 A45 광고서 스님과 대결 벌이는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의 새 광고 컨셉은 ‘모두에게 매혹적인(fascination for all)’이다. 벤츠 때문에 좌선을 방해받은 스님이 합장하고 있다.

벤츠가 스님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까.

발칙하면서도 재미난 질문을 던진 주인공은 바로 독일의 자동차 회사, 메르세데스 벤츠다.

벤츠사는 지난 3월 공개한 고성능 소형 자동차 A45 AMG의 광고에 스님들을 등장시켰다. 세속의 때를 벗겨내며 흔들림 없이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벤츠가 ‘어필’할 수 있는지 실험하는 광고였다.

세계적으로 신앙에 가까울 정도로 절대적 신뢰를 얻고 있는 벤츠 앞에서 태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광고는 이런 자부심에서 나왔다. 지나가는 벤츠에 힐끗 눈길을 빼앗기고 마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이란 걸 생각하면 무리수는 아니다.

A5의 매력에 스님들 또한 흔들림이 없었을까.

영상 속에 등장하는 다섯명의 스님들은 뇌파측정장치를 달고 좌선중이다. 뇌파가 잠잠해지자 벤츠가 굉음을 내며 원을 그리고 앉아있는 스님들 주변을 속도감있게 맴돈다. 묘기에 가까운 벤츠의 몸놀림이 현란해지고 바닥에 고인 물은 스님들 얼굴 위로 튀기 시작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뇌파가 큰 폭으로 움직인다. 참선이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다. 이를 본 큰 스님이 좌선중인 스님들에게 다가가 죽비로 경책한다. 어떤 장애에도 굴하지 말라는 호된 채찍이다. 결국 벤츠의 엔진은 멈췄다.

마음을 동요시키느냐 아니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느냐.

벤츠가 선승들에게 던진 도발적인 대결은 무승부로 끝났다. 벤츠는 스님들의 마음을 온전히 훔치지 못했고 스님들은 장애로 수행을 도와준데 대해 벤츠를 향해 합장했다.

광고를 기획한 벤츠측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그 속에서 각자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광고는 다년간 참선을 해온 스님들이 실제 실험에 참여하며 만들어졌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캄보디아 스님 40명…천연우림 지키려 걷기 시위

## 신규 댐건설로 파괴되는 자연 보호하기 위해


캄보디아의 스님들과 지역 주민들이 아렝 밸리를 지키기 위해 법복을 만드는 천을 나무에 두르며 자연을 위해 기도했다. (출처: 글로벌 메일, 루크 더글비)

40명의 캄보디아 스님들이 댐 개발 계획에 반대하며 밀림 25km를 걷는 평화 행군을 시작했다.

아렝 강에 수력발전댐을 지으려는 캄보디아 정부와 중국 구오디안 전력회사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6개월 전부터 수도 프놈펜에서 행군을 시작한 스님 일행은 최근 아렝 강이 있는 카르다몸 숲 입구에서 프라라이 마을까지 걷는 중이다.

이번 일을 기획한 부트 분텐 스님은 “우리의 생명은 자연에서 비롯됐다. 자연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일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캄보디아에서 스님들은 정치적 일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시아에 남아있는 우림 중 규모가 큰 카르다몸 숲을 지키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댐이 건설되면 호랑이, 코끼리 등 31종의 야생동물 서식지는 물론 멸종위기인 샴악어 또한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 댐이 위치한 천연우림인 카르다몸 숲 또한 전체 면적(4013㎢)의 20분의 1인 200㎢를 잃어버리게 된다. 1500명의 수몰민 또한 생긴다.

이 지역에 건설되는 댐은 총 네곳. 스님 일행은 그 중 환경훼손이 가장 크게 염려되는 아렝 밸리를 행군길로 삼았다. 오후불식을 철저히 지키며 약간의 물로 허기를 채우는 강행군 탓에 일부 노스님들은 탈진해서 쓰러지기도 했다. 그때마다 지역민들이 몰고 오는 오토바이는 구급차 역할을 자처했다.

댐개발로 벌목이 성행하는 곳을 지날 때마다 스님들은 베어진 나무에 주황색 천을 두른다. 승복을 만드는 천이다.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수령이 오래된 나무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천을 두르며 축원을 한다. 지역민들이 자연을 신성하게 보길 바라는 바람 또한 담겼다. 캄보디아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소리없는 움직임에, 스님 일행이 마을을 지나가면 지역주민들이 평화의 행군에 동참하기도 한다.

일행 중 한명인 느김 사오삼 칸 스님은 앞으로의 일에 대해 낙관적이다. “캄보디아에서 스님은 아직까지 힘이 있다. 잘못된 일이라면 정부에 계속 대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환경단체 ‘인터내셔널리버(International River)’의 아메 트란뎀은 “아렝강의 환경적, 사회적 비용은 댐 건설 비용인 3천억원을 능가한다”며 “구오디안사는 이번 사업으로 많은 수혜를 입는다. 캄보디아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전력을 되사주기로 했고, 재정위기가 닥칠 때는 금융구제 또한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댐건설로 인한 환경복구 비용은 온전히 캄보디아의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배현진기자**

# 中 법원, 티베트 스님 4년 6개월 실형 선고

## ‘티베트 분리 독립 언급했다’는 이유로 2년간 정치적 권리 박탈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탐드린 스님

〈티벳 포스트〉 지는 21일 “쓰촨성 지방정부는 탐드린(Tamdrin) 스님이 장례의식 도중 티베트의 분리 독립을 시사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을 담당한 ‘중급 인민 법원’은 지난달 29일 선고 공판을 통해 “티베트 분리 독립은 중앙 정부의 정책에 어긋나므로 스님에게 4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2년 동안 제반 정치적 권리도 박탈한다”고 밝혔다.

쓰촨성 지방 정부는 지난 4월 24일 ‘티베트 분리 독립 동조’ 혐의로 잠탕 창파 사원에서 탐드린 스님을 체포한데 이어 사원 곳곳에 공안을 배치, 사원 안팎의 반응을 감시해 왔다.

잠탕 창파 사원은 쓰촨성을 대표하는 티베트 사원 중 하나로, 현재 약 2,000여명의 스님들이 대중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티벳 포스트〉 지는 “이번 사건은 티베트 불교계의 역량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안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풀이하고, “이는 잠탕 창파 사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원 증축 불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탐드린 스님 재판’에 앞서 쓰촨성 지방 정부는 “잠탕 창파 사원의 건축 계획에 수정이 필요하고, 새로 지어진 부속 건물도 철거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기반방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氣giban
나만의 참선세계 氣giban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련에 氣giban
성불할때까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반자 氣giban
氣giban 참선 선정과 만남,진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법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행스님의 법어!

도자기
법어가 담긴 에코컵




| 종 류 | 구 성 | 판매가 |
|---|---|---|
| A set | 마 음 + 대장부 | 9,000 |
| B set | 마 음 + 마 음 | 9,000 |
| C set | 대장부 + 대장부 | 9,000 |
|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 | |

1. 마 음 법어 :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법어 :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聖鐘社 SUNG JONG SA

#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112호 · 대한민국 명장)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원영대사의 금강경 강의



원영 굉오 지음, 박병규 역주/신국판/381쪽/값16,000원

세친보살의 27단에 의거한 새로운 강의!

근세 중국불교의 대선지식 원영 대사의 화엄과 천태, 선과 정토를 금강반야의 종지로 회통한 탁월한 해설!

방대한 불교 교학과 수행을 하나로 융합한 해설은 단순히 경전 해설에 머물지 않고 불교의 정수를 담은 '교과서'의 역할을 한다.

우리말 능엄경



불교 수행자라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교과서!

황정원 풀어씀/신국판 양장/520쪽/값 25,000원

능엄경은 불교의 핵심을 압축해서 담고 있는 팔만대장경의 축소판이다!
'진실로 부처님 일대시교의 정수요, 부처를 이루고 조사가 되는 비밀스런 핵심' (-우익지욱대사)
출가·재가를 막론하고 '능엄경을 한 번 본 뒤로는 세상의 잡동사니 책들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정받아온 능엄경에 대한 알기 쉬운 우리말 번역 및 해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4가 270번지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정목 스님 SBS '아이러브人' 강사로

### 30일 토요일 밤 12시 15분


재능기부 강사로 참여한 정목 스님

정목 스님이 SBS '아이러브人' 에 출연 '행복한 삶' 에 대해 강의한다. 스님은 이날 방송을 통해 행복이 항상 곁에 있음을 강조한다.

스님은 내 마음 한 자리, 말과 행동 하나 바꾸는 순간 훨씬 더 큰 행복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시청자들에게 일깨워준다. 행복한 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레짐작하기,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 생각하기, 남 탓하기, 비교하기, 완벽하지 않으면 못 견디기 등 5가지라고 스님은 강조한다. 또한 학인 시절 경험과 젊은 날의 깨달음 등에 관련한 이야기도 청중들의 가슴을 울린다.

아이러브人은 강연자와 MC, 출연 가수 전원이 노개런티로 출연하는 재능기부 프로그램이다. 방송은 11월 30일 토요일 밤 12시 15분. **정혜숙 기자**

# 창작 찬불동요제 대상에 '동자꽃'


'동자꽃' 으로 대상을 수상한 박성원 어린이.

제 4회 창작 찬불동요제 대상에 '동자꽃' 박성원 어린이(석천초등 4)가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BBS 불교방송이 주최한 제4회 창작 찬불 동요제는 11월 16일 서울 잠실 불광사 보광당에서 '맑은 노래, 부처님 마음'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예선을 거친 총 10팀이 참여했으며, 200여 명의 관중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대상 수상곡인 박성원양의 '동자꽃' (작사 최은정 · 작곡 김드리)은 산사의 동자꽃을 소재로 순수한 자연과 어린 불자의 맑은 마음을 아름다운 노랫말과 차분한 가락으로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석존의 숨결따라' 를 부른 '꿈을 그리는 요정' 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정혜숙 기자**

# 두 남녀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

### 불교극단나마스떼 '오늘 부는 바람'
### 11월 27일부터 연우 소극장서


'오늘 부는 바람' 포스터

진흙속에 피는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두 남녀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된다. 불교극단 나마스떼(대표 남우성)의 '오늘 부는 바람' 이 11월 27일~12월 1일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열린다.

극단 나마스떼는 창단 이후 줄곧 창작극만을 무대화하고 있다. '오늘 부는 바람' 은 〈숫타니파타경〉에 나오는 '진흙속에 핀 연꽃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구절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

이 작품은 젊은 시절의 혼돈을 두 남녀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그리고 있다. 이야기는 남편이 쓴 가사를 들고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작곡가를 찾아온 여인의 등장에서 시작한다. 여자는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들어내면서까지 좋은 노래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강요한다. 그리고 여자가 진실한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펼쳐진다. 여자는 젊은 시절 욕망을 좇아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다. 남편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으로 여자와의 결혼을 선택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의도된 두 사람의 결혼은 정상적인 가족을 만들지 못하고 파국을 맞는데…

주인공 남녀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면의 상처를 안고 몸부림친다. 이런 과정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치유의 힘 즉 마음을 밝히는 일과 다르지 않다. 나마스떼 남성우 대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내 마음의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극 속에 녹여내고자 했다"며 취지를 전했다. (02)3676-3676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달빛·바람소리 그릇에 담으니 연꽃으로 피었네

### 첫 개인전 여는 도예가 박명숙 씨


도예가 박명숙 씨는 전남화순 쌍봉사 옆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10년간 작업을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연꽃문양 등으로 빚어낸 2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매일 아침 108배를 하고 작품에 임해요. 처음 작업을 할 때는 머릿속으로 무언인가를 그리기도 하지만 무심으로 그릇을 빚다보면 그 생각마저 사라지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그릇이 완성돼 있어요."

도예가 박명숙 씨(58)가 서울 인사동 '더케이 갤러리' 에서 12월 4일~10일 첫개인전 '연꽃에 내린 달빛' 을 연다. 전남화순 쌍봉사 옆 작업실에서 도자기를 빚으며 10년간 작업을 해온 그녀는 이번 전시에서 연꽃문양 등으로 빚어낸 26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 중 눈에 유독 들어오는 작품이 '개구리가 있는 거친 항아리' 다. 겉면에 달빛이 내려앉은 듯 황토빛깔을 내고 있는 연잎 수반 위 개구리 한 마리가 앉아 있다. 그대로 자연을 담아낸 것이다. 이처럼 그녀 작품 대부분은 연꽃이 소재다. 바람에 살랑살랑 휘날리는 연잎이 선율처럼 다가오고, 겹겹의 연잎들이 살포시 피어나는가 하면, 화병의 구연부는 수줍은 듯 얌전하게 올라온 연꽃이 보는 이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작품의 소재를 주로 자연에서 찾습니다. 강렬한 색채의 유혹도 있습니다만 그윽한 달빛을 표현하고 싶어 가능한 한 그릇 표면에는 유약을 바르지 않아요. 어떤 때는 바람의 흔적을 느끼기 위해 다듬지 않고 거칠게 놓아둘 때도 있습니다. 또한 제가 사는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매화, 연꽃, 연꽃잎, 개구리, 구름 등을 작품 속에 담고 싶어 합니다."

**매일 108배와 선수행하며**
**쌍봉사 옆 작업실 풍경 담아**
**연잎 문양 도자 작품 제작**
**12월 4일~10일 케이갤러리**

그녀의 작업실에서 쌍봉사가 한눈에 보인다. 아침마다 18년째 108배 수행을 하는 것은 물론 작업을 할 때는 수불 스님의 법문CD를 듣는다고 하니 눈으로는 자연을 담고 귀로는 법문을 담아 무심으로 연꽃 그릇을 피워내는 것이다. 또한 이번 작업은 낙산사 화재로 나온 홍송으로 작업을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개구리가 있는 거친 항아리

"장작연료는 2005년 화재로 베어내야 했던 낙산사의 홍송을 사용했어요. 당시 낙산사 주지스님이셨던 정념 스님께서 보내주신 장작을 쪼개 8년 동안 그늘에 말려 보관했어요. 너무 귀한 연료라 아껴 쓰면서 작업을 했죠. 제 작품에 낙산사의 기운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소설가 정찬주 씨의 아내이기도 한 그녀는 국영기업체 직원이었다. 천주교 신자였지만 남편을 만나 불교로 개종하고 오랜 시간 수행을 이어왔다. 직장을 명예퇴직하고 10여년전 시작한 도자기는 운명 같은 것이었다. 조선백자의 전통을 잇는 지헌 김기철 선생의 문하에서 도자작업을 익혔고 전남도립대 도예산업디자인과에 입학해 이론을 겸비하는 등 열정을 쏟아왔다. 현재 그녀의 법명인 무량광에서 이름을 따온 '무량광도예' 를 운영하며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02)764-1389 **정혜숙 기자**

# 전통사진전 대상에 '보리암의 아침'

### 650명이 1,781 작품 응모


제1회 대한민국전통 문화사진 공모전 대상으로 선정된 이상민 씨의 '보리암의 아침'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사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 공모전 대상에 이상민 씨의 '보리암의 아침' 이 선정됐다. '보리암의 아침' 은 "우리나라 자연과 전통 사찰의 어우러짐을 잘 포착했다"며 "디지털 사진의 장점을 활용해 풍성한 색을 드러냈다" 는 심사위원의 평가 속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작품 이용섭의 '낙안읍성 성곽돌기' 는 "저녁노을의 하늘과 실루엣의 사람들, 성벽 그리고 횃불의 느낌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훌륭하게 완성했다" 는 평가와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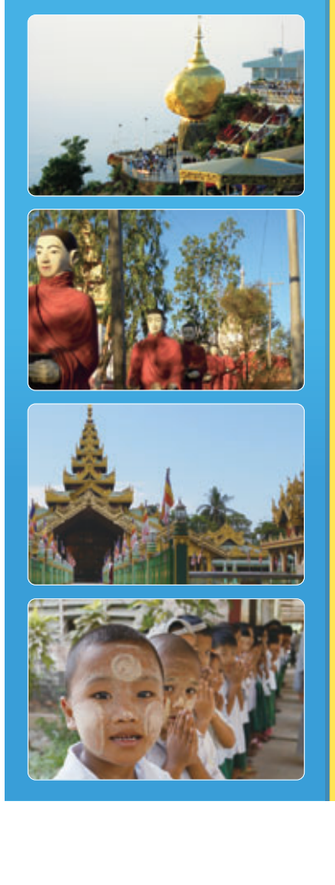
올해 처음 진행된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 공모전' 은 전통문화사진 디지털 아카이브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 콘텐츠를 개발 · 확보하고 국내 · 외 홍보에 활용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접수는 2013년 9월 25일~10월 24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650명이 1,781 작품을 응모했다.

공모전 심사는 국내 전통문화관련 사전 전문가 5인을 선정 11월 18일 최종심사를 통해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3명), 특선(10명), 입선(30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진필훈 교수(신구대 사진영상미디어과)는 심사 총평을 통해 "국내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우수성을 잘 표현한 사진을 중심으로, 공모전 주제에 충실한 작품들을 선별했다"고 평했다.

제1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사진 공모전 수상작품 시상식은 12월 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진행하며 수상작 전시회는 같은 장소에서 12월 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정혜숙 기자**


(주)에스굿
마하연 투어



부처님께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성지순례

불탑의 나라 미얀마 직항 "초특가"

■ 양곤/바고/시리암 (직항)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황금파고다/철야기도 가능) 7일
– 요금문의

해외 성지순례 단체 문의 주세요....

마하-연 여행사가 추천하는 품격 성지순례 (마하연 강력 추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성지순례 (직항) 5일 ..... 139만원
- 스리랑카 정통 성지순례 (직항) 7일 ..... 210만원
- 인도8대 성지순례 15일 ..... 요금문의
- 지장도량 / 관음도량 성지순례 7일 ..... 139만원 (구화산. 황산. 보타산. 낙가산)
- 지장도량(구화산 / 황산) 성지순례 4일
- 관음도량(보타산 / 낙가산) 성지순례 4일
- 문수도량(오대산 / 석가장) 성지순례 5일
- 보현도량(아미산 / 낙산) 성지순례 5일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주) 마하연 투어 ☎ 02)365-7747
본사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대명빌딩 303호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해외지사 : 양곤 사무실 (가바이파고다 앞) / 전화 951-667170. HP 95943048476

- 모든일정은 10인 이상 출발
- 2억원 여행자보험가입
- 별도 추가경비 없음 (가이드+기사, 각국 비자피)
- 환율변동과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추가요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 날짜 및 항공요금에 따라서 동참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 보주 안에 무량보주 들어있어 '누금세공' 기법 탄생

鏤金細工

## 강우방 원장의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 매화점(梅花點)→무량보주(無量寶珠) ㊦



앞 회에서 보다시피 매화점이 무량보주를 가리킨다. 중앙에 보주가 있고 그 보주 안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광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것은 여래의 정수리에서 무량한 보주가 나오는 것과 같고, 삼천대천세계를 압축한 건축에서 발산하는 무량한 보주와 맥을 같이 한다. 보주라는 것은 삼천대천세계에 충만한 대생명력을 가장 강하게 가장 작게 압축한 조형이므로 여래와 법당에 일관된 표현원리가 가능하다. 이제 여러분도 점점 보주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여의주(如意珠) 역시 통속화된 그릇된 용어이므로 여의주를 연상하면 보주의 본질은 영원히 풀려지지 않는다. 보주라는 용어 역시 지금까지 수 천 년 도안 축적된 지식을 아낌없이 버려야 보주의 분질에 겨우 다가갈 수 있는 문(門)에 이를 수 있다.

좀 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아마도 시대가 올라갈수록 보주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하면 믿기 어려울 테지만, 신비하게도 보주의 본질은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이미 정착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백제의 무령왕릉에 얼마나 많은 무량보주가 많은지 모른다. 무령왕릉의 칠(漆) 목관의 표면에 수많은 금속제 무량보주의 조형이 있다. 학자들은 어느 꽃이라고 가리키지는 않았지만 그저 단순히 꽃 장식[花裝飾]이라 부르고 그 의미는 밝히지 않고 지나친다. 그러나 옛 조형에는 그 당시 우주생성론이 투영되어 있으며, 아무리 간단한 장식이라도 의미 없는 조형은 없다. 오히려 간단한 조형에 중요한 상징이 깃들어 있으므로 도리어 상징을 읽어내기 어렵다.

중앙의 보주 주변에 거리를 두고 있는 조형을 금속 공예로 만들 때에는, 백제 무령왕릉의 왕의 목관에서처럼 전면(全面)을 가는 금판(金板))으로 육각수문(六角水文: 귀갑문龜甲文이라 흔히 부르는데 틀린 용어임을 이미 설명했다.)을 고정시키고 그 육각수문 안에 각각 무량보주 조형을 두었으니 '물에서 화생하는 무량보주' 라는 엄청난 상징이 눈앞에 나타난다. 여래로부터 무량한 보주가 생겨나듯이, 세속의 왕 역시 하늘이 내린 초월적 존재이므로 관 속의 몸으로부터 무량한 보주가 생겨나는 것을 무령왕의 옻칠을 한 목관이나 족침(足枕)에도 표현하여 두었다.(그림 ①-1, 그림 ①-2)

그러면 증거가 있는가? 있다. 반구형의 보주 주변에서 무량한 보주가 생겨나는데 구체적으로 중앙의 보주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금실을 꿰어 둥근 판을 고정시켰다. 이런 모양을 영락(瓔珞:구슬목걸이)이라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이 원판(圓板)은 구형(球形)의 보주를 간단히 편편한 둥근 원으로 나타낸 것이다.(그림②-1, 그림②-2) 신라시대와 백제시대의 금관과 금동관에도 이러한 장식이 수없이 달려있으나 영락이 아니고 모두 보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올바로 인식하면 왕관(王冠)의 고차원적 개념이 회복되어 큰 의미를 띠게 된다.

무령왕릉에서는 보주에 직접 잘디잔 알갱이를 잔뜩 붙인 조형이 있다. 흔히 누금세공(鏤金細工 , filigree: 작은 금 알갱이를 붙이면서 문양을 나타내는 방법)한 금목걸이라 부르지만 이 역시 놀라운 무량보주를 보여준다.(그림③) 조선시대 단청의 씨방 도안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경이적인 표현방법이다. 그러므로 누금세공이란 제작기법은 문명의 발생지에서 일찍부터 개발된 것으로 '보주의 개념' 의 역사는 매우 오래고 모든 장르에서 이미 표현하여 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까지 오로지 기법에만 관심을 두어왔다. 일반적인 설명을 읽어보기로 한다. 작은 알갱이란 바로 무량한 보주를 가리킨다.

'세금세공(細金細工) · 입금세공(粒金細工) · 필리그리(Filigree)' 라고도 부른다. 특히 신라에서 크게 성행하였는데 귀고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반지 · 팔찌 · 드리개[垂飾] · 구슬 · 곱은옥[曲玉]의 금모(金帽) 등 장신구와 칼자루장식 · 말띠드리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귀고리에서는 달개[瓔珞] · 드리개장식의 가장자리를 꾸미는데 많이 쓰이나, 경주 보문동 부부총(夫婦塚) 출토의 귀고리는 굵은고리太環]표면에 금알갱이로 거북등과 꽃잎무늬를 세밀하게 장식하였다. 백제의 예로는 공주 무령왕릉 출토의 곱은옥의 금모에 나타난 것이 가장 섬세하고 대표적인 것이다. 누금세공의 기법은 원래 이집트의 12왕조 때에 출현하여 메소포타미아 · 그리스 등지에서 성행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한대(漢代)에 나타난다.' (밑줄 친 것은 틀린 용어: 필자)

대게 이런 정도의 설명인데 독자는 이제 이 설명에서 올바르지 않은 용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다가 누금기법이 왜 생겼는지 큰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데아가 먼저 있고 그에 따라 제작기법이 고안된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즉 조형미술의 완성을 위하여 제작기법이 개발된 것이다. '무량보주(無量寶珠)' 는 이미 내가 만든 용어이지만, 하나의 보주를 보고 무량보주라고 말하면 이제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 이제는 보주 안에 보이지 않는 무량한 보주가 가득 들어 있다가 밖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그림 ①-1 무령왕릉 출토왕 족침(足枕)



그림 ①-2 세부



그림 ②-1 목관이나 그 밖의 부재에 부착하였던 금제 무량보주. 중앙의 큰 보주에서 사방으로 보주가 생기는데, 반구형의 위에 구멍을 뚫고 금실로 작은 원형 금판을 이은 것은 바로 큰 보주에서 작은 보주가 나오는 모양을 입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즉 무량보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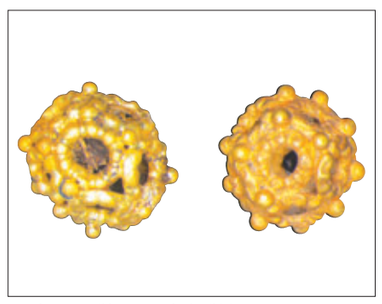


그림 ③ 금제누금목걸이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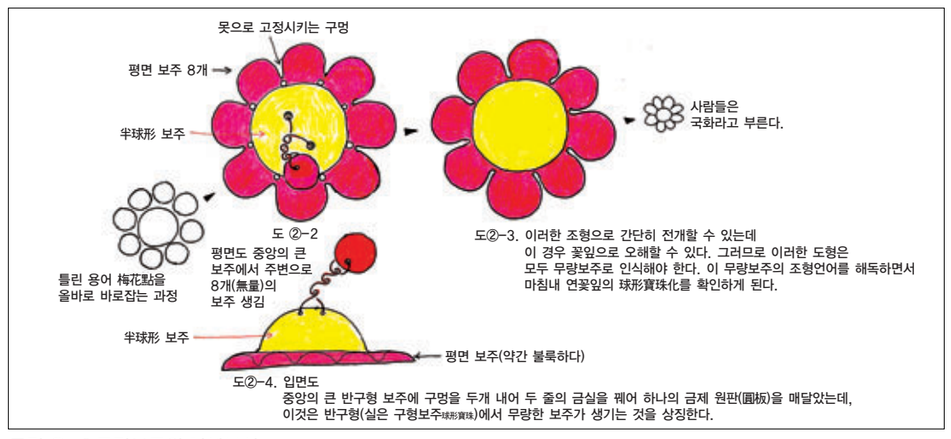



그림 ②-2 무량보주의 채색분석

---

## 藥이 되는 사찰음식

## 겨울철 비타민D 시래기로 보충하자



### 무청 시래기 전골

△재료(4인 기준)

○ 무청 시래기 500g, 표고버섯 5장, 두부 1/2모, 청홍고추

○ 맛국물 7컵, 고춧가루 1큰술, 고추장 1큰술, 된장 3큰술, 들깨가루 5큰술, 국간장 약간

△만드는 법

① 말린 무청 시래기는 찬물에 담가 약간 불어나면 불에 올려 부드럽게 삶는다.

② 삶아진 무청은 찬물에 담궜다가 껍질을 벗긴다.

③ 껍질 벗긴 무청에 고춧가루, 된장, 고추장, 들깨가루를 넣고 조물 조물 양념에 배이도록 무친다.

④ 냄비에 양념된 무청 시래기를 담고 볶은 다음 맛국물을 부어 끓이고 마지막에 청홍고추를 넣어 한 번 더 끓여 낸다.

### 묵은 나물밥

△재료(4인 기준)

○ 멥쌀 2컵, 찹쌀 1/2컵, 삶은 밤콩 1/2컵, 다시마물 2.5컵

○ 묵은나물(취나물) 300g, 국간장 2큰술, 들기름 2큰술

○ 양념장 – 국간장 2큰술, 다시마물 2큰술, 들기름 2큰술, 청홍고추 다진 것 1개씩, 통깨 2큰술

△만드는 법

① 멥쌀과 찹쌀은 깨끗이 씻어 찬물에 30분 정도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② 밤콩은 씻은 후 물에 3시간 정도 불린 후 부드럽게 삶아낸다.

③ 묵은 나물은 부드럽게 삶아 찬물에 담궈 특유의 아린맛를 제거한 다음 물기를 꼭 짠다.



④ 묵은 나물에 국간장과 들기름을 넣고 조물조물 양념을 한 다음 냄비에 담아 나물과 쌀을 넣고 볶은 후 다시마물을 부어 밥을 짓는다.

⑤ 양념장을 곁들어 낸다.

### 묵은 나물로 고소한 비빔밥을

무청을  말린 시래기는 겨우내 우리식탁의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좋은 식재료다. 무청은 햇볕에 말리는 것보다 통풍이 잘되고 그늘진 곳에서 말린 것이 엽록소가 많이 남아있어 푸른색을 띄고 있고 영양성분이 우수하며 물의 흡수성도 좋다.

특히 비타민 B, C는 말린 후에도 손실이 거의 없으며 음식을 만들었을 때도 잘 찢어지며 연하고 무르며 맛이 좋다. 무에는 전분, 단백질, 지방 등의 여러가지 소화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흡수를 촉진시켜 준다. 무청에는 특히 간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식이섬유와 칼슘, 철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식재료이다. 단, 요리에 이용할 때는 부드럽게 삶은 다음 껍질을 벗겨내야 억세지 않고 양념이 골고루 잘 배이며, 삶은 후 찬물에 담궈 특유의 마른 나물의 냄새를 없애야 깔끔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겨울철에는 무청으로는 나물지짐이를 만들어 먹어도 별미이다.

곤드레나 취나물 등 묵은 나물을 이용해 볶아 먹거나 밥으로 많이 해 먹는데 밥으로 할 경우는 나물을 부드럽게 삶아 국간장과 들기름으로 양념을 한 후 볶아서 지어야 풋내가 나지 않고 고소하고 맛이 있다. 또한 여기에 칼칼한 청양고추를 약간 썰어 넣은 양념장을 곁들여 비벼 먹으면 입맛을 돋궈준다. 그리고 양념장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을 때는 발효액을 약간 섞어 쓰게 되면 좋다.



김은정 (본초전통음식연구소 소장)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3219-7180 / 010-3743-5167

늘 피곤하고, 팔, 허리, 어깨가 쑤시며 깊은 잠 못자는 여러분을 위한 희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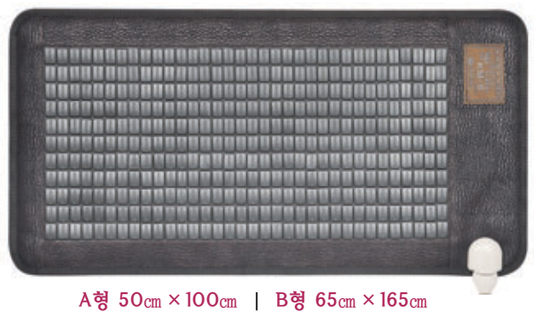
귀사문석(貴蛇紋石) 만능 미니 온열매트!

※ 귀사문석 온열매트는 근육통완화를 위한
식약청 의료용구 제조허가번호 제426호, 품목허가 제09-651인 의료기기 입니다.

피부속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는 생명의 빛! 원적외선이 93% 이상방출되는 방안의 숯가마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있는 냉기(冷氣)를 해소하자.

기도할 때는 좌복으로,
취심시에는 온열 매트로!!

귀사문석 374개로 구성



A형 50㎝ × 100㎝ | B형 65㎝ × 165㎝

올 겨울 추위는 방안의 숯가마 찜질방(전자파 완전 차단)과 함께!

생명의 빛 원적외선

귀사문석 온열매트에서는 93%이상 방출되는 원적외선이 우리몸의 피부속으로 50mm까지 침투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준다. 그리고 피하심층의 온도상승, 미세혈관의 확장, 신진대사의 강화, 부인병, 신경계 질병, 노인성질환, 어깨결림, 허리통증완화, 장속의 노폐물, 중금속 배출등에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생활 주택이 시멘트 구조로 되어있어 자연적으로 지기(地氣)를 차단하여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으나 귀사문석은 천연의 강력한 기(氣) 방사체이므로 자연적으로 신체에 활력소가 되어준다. 귀사문석은 항균효과 86%, 항곰팡이 억제력은 거의 100%이며, 냄새 제거 능력도 탁월하다.

■ 판 매 원 : 선재생활건강(주) /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 리베로빌딩 5층

■ 문의전화 : 031)595-8767, 010-4399-4326 선재생활건강(주) ■ 입금계좌 : 농협 355-0014-5055-43

## 지혜의 보고 佛書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13 ~ 11/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인생수업 | 법륜 | 휴 |
| 2 | 스님의 주례사 | 법륜 | 휴 |
| 3 | 알고 보면 괜찮은 | 마가 | 불광출판사 |
| 4 | 기도 (내려놓기) | 법륜 | 정토 |
| 5 |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 청전 | 한겨레출판사 |
| 6 | 치유하는 유식 읽기 | 서광 | 공간출판사 |
| 7 | 닦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용화 |
| 8 | 우리말 능엄경 | 황정원 | 운주사 |
| 9 |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 정목 | 비움과소통 |
| 10 | 선과 생명의 인지강의 | 남회근 | 마하연 |




# ‘생태위기’ 원인은 인간의 ‘이기주의’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종교대화1**
최현민, 김종욱, 종범, 본각, 조현철, 이정배, 구미정 지음
운주사 펴냄
1만2천원



**불교와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만나다 -종교대화2**
최현민 지음
운주사 펴냄
1만3천원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종교대화1〉은 불교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 지구 전체의 공통 문제인 생태 문제에 대해 두 종교가 지닌 전통 속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한 대화록이자 보고서다.

**불교·그리스도교, 위기의 ‘생태’ 모색**
**팔정도 실천…생태문제 해법**
**다른 두 종교의 영성 만날 수 있을까**
**이웃종교 이해는 ‘소통’에 꼭 필요**

한국에는 불교와 그리스도교라는 두 종교가 많은 저변을 가지고 있다. 다른 이름의 두 종교는 오래전부터 서로를 배우는 진지한 대화를 해오고 있었다. 책은 가톨릭 수행공동체인 ‘종교대화 씨튼연구원(원장 최현민 수녀)’에서 2009년에 진행한 불교와 그리스도교와의 대화 강좌인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생태 영성’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책은 세 명의 불교학자와 세 명의 그리스도교 신학자 및 종교학자를 중심으로 9개월 동안 진행된 강좌를 묶은 것으로, 우리 시대의 화두인 ‘생태적 삶’을 주제로 하여 어떻게 두 종교가 자연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키는 회심에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불교와 그리스도교 안에 깃들어 있는 생태적인 사상과 전통을 영성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로 풀어내고자 했다.

최현민 원장의 ‘생태위기의 관점에서 종래의 자연과 인간 이해에 대한 성찰’에서는 자본주의와 생태위기의 상관관계를 다루었다. 그중에서도 자본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을 부각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신고전주의에서 말하듯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기보다 호혜적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새로운 인간관은 불교를 비롯한 동양종교의 본성론과 상통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종욱(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의 ‘초기불교와 상좌불교에서의 생태 영성’에서는 고집멸도의 사성제(四聖諦)에 입각하여 생태 문제를 고찰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무지와 무명으로 보고 이를 깨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한다. 팔정도를 실천하여 사는 것 자체를 생태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이 근본불교의 정수가 생태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불교 영성이 곧 생태 영성’임을 말해준다.

종범(통도사 선덕, 전 중앙승가대 총장) 스님의 ‘선과 생태 영성’에서는 마음과 반야지혜, 정토를 주요 키워드로 하여 선과 자연과 영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나’라는 존재는 모든 인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따라서 자연이 곧 자기 몸인 줄 모르고 생태를 파괴시켜 온 우리에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존재 근원의 마음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불교적 생태 해법의 핵심은 ‘마음 닦음’에 있다고 강조한다.

최현민 원장의 ‘도겐(道元)의 생태 영성’에서는 일본 조동종의 창시자 도겐 선사가 말한 ‘산과 물, 곧 자연 자체가 붓다의 말씀’에 주목한다. 즉 산수(山水) 안에서 붓다의 모습을 발견하고 산수를 통해 붓다의 가르침을 듣는다는 것이다.

본각(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스님의 ‘화엄과 생태 영성’에서는 모든 존재가 끝없는 관계 속에 서로 걸림 없이 상호 의존한다는 원융무애적 존재관의 화엄사상을 통해 생태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현철(서강대 신학대학원) 교수의 ‘생태 영성과 성서’에서는 유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주제인 ‘계약’을 우주적 차원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의 우주적 계약이란 하느님과 인간 간의 계약을 넘어 자연까지도 포괄한다.

이정배(감리신학대학교 종교철학과) 교수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진화론’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진화론을 성찰하면서 이러한 성찰을 매개로 생태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구미정(숭실대 기독교학과) 강사의 ‘그리스도교적 생태 영성-사회적 관점’에서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타짜 연못을 둘러싼 경쟁의 원리, 즉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앉은뱅이는 경쟁의 원리 안에서 38년간이나 병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비판한다. 마지막으로 최현민 원장의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한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만남’에서는 생태위기의 근본 원인은 결국 인간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해야 하며, 그 회복의 방법으로 불교와 그리스도교에서 제시하는 생태 영성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불교와 그리스도교, 영성으로 만나다-종교대화2〉는 가톨릭 수도자(수녀)인 최현민(씨튼연구원) 원장이 한국의 전통 종교의 하나인 불교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나 대화하고 공부하고 체험하고 고민한 흔적을 자신의 종교적 체험과 학문적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한 종교 대화록이다.

영성(靈性)이란 삶에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원천으로, 우주 또는 세상에 본래부터 내재하는 성품 또는 초월적인 성품을 경험하는 것을 뜻하며, 이는 고등 종교들이 지닌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성은 종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데, 이는 각 종교가 표방하는 교리나 수행 전통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에 있어 영성은 절대자인 신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반면, 불교에서 영성은 자기 안의 불성을 발현하는 것을 중시하기에 절대자의 존재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두 종교의 영성이 과연 서로 만날 수 있을까? 책은 이웃 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진리를 향해 함께 순례하는 사회를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는 가톨릭 수행공동체인 씨튼연구원 주최로 진행된 불교와 그리스도교와의 대화 강좌에서 저자가 강의한 내용을 단행본으로 엮은 것이다.

제1강에서는 불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대화와 관련하여 종래에 이루어진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시도하고 있다. 제2강에서는 역사적 차원과 궁극적 차원에서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창시자인 예수님과 부처님의 정체성을 비교하고 있다. 제3강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불교의 연기를 비교의 주제로 삼고 있다. 제4강에서는 양 종교의 인간관을 하느님의 모상과 불성을 통해 비교하고 있다. 제5강에서는 양 종교의 인간 이해의 또 다른 측면으로 그리스도교적 인격과 무아를 비교하고 있다.

제6강에서는 양 종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세계인 하느님 나라와 열반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제7강부터 9강에서는 양 종교에 몸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제자 됨의 길’을 믿음과 수행(명상), 그리고 기도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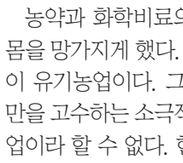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소통’일 것이다. 특히 자신과 다른 가치관이나 종교를 지닌 사람들과의 소통의 문제는 현대인들이 당면한 중요한 과제다. 종교 다원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면이 아닐 수 없다. 가톨릭 수도자인 저자는 불교를 접하면서 자기 안의 가치들과 수많은 소통을 해야만 했고, 그 소통의 과정들을 이 책에 담았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 농업과 농촌도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 농, 살림을 디자인하다

**임경수 지음 | 들녘 펴냄 | 1만3천원**



“내가 사는 방식이 마을을 살려야 하고, 마을을 살리는 방식이 지역을 살려야 하며, 지역을 살리는 방식이 지구를 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퍼머컬처(Permaculture)의 원리이자 정신이다. 책은 생태적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퍼머컬처’의 원리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소개한 책이다. 퍼머컬처의 원리에 따라 농장을 지속가능한 생태적 농장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퍼머컬처 적용 사례와 관련 정보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퍼머컬쳐는 1970년대 호주의 데이비드 홈그린(David Holmgren)과 빌 몰리슨(Bill Mollison)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처음 ‘영구적인(PERManent) 농업(agriCULTURE)’이라는 두

**‘생태적 삶’ 추구하는 ‘퍼머컬처’ 소개**
**‘소극적 유기농업’에서 ‘순환농업’으로**
**‘퍼머컬처’로 인류의 삶 디자인해야**

단어의 조합으로 부터 파생된 이래로, 퍼머컬쳐의 의미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농업) 전략을 찾는 본래의 의미에서부터 인간으로서 지구와 한정된 자원들과 관련하여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국면의 생활양식을 아우르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농약과 화학비료의 남용은 논밭은 물론 사람의 몸을 망가지게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유기농업이다. 그러나 자연적 유기물질의 사용만을 고수하는 소극적인 유기농업은 진정한 유기농업이라 할 수 없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순환농업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업을 시작해야 한다. 순환농업은 토양에 투입되는 자재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도 유기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 원칙은 단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집과 마을과 사회도 자연 순환의 원리에 맞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이 책에 제시된 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실천 예를 통해 우리는 이 같은 디자인의 미덕을 잘 확인할 수 있다. 굳이 퍼머컬처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주거지에서, 농장에서, 지역에서 순환을 추진해온 실천가들이 있다. 이들의 특징을 하나 꼽자면,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강요하는 경쟁원리에 매몰되지 않고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은 농업에서 출발하여 사회전체를 관통하는, 지속가능한 행복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퍼머컬처’다. 퍼머컬처를 바탕으로 우리 삶을 디자인해야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해지고 다음 세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2부 ‘농장살림’에서 퍼머컬처에 대한 소개와 함께 원리의 응용과정을 통해 하나의 농장을 지속가능한 생태적 농장으로 디자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급적 우리나라에서 퍼머컬처를 적용한 사례를 찾아 소개하고 관련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덧붙이려고 노력했다. 퍼머컬처를 당장 이해하고 싶다면 2부를 먼저 읽어도 좋다. 하지만 완전하게 독립된 개인으로 살 수 없듯이 하나의 농장은 우리나라 전체 농업, 그리고 농장이 속하는 마을 및 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농장만이 섬처럼 외따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에 주목하는 새로운 농업의 전망을 살펴본 1부 ‘농업살림’과 마



호주 크리스털워터즈 생태마을의 쓰레기 수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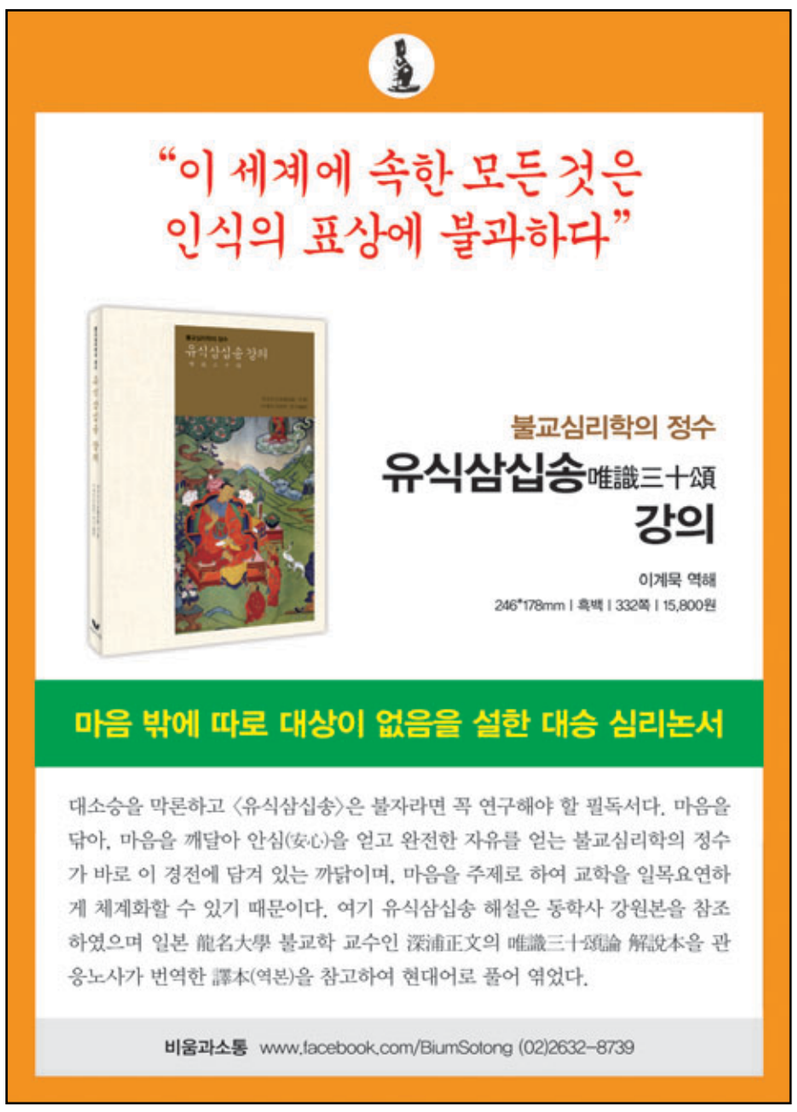
을과 지역공동체의 대안을 사회적 경제와 접목하여 모색한 3부 ‘농촌살림’도 퍼머컬처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이 두 개의 ‘부’에서 농업과 농촌을 새롭게 디자인해보고자 했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운동에 필요한 내용과 정보가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은 무섭고 싫은 서울을 벗어난 한 개인의 탈출기이자,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여섯 번이나 이사를 한 시말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혼자 제대로 살겠다고 해도 제대로 살아지지 않는 우리 사회에 대한 먹혀들지 않는 투정일 수도 있겠다. 그래도 나는 소망하고 있다. 나처럼 서울을 탈출하여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거나,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로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말한다.

저자는 농업과 농촌도 새롭게 디자인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지금껏 현장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운동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통찰이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다.

박재완 기자







가늘고 뾰족한 7층 석탑들이 불규칙한 운율로 서있는 화순 운주사 전경.

절집 건축은 비울수록 채워지고 채울수록 비워내야 하는 어려우면서도 간단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편집자주〉


오똑한 연화좌대위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장관인 창녕 관룡사.

# 절집은 채움과 비움이 절묘하게 조화된 건축물



##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2

**김봉렬 글 | 관조스님 사진 | 컬처그라퍼 펴냄 | 2만원**

**미황사 등 22개 사찰의 건축적 가치 설명**
**구도적 건축, 수직절벽에 건물 앉힐 수 있어**
**건축서 내려 놓아야 할 최후의 것은 '중력'**
**옛 절집의 건축정신, 현대인에게 필요한 덕목**

이 책은 건축학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인 김봉렬 교수의 글과 불교 사진의 대가인 고 관조 스님의 사진이 어우러진 우리 옛절 답사기다. 2002년에 출간돼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1〉의 후속작인 동시에, 다음 책을 내겠노라는 약속을 7주기에 맞춰 행동에 옮긴 결과물이기도 하다. 전작인 제 1권이 훼손되는 사찰의 건축적 가치를 깨닫게 하고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쓴 것이라면, 이번 책은 건축학자인 저자 자신과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축에 대한 자기 고백서 형식이다. 따라서 보이는 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건축학자로서 대상들에게 던진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냈고, 화려한 수사와 목적을 가진 설득보다는 오로지 사유의 깊이와 문장의 솔직함을 담아 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책에는 전작에 실리지 않은 절집과 금강산 보덕암, 만폭동의 사암들까지 모두 21곳을 소개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미황사, 법주사, 선운사뿐만 아니라 영주 성혈사 나한전, 청양 장곡사처럼 잘 알려진 사찰은 아니지만 건축적 가치와 아름다움이 뛰어난 절집을 다채롭게 소개했다.

우리 사찰 건축에 대한 애정을 담아, 건축학자로서의 날카로운 시선과 엄밀함을 통해 사찰에 담긴 문화적,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가며 우리 가람의 참다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승려 사진가인 관조 스님의 담담하면서도 애정 어린 시선이 담긴 사진을 통해 옛 절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 책에는 지금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옛 절집의 모습들도 사진에 담겨 있다. 아스팔트로 닦인 길을 내고 현대식 건축 공법으로 건물을 세우기 이전, 구불구불한 산길로 이루어진 진입로와 오랜 시간 불심으로 세워진 건축물의 모습이다. 관조 스님의 사진을 통해 사라져서 기억되지 못할 뻔했던 옛 절집의 모습과 김봉렬 교수의 글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옛 가람의 정신과 아름다움에 대해 다시금 조명해 볼 수 있다.

건축에서 내려놓아야 할 최후의 것은 무엇일까? 저자는 중력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건축 발전의 역사는 중력을 거슬러 더 넓고, 더 높은 건물을 구축하려는 역사였다. 구도의 건축은 중력을 내려놓고, 허공에 건물을 매달고, 대지를 박차고 날아가야만 오를 수 있는 수직 절벽 위에 건물을 앉힌다. 건축에는 구조에 의한 아름다움이 있다. 견고하고 안정된 건축물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한 구조는 너무나 평안한 안정을 누리고, 너무나 일상적인 상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거대한 지붕이 공중에 떠 있을 때, 가늘고 높은 전망탑이 산 위에 솟았을 때, 이를 아름답다 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랜드마크라 한다. 자칫하면 지붕이 무너질 것 같고, 전망탑이 쓰러질 것 같은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구조의 아름다움이 피어난다"고 설명한다. 좋은 예가 바로 금강산 보덕암이라는 것이다.

강진 무위사에 대한 저자의 감상또한 맛갈나다. 무위사 극락전과 같이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뛰어난 솜씨로 작품성까지 겸비한 장식은 오히려 건축의 세계를 무한히 확장시킨다는 것이다. 저자는 "무위사 극락보전의 골격은 간결하고 건실하다. 그 골격 사이에 끼워졌던 벽화들은 생명력이 넘치고 다양하며 풍부하다. 튼튼한 골격과 아름다운 장식들. 극락이란 이렇게 이루어진 곳이 아닐까? 극락세계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이 건축물에 있다."고 극찬한다.

절집은 채움과 비움이 조화된 건축물이다. 허(虛)한 곳은 보완하고 필요 없는 군더더기는 덜어 내며 자연과의 조화를 가장 중요시하는 옛 절집의 건축 정신이야말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다. 템플스테이가 인기 있는 이유 또한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몸을 정화시키고, 고민과 욕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을 비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진리란 특별하고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주변, 아주 사소한 것에 있다. 다만 우리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마음을 열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깨달음, 즉 자기 안의 부처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 독특한 의례와 민중의 삶 조명



### 동아시아 불교의식과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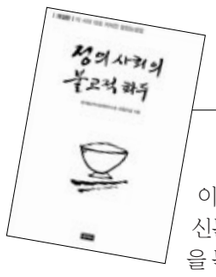
**윤소희 지음 | 민속원 펴냄 | 4만2천원**

이 책은 작곡가이자 음악인류학자인 저자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지를 돌며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한 내용이다. 저자는 〈한국 전통음악의 변조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야금 산조와 대금 산조가 전조를 해 나가는 과정을 그레고리안찬트와 바하의 대위법과 비교해 학계의 지대한 관심을 받은 바 있다. 2006년에는 〈대만불교 의식음악연구〉로 한양대 박사학위 우수논문상을 수상하며 동서양을 아우르는 의례음악 연구로 독보적인 영역을 개척해 왔다.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은 저자가 10년간 학술등재지에 발표해 온 논문들을 엮은 것이다.

인도를 비롯해 티베트, 동남아, 대만, 중국의 불교의례와 악가무는 그 지역의 독특한 의례 문화와 민중들의 삶을 조명할 수 있어 흥미롭지만 이들이 한국 문화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저자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희귀음반시리즈로 발간한 〈영남범패〉를 악보로 채록해 악보해설집을 함께 펴냈다. 이 책은 현지서 촬영한 동영상과 음원 그리고 수백장에 이르는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어 아시아의 노래와 춤을 보는 듯하다.

**김주일 기자**

## 우리 사회에 던지는 강력한 사자후



### 정의 사회의 불교적 화두

**소암 스님 지음 | 문지사 펴냄 | 1만3천원**

이 책은 MB정권 이후 5년간 인터넷 신문에 기고한 글들을 묶은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이것을 차기 정권에도 해당되는 사항이라 믿는다. 저자는 이런 글들을 통해 단순히 MB정권의 실정과 실패를 비판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선 발전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의도를 내비쳤다.

저자는 1987년 제 1평론집 〈한국불교와 진로〉를 펴낸 이후 26년만에 이번 제 6평론집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저자는 1980년부터 30년간 숱한 사회용어를 만들고 보급해 온 우리시대의 불교적 멘토이자 실천불교 사상가이다.

특히 저자는 선순환, 선용, 악지식, 순기능, 역기능, 현실정치, 중도실용주의 등과 같은 어려운 불교용어를 쉽게 재해석하기도 했다. 또한 1987년 부산 민주화운동의 대표로 각종 시민운동을 18년간 펼치기도 했다. 시대정신과 역사의 중심에 서서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써 내려간 저자의 글들은 구도자의 피나는 수도과정이요, 동시에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사자후로 현실 사회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 불교적 상상력으로 쓴 동시



### 날아오른 발자국

**글 박방희 | 그림 이지연 | 청개구리 펴냄 | 9천원**

흔히들 한 권의 시집 속에서 좋은 시는 반타작도 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러나 박방희 시인의 이번 동시집을 펼쳐 보면, 어느 것 하나 허투로 흘려버릴 수 없을 만큼 높은 시정신을 구가하고 있다. 편편마다 수작이라 이름붙일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과연 동심에서 출발한 시적 탐색이 불교와 동양 사상에 이르러 시와 동심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형국이라고나 할까. 그렇다면 시인은 불교적 상상력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들려주려고 한 것일까?

사실 '불교적 상상력으로 쓴 동시'라는 말은 혹시라도 '동시를 통해 불교의 세계를 알기 쉽게 풀어 썼다'는 식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 꺼려지는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동시집은 그러한 얄팍한 기획물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불교를 쉽게 이해하는 것과 이 동시집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단지 여기서 불교적 상상력은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사물과 자연의 본질을 불교적 상상력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근원적인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기업경영과 금강경 ㊦

고준환 (경기대 명예교수, 기업법 전공)

# 불교식 경영, 자비와 업 내포된 보살도가 핵심

노사관계에 대하여는 〈육방예경〉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주인 또는 고용주는 하인 또는 고용인을 ①능력이나 재능에 따라 일을 시키고 ②적절한 임금을 지급하며 ③병이 나면 치료해주고 ④가끔 상여금이나 휴가를 주어야 하며 ⑤병이 났을 때는 치료해주어야 한다. 반면에 하인이나 고용인은 ①부지런히 일하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아야 하고 ②정직해야 하며 ③주인이 말을 잘 듣고 ④속이지 말아야 하며 ⑤일에 열심이어야 한다.

경제사상으로는 가난이 도둑질 · 거짓말 · 증오 등과 같은 부도덕과 범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전륜왕사자후경〉). 그리고 형벌을 통한 범죄의 근절책이 부질없음을 말하고 그 대책으로 국민의 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구라단두경〉). 곡식과 농사를 지을 설비가 농부와 경작자들에게 공급되어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본이 제공되어야 하며, 고용인에게는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렇게 충분할 소득을 벌어들일 기회가 부여되면 국민들은 만족해하고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게 되고, 그 나라는 평화롭고 범죄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 4. 부처님의 자비 경영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진리를 전하시고 4부 대중 교단을 운영하신 것을 보면, 부처님은 진리의 왕인 법왕(法王)이요, 중생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대의왕(醫王)이며, 또한 경영왕(經營王)이라고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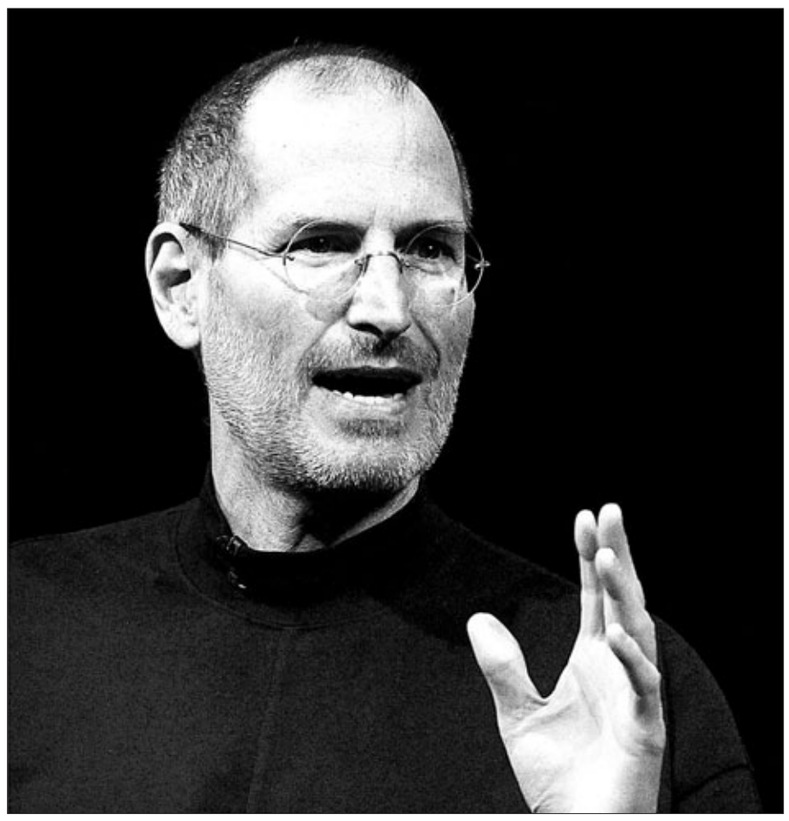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은 불이중도, 유심유식, 인연과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4성제와 8정도, 4무량심과 4섭법(보시, 애어, 이행, 동사섭)이나, 6바라밀(또는 10바라밀)인 보살행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는 불이사상 즉 동체대비사상을 기반으로 노사정사회가 하나가 되는 민주적 리더십의 보살도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는 무소유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욕을 가진 중생은 종교적 진리도 추구하면서 경제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해탈은 막는 것은 부(富)가 아니라 부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초기교단의 소유체제를 방편으로 인정하시어 재가자들의 사유와 출가자들은 공유체계(共有體制)로 생활하게 하셨다. 출가자는 무소유를 전제하여 경제행위가 금지됐으며, 수도를 위해 삼의 일발(三衣一鉢:옷 세 벌, 밥그릇 한 개)만의 소유가 허락되었다. 나머지 교단재산은 불가분물(不可分物)로서 사방승물(四方僧物)이라 했는데, 승가 공동체의 공동소유였으며, 매매 · 대여가 금지됐으나, 평등하게 사용할 수는 있었다.(〈대장경〉〈파리율소품〉) 이는 진정한 의미의 공동사회로, 정법을 중히 여기고 재물을 중히 여기지 않는 출가자 모임이 수승한 것으로 존경받았다. 재가자들도 궁극적으로는 불자로서 무소유를 전제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익사회였으나 재물을 획득하는데 일정한 윤리규범에 따르도록 했다.(〈선생경〉)

부처님의 세계는 본래 무소유 세계이므로 주고받을 것이 없지만, 주고받는 경우에도 한생명 한살림으로, 가면 가고 오면 오지(如來=如去=Tathagata), 오고 감이 서로 조건지어져 있지 않고, 무한 발전소처럼 받지 않고도 한없이 공급해 줄 수 있는 세계이다. 그러나 중생세계는 '이익을 추구하는 동물' 의 소유세계요, 시장사회이므로, 주고받는 것(give and take)이 서로 조건지어져 있는 '이익의 관계망' 모습을 보이게 마련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업(칼마 業)을 갖고 있고, 그 업에 따라 자신이 귀천을 결정짓는 것이지, 신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천민경〉) 각자의 업에는 별업(別業)이 있고, 공업(共業)도 있으며, 직업도 있는바, 모든 중생은 업의 연속으로 스스로의 업을 따르고, 업을 벗으로 삼으며, 업을 문으로 삼고, 업을 의지로 삼는다.(〈본사경〉)

석가세존 당시의 교단생활은 재가자들이 생업에 따른 바른 생활로 풍부한 식량과 상업성금을 출가자들에게 보시했고, 출가자들은 재가자들에게 법시를 하면서 정신적 해탈을 구하며, 마음을 비우고 공덕을 베풀기 위해 걸식수행도 했다. 부처님은 이변중도와 현장 중심가르침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변중도(離邊中道)는 2분법으로 나눠 양극단으로 가는 것을 피해야 하며, 부처님의 「거문고 비유」말씀과 같이 너무 조이거나 늦추지도 않아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거문고의 비유」에 맞춘 불자로서 기업경영에 뛰어난 이가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다.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는 불교에 심취하여 인도와 히말라야 여행을 했으며, 도미한 일본인 스즈키 슌류 조동종 스님 밑에서 선수행을 집중적으로 정진했다. 그는 일본 후꾸미 에이레이사에 출가 승려가 되려고도 했고, 결혼식 주례도 일본인 비구니 스님이 맡았다. 그는 캘리포니아 선센터에 주석한 조동종 오토가와 고분(乙川弘文) 선사를 평생 스승으로 모시고 결혼식에도 초대했다. 채식주의자였으며 말년에 암투병중에는 장남과 딸을 데리고 일본 임제종 사이호리사를 즐겨찾기도 했다. 불교에서 깨우친 바가 많았던 스티브 잡스는 여러 차례의 강연 중에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마음행복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부유함과 높은 지위는 행복과 별개다. 불이와 이분법의 조화점을 찾아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그 일을 할 뿐인 상태가 깨달음이다" "세상을 있는 대로 받아들여라"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리더와 모방자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애플의 핵심은 놀라울 정도로 상호협력적 회사이다. 애플에는 위원회가 하나도 없다" "나는 돈벌기 위해 사업한 적이 없다. 내 가족이 사용할 제품이라 생각하고 모든 제품을 만들었다" 등의 말을 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2013년에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애플사를 시작했던 차고를 사적지로 지정했다



불교에서 깨우친 바가 많았던 스티브 잡스는 여러 차례의 강연 중에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불이와 이분법의 조화점을 찾아라" 등의 말을 하며 이러한 원칙들을 기업경영에 접목시켰다.

**일본 10대 재벌 교세라 그룹회장 이나모리 가즈오가 저술한 〈카르마 경영〉은 인과응보의 논리 등 불교 가르침 곳곳에 스며있어 그 역시 선과 교에 능통, 수십조 재산 버리고 출가하기도**

### 5. 카르마경영

불교의 기업경영은 한 마디로 보살도 경영인데, 이는 자비경영과 카르마경영을 내포하는 것이다. 카르마경영은 이 세상은 모두 인연과보의 원리로 움직이고, 인연이 쌓이고 반복되면 세력화하여 업(業, Kharma)이 되는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의 경영인 것이다. 인생은 현상적으로 보면 습업적(習業的) 존재이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기업경영인으로는 "장사는 이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던 불자거상 임상옥, 수백년 대를 이어 부자로 건강하게 살아온 경주부자 최씨, 객주로 많은 돈을 모았다가 흉년에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모두 바친 제주 김만덕 보살 등을 들 수 있다.

8.15해방 이후 수정자본주의를 채택한 한국에는 수많은 거대기업이 명멸했다. 대체로 국민의 주목을 받은 뛰어난 기업경영자는 극일의 상징인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 회장, 불도저식 기업가로서 1998년 1001마리의 소떼방북으로 남북의 철벽문을 연 현대그룹 창업자 정주영 회장, 민족적 주인정신을 갖고 지구촌을 무대로 산 SK그룹 창업자 최종현 회장,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한국의 날개인 KAL(대한항공)등을 창업한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무역입국의 신화위에 세계를 주름잡아 '김기스칸' (한국의 징기스칸 뜻) 이름까지 얻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이다.

그러면 국민의 90%이상이 불자인 이웃나라 일본의 대표적인 불교 기업경영가는 누구인가? 제 2차세계대전 종전후 대표적인 일본의3대 재벌 경영신은 마쓰시다 고노스케(전기업 그룹 창업), 이나모리 가즈오(교세라 그룹 창업주), 혼다 소이치로(혼다자동차 창업주)를 든다. 혼다 소이치로는 보통학교만 나오고, 본전기연공업을 세우며 "네 뜻대로 살아라" 를 표어로 내세워 독창성과 기술혁신을 중시하였다. 1%의 성공은 99%의 실패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지위도 아니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혼다이즘이라 할 기업경영 3원칙은 ①남의 흉내를 내지 말고 독창성을 지녀라 ②관공서에 의지하지 말라 ③세계를 겨냥해 나아가라 이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부처의 길위에서 선화자 자세로 기업경영을 하고, 송하정경의숙을 세워 일본 정경계의 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 그는 회고록에서 "나는 평생 단 한번도 이윤을 쫓아 일한 바가 없으며, 오로지 세상사람을 위해 전기제품을 수도물처럼 싸게 공급하는데 전념해 왔다" 고 쓰고 있다. 일본의 경영학자들은 마쓰시다가 자기만의 부처가 되고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세상에 유익한 제품을 제공하고 이윤을 크게 얻어 보살도를 실천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불자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봉사로 일을 끝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윤이 발생하는 것이지, 이윤을 추구했기 때문에 복덕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일본에서 도덕경영, 정도경영으로서 불교적 경영의 대표자는 〈카르마경영〉〈아메바경영〉〈일심일연〉 등의 책을 낸 교세라 그룹회장 이나모리 가즈오다. 그는 불자로서 선(명상)과 교에 능했으며, 관구존 남의 '생명의 실상' 도 통독했다한다. '씨없는 수박' 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의 사위이기도 한 이나모리는 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경영인 모임 '세이와주쿠' 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양성했으며(한국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이곳 출신), 사회사업으로 '이나모리 재단' 을 설립하고 '교또상' 을 창설하여 아시아인 최초로 한국인 백남준씨가 그 상을 수상했다. 살아있는 경영의 신이자 대재벌기업회장인 이나모리는 1959년 교세라를 창업해 10대재벌이 됐으나, 어느 날 갑자기 회장직을 사임하고, 수십조원의 재산을 마다하며 스님이 되었다. 1997년 9월 교토의 원복사라는 절에서 대화(大和)라는 불명을 얻었다. 그는 스님이 된 후, 길거리에서 탁발할 때 '10엔' 을 던진 한 아주머니의 무주상 보시에 크게 감동했다고 탁발수행 경험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 후 일본의 간판기업인 일본항공사(JAL)가 파산에 몰리게 되자 구원투수로서 일본 수상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2010년 JAL회장(2010~2012)을 맡고, 보수 없이 일하며, 날카롭고 과감한 경영으로 JAL을 살려 부활시키고, 이선으로 물러나기도 했다. 그가 쓴 〈카르마 경영〉을 보면, ①일체유심조이니 인생은 마음이 그리는 대로 이루어지니 좋고 강력한 생각을 하여 실현 시킨다. ②진리는 하나이니(不二) 원리원칙에 근간을 두고 생각하는데, 인생도 경영도 단순명료한 원칙이 좋다. ③마음을 수양하고 높이되 6가지 정진이 필요하다. 이는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겸손하며 날마다 반성하고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남을 위해 선행 하는 게 바람직하니, 적선지가(積善之家)에 경사가 있다고 유가에서도 말했다. 쓸데없는 걱정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후회가 남지 않게 전심전력을 기울여 몰두하라는 등 모두 6가지 정진이다. ④석가모니의 6바라밀을 끊임없이 수행하여 마음을 높이며 보살과 같이 이타심으로 살아가라. ⑤인연과보원칙의 우주 흐름과 조화를 이루어 인본주의 속 한 생명으로 돌아가 상생하라.

지금의 세계자본주의가 자본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비판한 이나모리 회장은2012년 2월 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드림소사이어티 강연(하나금융그룹 주최)에 연사로 참석해 대의명분 있는 사업목적을 가지라는 등 12가지 경영원칙을 말했다. 그는 현재 교세라 그룹과 JAL의 명예회장으로 있다.

### 6. 끝내는 말

위에서 우리는 금강경을 중심한 불교철학과 기업경영 실제생활을 연계시켜 살펴보았다.

지금 세계는 자본주의가 크게 발달하고 있으나,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 불공정한 분배, 인간의 소외 등으로 천민자본주의가 되어가고 있어, 21세기의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그 대안은 석가모니께서 보여주신 초기교단의 '불교사회주의' 와 불교적 연기관에서 찾을 수 있다. 국가를 불교경제공동체처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무소유(무위, 불이)를 방향점으로 잡고, 4부대중 가운데 재가자는 사유를 기본으로 하고, 출가자는 공유를 기본으로 하여 조화를 추구하는 사회라 할 것이다. 무소유는 가짐 없는 큰 자유이다. 사유 · 공유 · 무소유가 잘 조화되어 활발한 사회를 형성해 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경영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불교의 4성제 8정도에 기반하고 자비희사심의 4무량심으로 시절인연을 살펴보면서 무주상보시 등 4섭법의 보살행을 해야 마땅하니, 이는 인성을 중시하는 보살도 경영으로서 자비경영, 칼마경영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혜로 볼 때 불이중도의 무분별지와 세상사를 분별할 때 생기는 분별지에는 집착하지 않아서, 이이불이(二而不二)로서 조화된 한생명상생법으로 살아감을 뜻한다고 하겠다.

이 원고는 본각선교원에서 강의하는 내용을 미리 간추려 소개한 것입니다. 본각선교원 (02)762-4848


# 설법·화술

## 설법제일 부루나존자가 되자

**교육내용**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회의진행법 등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일시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종합반"**
◆ **장소 :** 서울 종로 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지도 :** 40년의 경륜을 지닌 인성교육 스피치 임상심리에 전문가인 설법 연수원의 "又佛 김철회 원장"이 총괄 지도함.

※ 한국 설법연수원장 김철회 박사는 현재
사) 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이사장
한국인성개발원 회장
대한최면심리학회 부회장으로서
최면치료 지도사이기도 함.

◆ **문의 :** 010-7248-1567 / 02)747-1567

**韓 國 說 法 硏 修 院**
서울시 종로3가 16 고영빌딩 국민은행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2번 출구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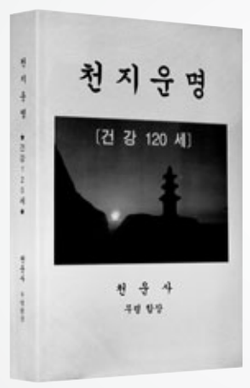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천지운명
## 건강 120세

**불자 여러분들에 건강이 수록 되어 있는 책!**




무령 엮음 | 신국대판 | 720페이지
정가 120,000원

**"병들고 답답하면 찾아오세요"**

이 책에는 수백년부터 선조님들로부터 내려온 민간요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수집한 중국 민간 요법을 번역하여 수록했으며, 각종 약제 사용하는 방법 및 민간요법뿐만 아니라 효소(발효)담그는 방법 약 3,000여가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합니다. 또한 누구나 다 원하는 바 일 것입니다.

그래서 소승은 온 국민이 건강을 지키시라는 큰 발심을 하여, 20여년전부터 중국을 오가며 한방이라던지 민간요법 효소담그는 법을 연구해 온 것을 이 책 속에 수록한 것입니다.

부디 '천지운명건강 120세' 책이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가보로 자리매김 하기를 발원하며, 책을 구입하시는 선착순 100명께는 기존 출간된 천지운명 책 한권을 더 드립니다.

불자 온 국민 여러분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24-119번지
**대선불교조계종 천 운 사 무령 합장**
전화 032)655-1356 / 팩스 032)664-1356 / H P 010-6674-1356
입금계좌 : 농협 170972-51-038226 / 신한 110-113-445631(예금주 : 장지엽)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난한 이에게 내가 베풀지 못하더라도
남이 베푸는 것을 보면 함께 기뻐하라.
– 과거인과경 –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빙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2)588-4606
비룡정사 제행스님

##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 인연으로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 최면
전생 • 미래
빙의 • 퇴마
- 심리치료, 습관교정, 성격개조 (개인지도 및 직접 상담)
- 최면요법 전과정 7회 완성
1회 무료강의 후 상담접수
- 역학(정통명리) 개인지도
(부산 현불사 최면센터)
010-9342-9794

##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 지장기도를 통해 그 자리에서 영가천도 환자의 몸속에 숨어있는 빙의령 확인
빙의,우울증,신병,대인기피,암,원인불명,
질환,악성피부질환,아토피,인생상담
지장보살님의 빛이 온몸을
감싸는 것을 느낀다
스님,보살님,법사,일반인 치유 및 제자양성
인체전기파동의학원
010-9242-5259

## 바라무, 화청 및 회심곡 강의
- 장 소 : 부산, 서울
- 시 간 : 3시간
- 수강료 : 3만원(1회)
(민재스님 직강)
010-7601-6937

## 아주 저렴한 보시금으로 각종 불공, 법회를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림
천도재,사십구재,점안식,
용왕제,산신제,
시다림,구병시식
010-7264-8474

##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영남소리,사물,바라,작법
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 자비 미륵암 (청학동)
미륵암 자비도량에서
삼신불의 원력과 氣를 온 육신으로
받으시고 잡선기도 하십시오.
(1일 만원)
미륵암에서 함께 수행하며
지내실 분 모십니다
011-759-0183
055)883-7385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단체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 불교문화강좌, 불교문화활동,
불교문화 수련사업 하실분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 천도재 49재 사찰행사 바라무, 나비무, 회심곡, 점안식, 산사음악회, 위령제
010-8677-2861

## 법당화주 겸 종무보살 모십니다
–불심이 돈독한 법당 일천불 분양
권선할 유능한 화주보살을 모십니다.
–불심으로 귀의할 출가 여행자
모집합니다.
꼭 필요한 분만 전화주세요
(부산 금정구 소재 사찰)
010-6390-1899

## 백발백중 귀장술 수강생 모집
초보자환영,
교재제공
쉽게보는 원판제공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 록 명 법 특 강
전귀명은 부동산 투자성공하고
폭패파택살(김우중)은 부도나고 경문년에
오바마 대통령재선 천사통수격(박근혜)은
대통령됨. 마두대재는 장업성공 부자되고
봉황록귀는 부귀로 세계에 이름떨침.
범귀자 영장살자는 매사 중도좌절
명귀보궁 비살병투자는 남자친구한테
APT받고 비재성자는 복권당첨됨
쉽고 새로운 천년비법 최초공개!!
010-4022-2967
010-9469-7719

## 쉼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신토불이 천연 약초로 약을 짓습니다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 특수한 비법
-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 (수강생 모집) 기문둔갑반 명리연구반
역학을 하였으나 상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기문둔갑) 비법을 전수합니다
무료청강하신 후에 수강신청(무료강의)
매주 토요일 7시부터(2시간)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67-12번지
(천지암) 창원시청부근
010-6511-5958

## 스님이 안계신 빈 절이나 작은 암자나, 토굴 구합니다 전세 매입 원합니다
010-5257-9339

##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010-5367-1340

## 고려대장경 탁본 판매합니다
(총 48권)
010-7169-9878

##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2)2234-2198
010-8721-2198

##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 미륵존불 조성불사를 도와 주십시오
월하스님 글씨 병풍포함 3점. 서경보스님 글씨 병풍포함 4점. 일타스님 글씨 2점.
석주스님 글씨 1점. 수안스님 그림 3점. 석정스님 달마 병풍 1점. 경봉스님 글씨 1점.
청광선생 달마, 독수리 병품 2점. 문화재 인도선생 달마 1점. 천경자 그림 1점.
중광스님 인불상 1점 위의 작품 21점을 미륵존불 조성불사에
큰 인연으로 도와주시고 설판하여 주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그림과 글씨도 마음에 드시면 드리겠습니다.
경북 054)853-3855
시주보시금 : 국민은행 622-24-0064-982. 농협 729-02-117074 유명혜

## 의를 알고 자비를 이해사시는 분과 수행하고 싶습니다
(토굴 준비하였습니다)
010-6607-5308

## 사찰 전세구합니다 도시안에 있는 사찰전세 구합니다 시골이나 포교당은 하지 않습니다
011-850-0176

## 스님을 모십니다
요양원에서 이생을 마무리
하고자 하시는 요양이
필요한 스님을 모십니다
파주 약수암스님이 운영하는
거북마을노인요양원에서
스님의 가족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010-9067-4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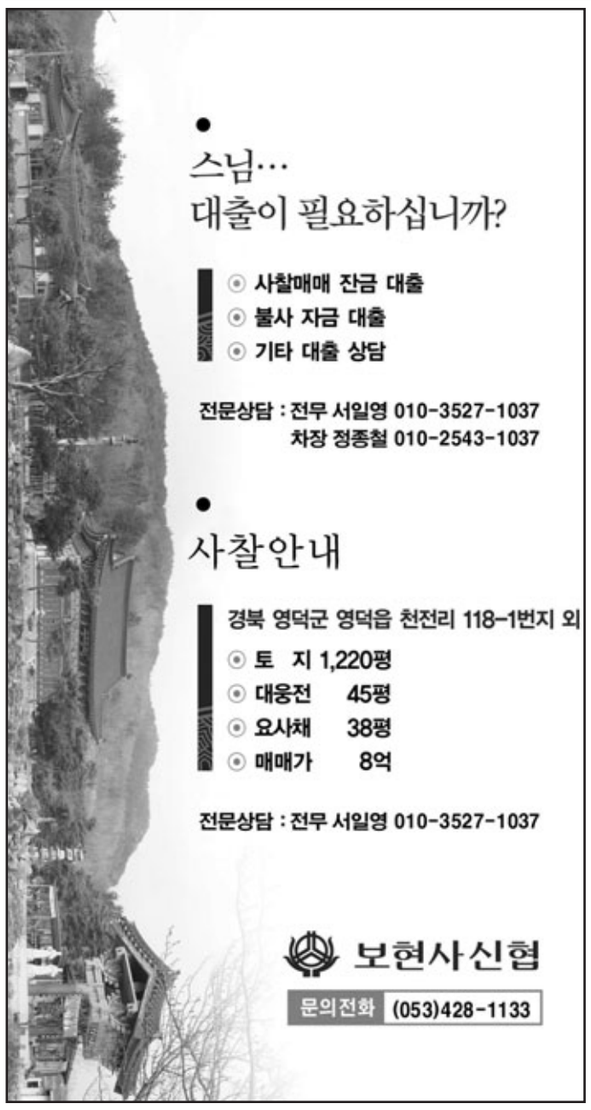
## 부전소임을 원합니다
010-2991-1147

##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으로 장례전문인력의 맞춤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 노후를 절에서 사실 분
1인 1실. 신축건물 청정지역
5천만원 시주하시면 평생 생활비 없이 지낼 수 있음
부처골 지장선원 WWW.jijangsw.com
다음카페 "연꽃마을 복지관" 검색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914번지
054) 383-8553 / 010-8585-4908
<혜봉스님 직통>

## 작품(유물)인연자를 찾습니다
–石經 : 불정존승다라니경
(팔각석각 기둥에 음각:85cm×26cm)대정12년(840년전)
–칠성탱화 건륭 59년(219년전)
–민화팔폭병풍 130년 추정(유람도)<혜산 작품 추정>
상기 작품에 관심이 있는분 연락바랍니다.
018-246-0211

## 관 상 (손금)
⊙ 질병을 전문으로 강의함
- 얼굴,손금만 봐도 무슨 어떤 질병이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암,질병,산소조상,가족,재판,교통사고)
- 전국 어디든지 출장 가능함
- 개인지도, 나이관계 없음
⊙ 스님 특별 개인지도
010-4014-8822




## 영가 찾는 법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
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
법을 알려드립니다.
- 무료공개강좌
– 서울 : 11. 30일(토) 오후 2시
– 대구 : 12. 2일(월) 오후 2시
[접수 053)944-3272]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
(철학관, 포교원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기 초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1.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2.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3.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4. 결혼이 못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5.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통신반 모집 ☞ 1번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교재 및 DVD)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우리은행)옆
대구출강 053)944-3272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 삼 보 양 초
삼보양초의 장점
1) 심지가 견고하며, 최고급의 파라핀으로 제작되며 그을음이 적으며 오래 탑니다.
2) 냄새는 맑고 향기로우며, 촛물이 깨끗하고 투명하다. (최상품의 삼보향초)
3) 신상품 금초는 모양이 아름답고 불빛이 찬란합니다.
삼보양초의 종류
1) 원기둥 홈초 (대) 1박스 20개 ..... 9만원
2) 돈타레 홈 (중대) 1박스 40개 ..... 9만원
3) 밀대 (중) 1박스 50개 ..... 8만원
4) 등신불 (소) 1박스 40개..... 9만원
5) 신상품 금초 1박스 40개..... .11만원
▣ 삼보양초는 종도사찰에 필수적인 물품들을 종단차원에서 공급하여
▣ 품질은 우수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주문은 편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불교용품상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택배비 포함)
▣ 전화로 주문하시면 택배로 바로 보내드립니다.

주 문 전 화 : 010-9421-0772
사업부계좌 : 농협 301-0121-9593-41 소원사
(사)대한불교삼보종 소원사

## 보 시
꿈과 노력이 있으면 성취할 수 있다지만
방법을 알고 있다면 더더욱 쉽게
성취 할 수 있겠지요.
부처님의 진리를 담은 전심법해
삶의 방식과 지혜로 부자되는 방법
참회하고 노력하여 부자되는 방법
언행일치로 참 행복 얻는 방법


4가지 책을 원하시면 전남 곡성군 옥과면 설옥리
설산 사자봉 사자암 송암스님
010-8224-1688 전화문의하세요.
책 발송을 원하시면 1만원 입금하시고
농협 : 351-0515-8213-93 예금주:사자암
책 받으실 법우님 주소를 문자 주세요.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접수일 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02)2004-8215
▷ 가 격 : 1회 - 기본규격 50,000원 / 가로 7cm 70,000원 / 가로 10cm 100,000원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서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탐욕으로 얽어매어 피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탐욕은 남도 해지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 법구경 -

## 삼 보 사 찰 안 내

상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은평구
- 법당 : 20
- 요사 : 20
- 포교원 1000/80

- 위치 : 의령
- 대지 : 목조25
- 법당 : 30방4개
- 대지 : 200
- 가액 : 4억

- 위치 : 포항
- 대지 : 200평
- 법당 : 10평
- 요사 : 5채방5개
- 가액 : 1억

※서울 경기 경남 부근 매도사찰 급히 구합니다.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전화 환영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사찰
- 목조법당54㎡ 요사채85㎡
- 토지 10.00㎡
- 수십년된사찰임
- 마을부근 위치좋음
- 양도금액2억5천만원

010-7347-1010(사찰전문)

## 토 굴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평수 : 315평
- 가액 : 5천만원
- 시설비 500만원 (삼존불 집기류 농기구 일체)
- 주위에 민가가 없고 아주 조용함
- 텃밭과 유실수 다량 있음

011-269-4168

## 포교원안내

- 위치: 군포역 7분 거리
- 4층 건물에 2층
- 보증금 4백만원 월 30만원
- 삼존불, 신중탱화
- 침실 및 공양간 별도
- 시설비 700만원

010-8781-0935

##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암1동 부근 파티마 병원 1층
- 평수 : 약 25평
- 보증금 3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700만원

010-8786-6148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남
- 부지 : 13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40평 외 2채
- 가액 : 6억8천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반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 칠보산 아래
- 산세 수려한 사찰
- 대지 324평, 인법당(40평), 창고(40평), 산신각
- 가액: 1억 5천만원(절충가능)
- 건강상 급 안내

010-2008-037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대출 1억 가능
- 가액: 2억 7천만원

010-8725-3196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주삼포 25평
- 요사 50평, 텃밭 약 천평
- 심야 전기
- 전세금 5천만원

011-9977-2140

##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 총평수 : 임야 2천평
- 법당 16평, 요사채 30평
- 가액: 1억 5천만원

010-3755-9304

## 사 찰 안 내

- 위치 : 세종시 5분거리
- 물 많은 문화재 고찰
- 대지 종교용지 전.답 임야 총 약 2만 5천평
- 건평 총 약 120평
- 가액: 직접 절충 가능

010-8787-2013

##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010-3426-9393(사찰전문)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 포교원(급)안내

- 위치: 안산 터미널 부근
- 대로변 2층 약 35평
- 삼존불 시설완벽
- 보증금1000만원, 월세 7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010-3111-9056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부안 내변산 입구
- 종교용지 130평
- 수목장 용지 10,00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 종각, 미륵석불, 저수지, 경관수려(소나무 숲)
- 가 액 : 2억 5천만원

010-6478-1569

## 포교원 안내

- 위치 : 구미시 오태동
- 3층 건물 중 3층. 옥상 사용
- 건평 약 36평, 법당 시설 완벽
- 방3, 화장실2, 주방
- 생활 아주 편함. 주차 편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천 7백 (약간조정가능)

017-217-1919

## 포교원 안내

- 위치 : 제주시 삼도 일동
- 지하 100평
- 관음, 지장, 소불 200불
- 보증금 500만원, 1년세 30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010-2464-4579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용지리
- 대지 60평
- 법당 30평
- 요사 30평
- 가액 : 1억 5천만원

010-3574-3303

## 사 찰 안 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큰도로변
- 2층건물에 2층 평수 60평
- 법당 30평, 공양간, 친견실, 침실 30평
-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
- 시설비 : 상담 후 절충
-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주세요
- 즉시법회가능

010-9396-7133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신암 2동 강남약국 건너편
- 3층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2878-3380

##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 문산 혁시도시 인근
- 총평수 400평 (전 300, 대 100)
- 건물, 슬라브 벽돌 요사채 (방5개) 법당 (어법히 잘 모셔져 있음) 15평 산신각 3평
- 가액: 1억 9천만원 (대출금 6천) 1억 3천 양도
- 주지 소임 관계로 급히 양도함

010-3563-0108

## 포 교 원 안 내

- 부산 가야초등학교 정문앞
- 4층건물에 2층, 20평 철학관도 호조건
- 삼존불, 후불탱화, 방2, 주방완비
- 몸만 오시면 됨
- 전세 3천 3백만원 월세없음 시설비 5백만원

011-9308-0857

## 토 지 안 내

- 위치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 뒤는 산 전 1094평
- 마을과 떨어진곳 조용히 계실분
- 도로, 전기 개울
- 건축허가 가능 싼땅
- 양도 3500만원

010-3288-1317

##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 (북영천 IC 5분거리)
- 평수 : 2천평, 2차선 접 관광버스 진입
- 시설: 법당, 요사채, 공양실, 주지실, 조경탑, 연못, 기도실(펜션형)
- 가액: 3억 + 융자
- 동양 최고의 명당절터로 최고의 기도터

054)334-4440

##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송파구 문정역 3분거리
- 5분내로 고속도로 진입 가능
- 4층건물 2층 45평, 방3, 주방
- 에어컨 2대 등. 포교, 철학 최적지
- 이천만원 월 140만원(6년운영)
- 시설비(無) 주차가은
- 몸만 오셔도 법회가능

02)762-0108

## 포교원 안내

- 위치 : 양산시 평산동
- 2층 건물 중 1층
- 평수 130평 • 법당 시설완벽, 방3
- 상시 온수 제공, 주차시설완벽
- 전세 3천만원, 월세 4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10-3574-3303
010-5667-5453

## 사 찰 안 내

- 종단사찰, 복지원, 요양원, 장례 결혼식장 가능
- 교통조건 매우 좋음
- 20억의 50 프로 확보된 분
- 년 후불도 가능

010-4880-7890

## 사찰(급)안내

- 위치: 서울 상계동에서 15분
- (별내신도시인근,주차장있음)
- 대500평, 건 147평(3개동)
- 2011년 재건축, 경관좋음
- 양도가격 : 17억 (융자 6억포함)

010-4299-5388 삼보

## 청 평 한 옥

- 대지 199평
- 건평 30평
- 방3, 욕실2, 거실, 주방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2억7 천 5백만원

010-9411-5302

##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 구포동
- 평수: 대지 47평, 3층 슬라브
- 3층법당 1, 2층 요사채
- 삼존불, 신중, 산신, 칠성탱화, 소불
- 가액: 1억 7천 5백만원 (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 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서대문구(북한산 밑)
- 평수 77평
- 법당, 삼성각, 방5개, 화장실 2개
- 텃밭, 창고 2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4천만원(조정가)

010-7466-7701

##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도심속에서 큰 포교당 운영하실 분 큰 뜻으로 포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제자 환영 인연자는 무량대복 받으소서

010-4071-3718
010-6328-6626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거제 중심부
- 대지 2013㎡
- 법당. 요사채 : 약 100평
- 후원, 창고 약 15평
- 주차공간 넓고, 경관 수려함
- 가액 : 8억 3천만원
- 직거래-부동산 사절

010-7582-0098

##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주택 독채
- 대지 80평, 포교원 월세
- 집2채, 방5개, 욕실, 거실, 화장실2, 입식부엌
- 마당에 정원석등 아주 넓음
- 법당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900만원(청동불상)

010-2251-3378

##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신림동 3층건물중 2층
- 석가모니, 관음, 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1, 주방1, 화장실
- 약 30평 도심속의 포교 최적지
- 보증금 200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월 77만원
- 시설비 (답사 후 절충가능)
- 20년 포교,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1-309-3535

## 포교원안내

- 위치 : 마산 3층 건물에 3층 (160평)
- 포교원 10년 한 자리
- 삼존불,후불탱화,법당, 종무소, 방4,
- 화장실(실내1,실외2)법당과 모든 방에는 난방필름 되어 있음
- 시설완비,불사소임관계 부득이 양도
- 옥상사용 주차장완비 일체민원없고 조용함
- 보증금 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협의
- 바로법회가능

055)221-5182


#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이자를 물고 계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33년 역사의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으로 늘 불교와 함께하는 은행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010-7314-2522

대출기간 기본5년(연기가능) / 근저당설정비 면제
제주도 포함 전국, 단체명의, 종단사찰 모두 가능 !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생각 텅 비우기

김상운 (기자)

# 무수한 생각은 '인생 연극' 소품…우주에 되돌려줘야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21세기북스 刊)은 내 안에 가득 쌓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유일한 비밀은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다' 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를 텅 비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27년차 앵커이자 기자인 저자는 저서 〈왓칭〉이후 더욱 깊은 취재, 명상, 체험을 겪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생의 착각에서 깨어나는 순간, 마음이 텅 비어지면서 심신의 병과 고민과 지능의 한계 등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이 저절로 텅 비어버리는 우주의 원리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본지는 이 책의 내용을 1회 발췌 ·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주〉



**생각은 머릿속에 가둬놓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되돌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걱정거리 4%만**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

### 생각은 떼어낼 수 없는가?

만일 생각이 '나' 라면 나로부터 떼어낼 수도 없어야 한다. 정말 떼어낼 수 없을까? 눈을 감고 잠시 당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이나 끔찍했던 장면을 떠올려보라. 천천히, 혹은 삽시간에 당신의 마음은 싫다는 생각으로 뒤덮일 것이다. 그 생각들은 깡그리 긁어모아 어마어마하게 큰 동그라미 속에 집어넣고 창공에 띄워라.

그런 다음 동그라미가 풍선이라고 상상하며 풍선에 '생각' 이란 딱지를 붙여라. 그 풍선이 바람을 타고 점점 멀어져간다. 멀어져가면서 축구공만 하게, 야구공만 하게, 구슬만 하게, 갈수록 작아진다고 상상하라. 나중에는 티끌만 하게 작아졌다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 텅 빈 공간을 잠시 주시해보라. 쥐죽은 듯 고요한 평화의 공간이다. 티끌 한 점 없이 텅 비어 있다. 방금까지 마음을 뒤덮고 있던 싫다는 생각, 끔찍하다는 생각들은 온데간데 없다. 이처럼 생각은 '나' 로부터 쉽게 떨어져 나간다. 즉, 생각은 '나' 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온종일 온갖 생각들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생각은 나' 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원래의 나는 텅 비어 있다.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한한 에너지가 응축된 무(無)의 공간에서 탄생한 에너지 덩어리다"라고 말했다. 그의 학문적 후계자이자 세계적인 양자물리학자인 런던대학의 데이비드 봄 박사도 "생각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피어오른다"고 했다.

생각은 무에서 조금씩 피어오르면서 점점 덩치가 커진다. 그러면서 점점 마음의 표면을 완전히 덮어버린다. 그 생각이 사라지면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 대부분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들이다. 이렇게 피어오르는 생각은 하루 평균 5만 가지나 된다. 이처럼 마음이 온통 생각으로 뒤덮여 있으니 '생각은 나' 라고 착각하는 게 당연하다. 마음에 가득한 생각들의 90퍼센트 이상은 부정적인 것들이다. 부정적 생각들을 품고 있으면 고통스럽다.

데이비드 봄 박사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생각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이 우리를 통제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생각의 통제를 당하고 사는 것은 표면에 떠오른 생각을 '나' 라고 착각해 내 머릿속에 가둬놓기 때문이다.

가둬놓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생각은 무에서 피어올랐다가 다시 무의 공간으로 스스로 되돌아간다. 내 마음의 문턱을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가뿐하게 드나든다. 생각은 나의 일부도, 나의 소유물도 아니다. 우주에는 무수한 생각이 떠다닌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TV와 라디오 주파수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나쁜 생각에 주파수를 맞춰 증폭시키면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고, 좋은 생각에 주파수를 맞춰 증폭시키면 좋은 생각이 가득하다.

이 무수한 생각은 인생이라는 연극을 위한 소품이다. 필요할 때 빌려 쓰고 나면 반드시 우주에 되돌려주어야 한다. 되돌려주는 데에는 어떤 특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다. 그저 머릿속에 가둬놓지 않으면 스스로 알아서 되돌아간다.

### 생각은 사실인가?

생각은 '나' 로부터 떼어낼 수 있을뿐더러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다. 이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봐도 금세 드러난다. 먼저 맛있는 음식을 상상해보자. 입에 침이 잔뜩 고인다. 침은 참으로 신비롭고 고마운 존재다. 음식을 씹을 때 침이 많이 분비돼야 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포도주 잔에 침을 조금씩 모아보자. 마침내 침이 한 컵 가득 찼다. 그 침을 꿀꺽꿀꺽 마셔볼 수 있는가? "으악!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나!"

왜 구역질이 날까? 그건 분명 당신의 입에서 나온 침 아닌가? 입속의 침이나 깨끗한 포도주 잔의 침이나 똑같은 것이다. 이건 분명한 '사실' 이다. 그런데도 포도주 잔의 침이 끔찍하게 생각되는 건 입 밖으로 뱉어낸 침은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깊은 생각을 못하는 동물들은 어떤가? 침을 손등에 발라 개에게 주면 꼬리를 치며 맛있게 핥아 먹는다. 침 속에 든 소화효소에 끌리는 것이다. 이처럼 생각은 '사실' 과는 분명히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나쁜 생각들은 더더구나 사실이 아니다. 우리 머릿속을 드나드는 생각들을 유심히 관찰해보라. 온갖 걱정하는 생각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생각들이 정말 쓸모 있는 것들인가?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걱정거리들을 조사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 걱정거리의 40%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다. • 걱정거리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다. • 걱정거리의 22%는 지극히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다. • 걱정거리의 4%는 걱정한다고 바뀔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 걱정거리의 나머지 4%만 실제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나머지 4%도 사실은 걱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걱정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가 하는 생각 대부분은 아무 쓸모없는 괜한 것들이다. 만일 생각이 '나' 라면 '나' 도 아무 쓸모없는 괜한 존재라는 이야기 아닌가? 이처럼 생각은 '나' 로부터 떼어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다. 더구나 괜한 걱정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은 '나' 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요모조모 꼼꼼히 뜯어보면 사실은 '나' 가 아닌게 자명해진다. 아인슈타인은 "생각도 지능을 가진 엄연한 독자적 존재다"고 말했다.

명상을 오래 한 사람들은 생각이 지능은 물론 감정도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강제로 짓누르면 오기를 부려 몸에 더욱 해가 된다고 한다. 이렇게 '나' 가 아닌 독자적 존재를 내 머릿속에 가둬놓고 사정없이 짓눌러대니 생각이 잠자코 있을 리 없다. 처지를 바꿔 만일 당신이 짓눌린 생각이라고 상상해보자. 예컨대 누군가가 당신을 작은 상자에 가둬놓고 고개를 쳐들 때마다 마구 짓눌러댄다면 어떨까?

"아야! 왜 날 짓눌러대는 거야?" 당신은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아 발악해댈 것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좁은 머릿속에 가둬놓고 인정사정 없이 마구 짓눌러대면 안 된다. 내 소유물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짓눌린 생각은 머릿속에 틀어박혀 두고두고 고통을 일으킨다. 몸에 독을 퍼뜨리기도 하고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화병, 우울증, 암과 같은 온갖 병들이 왜 끊임없이 발생하는가? 모두 짓눌린 생각이 그 뿌리이다.

### 되돌려주지 않으면 파리처럼 달라붙는다

당신이 단단히 금연을 결심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지난 사흘동안 담배를 꾹 참아왔다. 그런데 한 친구가 담배를 건네준다. "안 돼. 나 금연하기로 했어." "딱 한 대만 피우지 뭐. 까짓 한 대도 안 돼?" 당신은 잠시 고민한다. 작심삼일이 벌써 몇 번째인가? 그래서 이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굳게 마음먹는다. 그런데 구수한 담배 연기가 코를 자극하면서 그 결심도 조금씩 허물어진다. "그래, 딱 한 대만!" 결국 또 작심삼일이 돼버린다. 하지만 또다시 결심한다. '오늘부턴 세상이 무너져도 진짜 금연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다. 그런데 그날 직장 상사와 크게 다툰다. 상사는 당신에게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말을 내뱉는다. "그따위로 일하려면 직장 때려치워!"

당신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딱히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다.

'이런 수모를 받고도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하지만 내가 직장을 때려치우면 식구들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온갖 부정적 생각들이 머리를 가득 메운다. 인생이 서글퍼지고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진다. 문득 '담배나 한 대 피울까?' 하는 생각이 날아들어 당신을 유혹한다.

"마음을 달래는 데는 담배가 최고야." 당신의 발걸음은 어느새 담배 가게로 향한다. 왜 자꾸만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까? 이유는 간단하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우주에 되돌려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단지 금연하겠다는 의지로 머릿속에 꼭꼭 짓눌러왔을 따름이다. 그러니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들 수밖에 없다. 유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인 스탠리 블록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되돌려주지 않은 생각은 파리가 달라붙듯이 머릿속에 달라붙는다. 어떤 생각은 몇 년간, 심지어 평생 들러붙어 고통을 준다."

'담배를 피우고 싶다' 는 생각이 달라붙어 있으면 골초가 된다. '술을 마시고 싶다' 는 생각이 달라붙어 있으면 골초가 된다. '술을 마시고 싶다' 는 생각이 달라붙어 있으면 술고래가 된다. 걸핏하면 버럭버럭 화를 터뜨리는 사람들도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다. 단지 우주에서 빌려 썼던 화를 되돌려주지 않고 머릿속에 품고 있을 뿐이다.

화는 화를 끌어들인다. 그래서 누가 슬쩍만 건드려도 폭발한다. 마찬가지로 머릿속에 이미 게으른 생각이 들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게을러지기 쉽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찮은 일조차못하게 된다.

### 달라붙은 생각이 인생을 망친다

잘못 선택한 생각을 붙들고 사는 경우는 너무나 많다. 당신이 이성 친구와 어떻게 멋진 주말을 보낼까 궁리 중이라고 생각해보자. 때마침 재미있어 보이는 영화 광고가 눈에 띈다. 당신은 반가운 마음으로 영화표를 산다. 그런데 막상 영화관에 들어가 보니 전혀 딴판이다. 영화가 영 재미없다. 참고 보자니 시간이 아깝고, 안 보자니 돈이 아깝다. 어떻게 하겠는가? 선택할 수 있는 생각은 2가지다. 첫째, 영화표가 아까우니 참고 본다. 둘째, 차라리 영화를 포기하고 더 재미난 일을 한다. 아마 첫 번째를 선택했을 것이다. 우리는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

결론은 자명하다. 보기 싫은 영화를 참고 보면 재미있게 쓸 수 있는 시간을 괜히 더 낭비하는 것이므로 2가지를 낭비하는 셈이 된다. 게다가 싫다는 감정을 꾹 억눌러야 하는 감정 낭비도 있다. 따라서 과거에 선택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파악하는 순간 즉각 털어버리는게 낫다. 그 생각은 '나' 가 아니므로 아무 미련도 가질 필요 없다.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으면 손해만 늘어난다.

인생은 과거의 쓸모없는 생각들을 담아두고 살기에는 너무나 짧다. 투자한 돈이 아깝다고 따분한 영화를 볼 시간은 없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순간이 돼야 한다. 머릿속에 미래의 생각을 잔뜩 집어넣고 사는 것도 역시 불행이다. 몸은 현재에 살고 있는데 머릿속은 과거나 미래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나' 는 둘로 쪼개져 있는 것이다. 하나를 이루는 덩어리가 몸 따로, 마음 따로 쪼개져 있으니 자연히 고통스럽다. 예수도 제자들에게 "걱정을 한다고 너희 인생에 단 하루라도 보탬이 되느냐?"고 물었다. 부처도 현재의 순간에 몰입하는 것이야 말로 지극한 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누누이 가르쳤다.

정리=이나은 기자

김상운은



27년간 MBC 보도국 기자로 일하고 있다. 회사 영어시험에서 1등을 하는 바람에 주로 국제부에서 경력을 쌓았고, 경제부, 정치부 등을 거쳐 워싱턴 특파원, 국제부장 등으로 활동했다. 한국외국어대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했고 MBC 입사 후 보스턴 대학원 연수 중 국제정치학/커뮤니케이션 석사학위를 받았다(최우수논문통과). 평소 세계사, 건강상식, 과학상식에 관심이 많아 꾸준히 책으로 저술하고 있다. 저서로는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건강상식사전〉〈30대 영어혁명〉 등이 있다.

이 글은 '21세기북스' 에서 펴낸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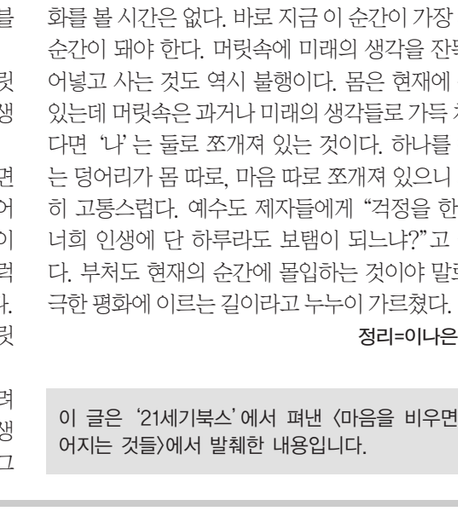
| 지 사 명 | 지사장명 | 연 락 처 |
|---|---|---|
| 부 산 지 사 | 박 경 수 | 010-9819-8345 |
| 대 구 지 사 | 손 문 철 | 053)768-8008 / 010-2813-8008 |
| 광주전남지사 | 양 행 선 | 062)384-3009 / 010-2629-1508 |
| 전 북 지 사 | 조 동 제 | 063)910-8977 / 011-9642-7733 |
| 영 주 지 국 | 박 영 애 | 054)634-3429 / 010-9373-3778 |
| 경남 남부지사 | 청운스님 | 055)746-9778 / 011-870-0021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신하가 왕보다 더 큰 천상의 즐거움을 받다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7)

### 수제가의 과보

옛날 수제가라는 한 장자가 있었다. 그의 창고는 금과 은 보배로 가득했고, 남종과 여종이 줄을 이루어서 모자란 바가 없었다. 어느 날, 흰 수건 하나를 못가에 걸어두었는데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와 수건이 국왕의 정전 앞으로 날아갔다. 왕은 여러 신하들에게 점을 치게 하며 그 까닭을 묻자 신하들이 말했다.

"나라가 장차 흥성하려 하여 하늘에서 흰 수건을 내리신 것입니다."

신하 수제가가 잠자코 말이 없자 왕은 물었다.

"경은 어찌 말이 없는가?"

수제가는 대답했다.

"감히 왕을 속일 수 없어서입니다. 그것은 신의 집에서 몸을 닦는 수건으로 못가에 걸어둔 것이었는데 바람이 일어서 정전 앞에 날아 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아홉 가지 색으로 된 수레바퀴만 한 꽃이  또 하늘에서 바람이 일어나 왕의 정전 앞으로 날아왔다. 왕이 다시 신하들과 함께 점을 치게 하며 묻자 수제가가 대답했다.

"그것은 신의 집 동산에서 시들어 떨어진 꽃인데 바람에 날아왔을 뿐입니다."

왕은 수제가에게 물었다.

"경의 집이 과연 그러하단 말이오? 나는 20만의 대중을 거느리고 경의 집에 가소 구경하고 싶소."

수제가는 대답했다.

"원하신다면 함께 가시지요."

왕이 20만 대중을 거느리고 수제가의 집에 이르러서 남쪽 문으로 곧장 들어가니, 서른 명의 사내아이들이 있었다. 왕은 수제가에게 물었다.

"이들은 경의 집 아들인가?"

수제가가 말했다.

"이들은 신의 집에서 문을 지키는 남종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각에 이르자, 스무 명의 여자아이들이 있었다. 왕이 수제가에게 물었다.

"이는 경의 집의 딸들인가?"

수제가는 대답했다.

"이들은 신의 집에서 중각을 지키는 여종들입니다."

더 나아가 지게문에 이르렀더니 백은으로 된 은벽과 수정으로 이루어진 땅이 있었다. 왕이 물이 흐른다고 여기고는 의심하며 나아가지 못하자, 수제가가 이내 왕을 인도하였으므로 지게문 안으로 나아갔더니, 황금으로 만든 평상과 백옥으로 만든 책상이 있었다. 수제가의 부인은 120겹으로 된 금은의 장막에 있었다. 그때 왕에게 예배하는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자 왕이 물었다.

"경의 부인은 나를 보면서 무슨 언짢음이 있기에 눈물을 흘리는가?"

부인이 대답했다.

"왕의 옷에 묻은 연기 때문입니다."

왕이 말했다.

"서민은 기름을 사르고, 제후는 밀납을 사르고, 천자는 옻을 사르므로 역시 연기가 없는데, 어째서 눈물이 나올 수 있는가?"

수제가는 대답했다.

"신의 집에는 하나의 명월신주가 있어서 당상 위에 걸어 놓으면 밤낮이 다르지 않아 불빛이 필요 없습니다. 왕은 연기 속에서 사는 왕이므로 부인은 아주 작은 연기 기운도 견딜 수 없음에 그러한 것입니다."

수제가의 집 앞에는 열두 겹으로 된 누각이 있어서 왕을 데리고 끝으로 올라갔는데 동쪽으로 보고 있으면 서쪽을 잊어버리고, 남쪽을 보고 있으면 북쪽을 잊어버렸다.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갔다. 왕이 잠깐 동안은 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후원의 흐르는 샘과 목욕하는 못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먹으니 달고 맛있었다. 왕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느 덧 수제가의 집에 머문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자 대신들이 왕에게 말했다.



삽화 · 강병호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수제가가 이내 금은의 값진 보물과 두껍고 얇은 비단과 무늬가 화려한 비단을 보시하자 20만 대중들은 말과 수레를 타고 일시에 궁으로 돌아갔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이내 신하들을 모아 놓고 말했다.

"수제가는 나의 신하이다. 어찌 신하의 사택이 나보다도 훨씬 더 크며, 창고의 보물이 더 많으며, 거느린 종들이 나보다 더 많을 수 있느냐? 신하들은 어찌 생각하느냐?"

여러 신하들이 말했다.

"뺏으셔야 합니다."

왕이 이내 40만 명의 대중들과 함께 종을 치고 북을 울리면서 수제가의 집을 포위하고서 백 겹의 담장을 허물어뜨렸다. 수제가의 집 문 안에 한 역사(力士)가 있다가 손으로 금 지팡이를 붙잡고 40만 명 대중을 한 번 가리키니 한꺼번에 모두 거꾸러지면서 잠든 것처럼 땅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수제가는 하늘을 나는 구름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사람들에게 물었다.

"올 때는 무슨 뜻이었기에 잠든 것처럼 땅에서 일어나지 못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를 말하자 수제가가 물었다.

"얼어나고 싶으냐?"

사람들이 말했다.

"일어나고 싶습니다."

수제가가 크고 거룩한 눈을 뜨고 한 번 훑어보자 40만 명 대중들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의 본국으로 돌아갔다. 왕은 이내 사신을 보내어 수제가를 불러서 함께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수제가는 저의 신하인데, 전생에 무슨 공덕이 있었기에 재물과 거느린 식솔들이 저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수제가는 보시한 공덕으로 천상의 즐거움을 받고 있다. 그는 옛날에 5백 명의 장사꾼 우두머리로서 여러 장사꾼들을 데리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빈 산 속을 가다가 한 병든 도인을 만났다. 그에게 풀집을 지어 주고 평상과 이부자리를 두텁게 깔아 주었을 뿐 아니라 물과 솔과 양식을 대주고 등축을 주면서 천당의 공양을 원하였으므로 이제 그 과보를 얻은 것이다."

다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에 보시한 이가 지금의 수제가 부부이며, 그때에 병든 도인이 지금의 내 몸이다. 5백 명의 장사꾼들은 모두가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수제가경〉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상〉에서 발췌 재구성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 바라밀 일기 ㊼



# 더불어 사는 일

### 스마트폰 세상

요즘은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기차를 타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 곁에 앉은 친구도 보지 않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혼자 스마트 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며 스마트폰에 열중한다. 사람은 사람과 놀며 대화해야 서로가 소통하며 또 이해하게 되고 함께 즐길 수가 있는데, 어쩌다 요즘은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을 그 전 만큼 볼 수가 없다. 심지어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랠 때도 아이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준다. 울던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게임에 몰두한다. 급한대로 아이를 달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곧바로 중독이 되기 쉽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엄마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가족이 한 집에 있어도 대화하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홀로 놀고, 겨우 식사시간에만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너무 쉽게 살려고만 하는 것 같다. 어려움도 경험하고 기쁜 일도 함께 하며 괴로울 때 하소연도 하며, 가족과 친구 등 주변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라면서 알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요즘 육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싸움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한다. 아이들이 너무 즉흥적이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점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아이들의 인성이 점점 메말라 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스마트폰이 편리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옛날에는 만남의 장소마저도 어떤 건물 앞에서 시간을 정해 만났지만 지금은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마음을 표현 할 수도 있고 연락도 아무 때라도 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으로 인해 편리한 세상이 되었다. 이보다 더 편리 하고 고마울 수가 또 있을까 싶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임을 생각할 때, 소통이란 명제를 떠올려야 할 것이다. 그 소통이라는 것이 스마트폰만으로 소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해야 하고, 말없이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말해야 하고, 서로 활짝 웃는 얼굴을 보고 말해야 하고, 서로 따뜻한 손을 마주잡고 말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임이 어쩔 수 없다면 손편지를 쓰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신의 마음을 말이 아닌 글로 전달하기 위해선 생각도 많이 해야 하고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 정제된 생각을 글로 옮기다보면 사색의 깊이가 넓어지리라 생각된다.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살기가 힘들어진 세상이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놓고 편지지 위에서 펜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

**스마트폰 대신 손편지를…**
**스님의 원력과 불사에 고개 숙여져**

### 혜인 스님의 불사

혜인 스님께서 제주도 약천사 주지 이취임법회에 초대했다. 스님과는 옛날부터 일타 스님의 문하에서 집안 식구처럼 편하게 지내는 사이다. 나는 도반들과 함께 가기로 했다. 비행기가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부터 코끝의 공기부터가 달랐다. 신선함으로 가슴이 툭 트이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었다. 우리는 간단한 저녁 공양을 마치고 약천사 절로 갔다. 절 입구부터 주렁주렁 열려있는 하귤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다. 약천사,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도량이다. 도량을 보며 대작불사를 이룬 혜인 스님의 원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약천사의 대가람을 이루기까지 회주 혜인 스님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나는 잘 알고 있다. 스님의 나이 30대 후반 무렵 "제주도에는 큰 절이 없어 외지의 관광객들이 들릴 곳이 없으니 내가 경주 불국사와 같은 관광 사찰을 지어 참배 할 수 있는 절을 이루어 놓고야 말겠다."고 했었다. 그때는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으로 웃고 말았는데 육지도 아닌 섬, 제주도엔 모든 것이 배가 아니면 비행기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 있는데도 개미처럼 하루도 쉬지 않고 불사를 이루어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빠른 시일 이내로 일구어놓은 대작 불사이기에 볼수록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스님께서 젊은 시절 팔만대장경각에서 백팔만 배 절을 하신 그 큰 원력과 가피로 무엇이던 할 수 있었던 일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지금도 어디를 가시든 새벽에 일어나면 그곳 장소에서 백팔 배를 하는 것만은 빠짐없이 하는 신심 견고 그대로임을 보게 된다. 그래서 무엇이던 원을 세우면 바로 실천하는 두려움이 없는 소신으로  단양 광덕사를 지어셨고 또 제주도시내에 룸비니 동산까지 개원하게 된 것이리라. 11월 9일, 약천사 주지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다. 새 주지는 성원 스님이다. 마침 수덕사 조실 설정 큰 스님과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 충주 석종사 혜국 스님, 은해사 주지 돈관 스님 등 많은 스님들이 오셔서 더욱 자리를 빛내주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법당을 꽉 메우고도 바깥마당까지도 가득 찼다.

많은 내빈들이 축사를 했고 성원 스님은 원대한 서원으로 답했다. 법당 밖에는 제주시 각처에서 초대되어 오신 노인들이 마당 가득 채워  춤과 노래로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많은 스님들이 공양하시는 한 편에서 우리도 공양을 마치고 룸비니 동산으로 따라 나섰다. 제주 시내 쪽에 있는 그 넓은 땅에는 꽃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도량을 걸으면서 명상 할 수 있는 법성도의 길도 만들어져 있었다. 작은 누각 바로 앞엔 53선지식의 자리도 마련되어 있었다. 대단한 일이다. 작은 거인 혜인 스님. 거듭 스님의 원력과 불심에 고개가 숙여졌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아미타불 성지 금강산 건봉사
12월 8일 만일염불 2차 3년기도 입재



〈금강산 건봉사 등공 기념탑〉

만일 (27년 5개월)동안 염불 수행을 목적으로… 살아서는 행복한 삶을 위하고, 죽어서는 극락왕생 할 것을 기원하는 만일염불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입재 : 2013.12.08 일요일 10:00
회향 : 2016.12.07 수요일 10:00

금강산 건봉사 만일 염불 2차 3년기도 입재 안내



■ 입 재 : 새로 접수하신 불자님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6시 부터 새벽4시까지  철야기도로 입재 합니다.
■ 장 소 :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만일염불원
■ 기도 동참금 : 월 3만원 (일가족 동참)
■ 계 좌 번 호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건봉사〉
■ 접 수 : 건봉사 종무소 033)682-8100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6시 부터 만일염불 철야기도 봉행
* 버스운행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조계사 앞 단체 버스 출발  건봉사 행 단체버스 예약 (종무소 033-682-8100)
* 매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나무아미타불 염불수행이 끊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새로운 나! 그리고 희망! 금강산 건봉사 "괜찮아" 템플스테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로 723 ☎ 033)682-8100 / 팩스 033)682-5994

대한불교조계종 적멸보궁 금강산 건봉사 주지 정현 합장



대행 스님



# 이름 쫓는 노예 되지 말고 여러분의 주장자를 세우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러니 여기서 밝게 켜는 그 장본인의 자가발전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지 딴 데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의 주인은 여러분이고, 또 그 지구는 우리의 집입니다. 그 집과 주인과 둘이 아닌 까닭에 지구에서도 대기권이 있고, 나쁜 거는 레이더망이 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개발되어 알게 되고, 천문학으로써 그걸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인간에게도, 이 허공에 오고 가는 그 길에도 그저 모습 없는 모습, 생명들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세계에 그 많은 내 생명들, 내 모습, 내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저항력을 가지고서 밀 건 밀고 당길 건 당기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정리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죠. 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발바닥이 이 땅에 붙고요. 붙어서 걸어 다닐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재료는, 어저께도 얘기했죠?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우리한테는 그것이 적게 쓰이든지 많이 쓰이든지 그게 재료라고요. 그 네 가지를 끌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그 자력의 재료를 그냥 여기 모두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두서없이 말은 했지만 여러분이 살림살이도 두서없이, 체계 없이 체계를 세우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실상이며 살림살입니다. 금방 가만히 앉았다가도 금방 얘기를 듣고선 뛰어나가야 하는 이런 그 체계 없는 살림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정연하게 체계가 서 있는 이 살림살이.

그래서 도둑이 말입니다, 지키는 사람, 물건 가지고 싣고 가는 사람, 훔치는 사람 이게 다 도둑놈으로 몰려 가지곤 전부 붙잡혀 가더군요. 그러니 계 준 사람이나 계 받은 사람이나, 허허허, 그 뜻을 바로 설하는 그 법설! 그것이 한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장땡입니다. 그러나 학설로 이론적으로 방편으로만 하는 이 오계 설법은 한데로 떨어져서 땅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공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북하면 달마 대사가 양 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는 그냥 약사발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죽일 거 같으면 벌써 알고 있을 텐데도 거짓말을 못해서 그대로 말을 해 가지곤 약사발을 받은 거 아닙니까? 달마 대사는 죽을 거를 생각하면서도 그 약사발을 받은 거, '나는 온 곳이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 즉, 살았다는 언어가 붙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는 언어도 붙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달마 대사는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약사발을 안겨서 죽여서 갖다 묻은 자리에 신발 한 짝을 남겨 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자에 신발 한 짝을 꿰어서 어깨에 짊어진 채 바로 그 사신한테 보였습니다. 양 무제가 심부름시킨 사신한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던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산 것도 없고 죽은 것도 없고 항상 밝고 항상 살아 있다는 걸 증명해서 보이느라고 말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은 이게 공덕이지 너희가 그렇게 살고 너희가 그렇게 욕심내고 너희가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공덕이 못 된다고 죽어서도 가르치곤 했죠. 얼마나 멋쟁이입니까. 그래서 그 멋쟁이를 비유해서 낚싯밥으로써 공부하는 학인들한테 던졌던 거죠. "달마 대사가 중국에 온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말입니다. "달마 대사는 왜 턱에 수염이 없느냐?" 뭐 별것 다 붙인 거죠. 그 멋쟁이한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멋쟁이로 삽시다.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간으로서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정말입니다. 자기 양심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죽인대도 두려울 게 없고 살린대도 뭐, 좋을 것이 없고 항상 중심을 가지고, 평등을 가지고 항상 두루하면서 굴리면서 자기라는 걸 쑤욱 빼 버리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부 나 아님이 없고 둘이 아닌데….

아니, 엊그저께도 얘기했죠. 여러분은 한 몸의 이름이 엄마도 되고 또는 며느리도 되고 딸도 되고 또는 아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많을 뿐이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많을 뿐이니, 그 이름에다가 믿음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 요기 놓고 요기 놓고 요기 놓고 저기 놓고 그 이름에다가 놓고 빌면서 여러분은 기복을 하고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의 이름이 엄마라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바로 아내라는 이름이 있고 딸이라는 이름이 있고 며느리라는 이름이 있고 형제라는 이름이 쭈욱 이렇게 있으면 따로따로 너희는 믿어라 그럴 겁니까? 부처님도 그 뜻을 가르치느라고 문수를 해 놓고 보현을 해 놨는데도 그 뜻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현은 보현대로 문수는 문수대로, 관세음보살은 관세음대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고, 아미타는 아미타대로 미륵은 미륵대로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아요. 이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수십 년을 가도 아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간 데 없이, 죽고 살고도 없이 언제든, 이 몸을 벗더라도, 안 벗더라도 그냥 끝간 데 없이 그냥 여러분과 같이 지내렵니다 하는 것도, 바로 나의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길입니다. 나그네의 길이 그런 길이지 뭐, 다른 겁니까? 가다가다 여러분 만나면 둘이 아닌 까닭에 같이 웃게 되면 같이 웃고 울게 되면 같이 울고 아프면 같이 아프고 이렇게 가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실되게, 한마디 한마디 할 줄 모르는 말 하더라도 진실되게 알아들으시고, 여러분도 이론으로만 알 양으로 빠득하게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실되게 그 행을 하는 데에 역점을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지, 그래야만이 내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 이름을 따라서 쫓아다니면서 기복으로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의 마음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무겁게 두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디디면서 진실되게 나가신다면 이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게 그냥 쌉쌉하고 얍삽하고 이론이고 그렇게 빌고 그러는 게 불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부처님은 석가라는 인가를 받고 이 세상에 나와서 49년을 설했고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한 명이 없어도, 그 보이지 않는 중생들을 놓고도 항상 설하셨단 말입니다. 잘 때도 설하고 앉아서도 설하고 서서도 설하고, 갈 때도 설하고 똥 눌 때도 설하고 먹을 때도 설하고, 일분일초도 틈을 안 주고 설했단 말

☞ 3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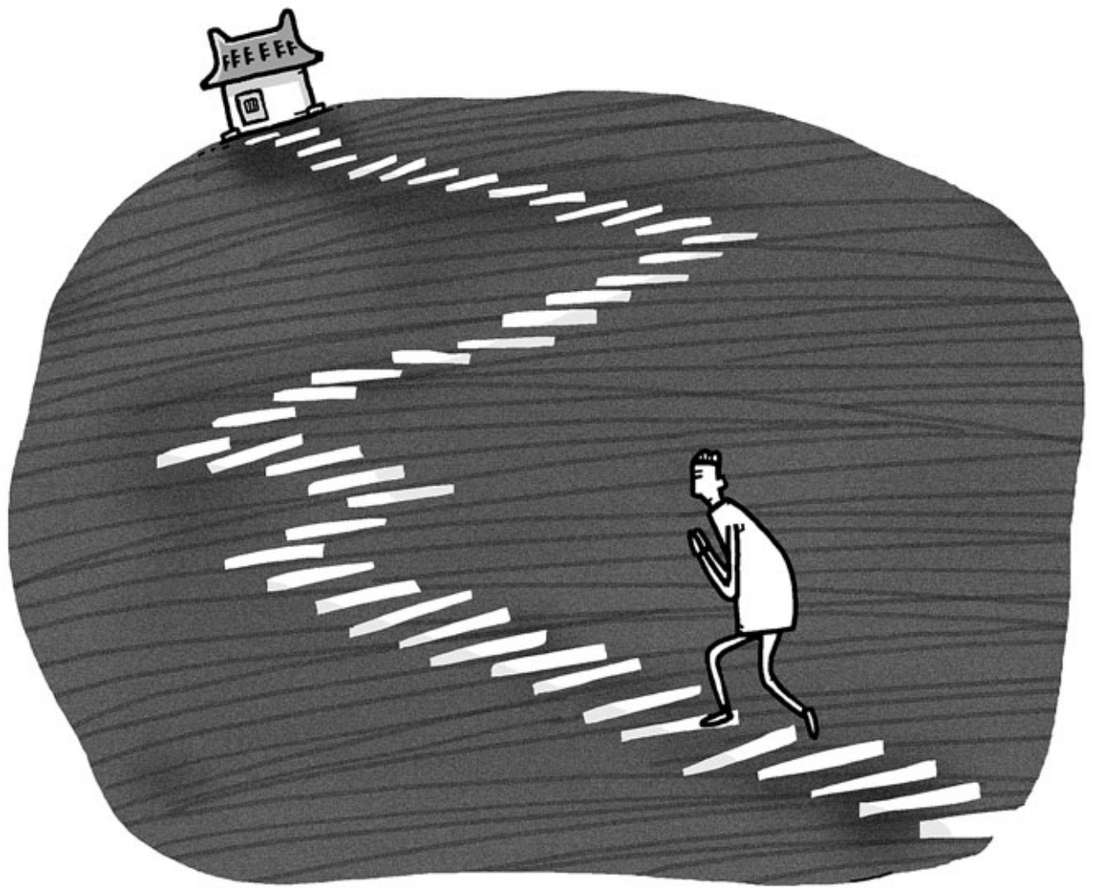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현대불교 현불샵**

# 한걸음 한걸음 무겁게 디디면서 진실되게 행해나가야

☞ 29면에서 계속

입니다. 그래서 입선이요 와선이요 묵선이요 또는 좌선이요 행선이요, 이런 것이 그대로 한데 합쳐서 참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이름을 따라서 좇아다니면서 노예가 되지 마시고 참여러분의 그 주장자를 세우고, 주장자가 없다면, 예전에 임제스님께서 "너희들이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너희들의 주장자를 뺏을 것이로되, 너희들이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희들한테 줄 것이니라. 만약에 너희 집이 주장자가 비었다면, 주인이 없다면 그 속에서 거미나 모든 벌레들이 전부 그냥 거미줄을 치고 곰팡이가 나고, 빈집이기 때문에 그냥 털구멍으로 드나들면서, 그렇게 만 중생들이 드나들어도, 코를 통해서 드나들고 구멍 뚫린 데마다 드나들어서 그렇게 집을 망가뜨려도 너희들은 어느 뭐가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느니라." 집이 비었으니까 썩어 들어가도 모르고 쓰러져도 모르지. 여러분의 병고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도 아마 그게 해당됩니다.

오늘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건 끝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을 한 분 한 분 받겠습니다.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오늘 들은 거, 여러분이 책 보시고 카세트를 들으시고 이래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사회자**: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오늘 큰스님께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그쪽에 있으니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면 큰스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다.

**질문자1(남)**: 저의 이름은 OO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먼 길을 오시고 좋은 법문을 주시고 스님은 멀리 계시지만 제가 저를 찾는데 좋은 안내자가 항상 되어 주시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스님께서는 신통력을 많이 사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앉은뱅이를 고쳐 주시고, 돈을 좀 벌게 해 주시고, 그리고 스님 말씀하시기는 그 신통력이 자기 주인공을 찾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면으로 볼 때는 그 신통력을 사용하시는 스님 자신이 어떤 기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은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여러분한테 나는 신통력이 있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신통력을 부린 예도 없습니다. 단 하나 있다면 길잡이로서, 때에 따라서 급하면 여러분이 주인공을 그렇게 믿고 애원을 할 때, 날더러 그렇게 길잡이로서 가르쳐 달라고 와서 얘기를 해 줬을 때 나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잡이로서 그 마음을, 그 주인공을 한 찰나에 믿고 진실하게 거기다 애원했을 때에, 나도 거기 같이, 둘이 아닌 까닭에 내가 바로 여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는 내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며 마음은 전달함이 없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전기를 올리면 가는 사이 없이 저기서 불이 켜지듯이, 전력을 우리가 마음대로 크면 큰 대로 끌어 쓰듯이, 작은 모터를 돌릴 때 작은 전력이 올 것이고 큰 모터를 돌릴 때는 큰 전력이 올 것입니다. 그 큰 모터만 해 놨다면 큰 전력이 올 것이고 작은 모터를 달아 놨다면 더 큰 전력을 끌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은 모터대로 전력을 쓰겠죠.

그렇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라도 자기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할 때 '스님! 감사합니다.'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 길잡이 생각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건 하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 바로 자기가 되는 건데, 내가 무슨 신통력이 있소? 신통력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있겠지. 그거를 바로, 신통력을 당신네들이 생활에서 씀씀이를 가지라고, 굴리라고, 바로 그것으로써 당당하게 일어나라고…. 반야심경에도 있듯이, 그 여러분의 주문은 바로 자기 찾는 데의 주문이다 이거야. 아, 그래서 자기가, 바로 내가 자기가 되는 건데, 순간에. 그런데 둘이라야 뭐, 신통력을 이쪽으로 주고 저쪽으로 주는 거지, 자기가 그냥 하는데 무슨 신통력이 거기 붙고 안 붙고가 어디 있나? 신통력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거라고. 응? 그러면서도 언어도 붙지 않고 가고 옴도 없고 전달함도 없이 그대로 여여하게 당당한 것은 바로 이 도법이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주인공만이 여러분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이날까지,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도 그거 못 알아듣나요? 허허허. 나는 여러분의 길잡이라고 그렇게 해도,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 둘이 아닌 까닭에 항상 나라는 거를 빼고 살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공했다고. 여러분이 병이 났다고 할 때에 "스님! 나는 지금 애가 이렇게 아픕니다." 할 때, 그러면 이것저것 여러분이 다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것이, 어떤 분이 될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난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의 선사들이 '무(無)!' 했던 겁니다. 너무 많이 찰나찰나 그냥 돌면서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해서 붙이겠습니까? 네? 그러니 '무' 했던 거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손 하나 번쩍 들었던 겁니다. 말없이 하나는 (왼손 엄지와 검지를 붙여보이시며) 이렇게 했고 하나는 (왼손 검지를 펴 들어 보이시며) 번쩍 들었어요. 자기 발로 그 땅을 디뎠고, 바로 자기 손으로 (왼손 검지를 펴 들어 보이시며) 지붕을 받치고, 손으로 이 세상을 (왼손 엄지와 중지를 붙여 보이시며) 굴렸다 이 소립니다. 그랬는데, 말도 없었는데 무엇으로 부처님은 신통력이 있고 또 스님도 신통력이 있고 그렇다고 누가 말을 했던가요? 그렇게 광대무변하고 이 우주 천하를 그냥 한숨에 요리를 해서 탁 탕! 그 근기대로 먹여 주셨는데. 그릇대로 담아 줬단 말입니다.

내가 엊그저께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바다의 물이 수증기로 해서, 즉 말하자면 비가 오면 골짜기 물이 돼서, 도랑물이 돼 가지고 바다로 흘러서, 그 바다로 흐르는 물은 핏물, 고름물, 구정물, 맑은 물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바다로 모여서 그것이 수증기가 돼서 다시 비가 올 때, 독사가 그 빗물을 먹으면 독사가 되는 것이고 풀이 먹으면 풀인 것이고 또 초목들이 먹으면 초목인 것이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인 것이다. 그러니 그 빗물은 똑같지만 먹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 이 소립니다. 그렇게 그릇대로 먹여 주는데, 적셔 주고 먹여 주는데 뭘 어떻게 '내가 신통력이 있다.' 그럴 수 있나요? 저 태양이 지금, 내가 이렇게 신통력이 있다 이러던가요? 오히려 신통력이 있고 신통력이 없고 간에 당당하고 떳떳한 사람은 신통력이 있다 없다 그 언어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어저께도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거니와 역대 조사들도 그렇고 나 역시 그렇다 이럴 때, 만약에 달마 대사가 사람들 사는 데에 큰 구렁이가 나와서 서리고 있으니 그걸 멀리 끌어다 놔야겠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달마 대사가 구렁이가 됐던 겁니다. 잠시 잠깐 구렁이가 돼 가지곤 구렁이를 끌고 저 멀리 갖다가 던져 놓고선 다시 그 옷을 벗고 나와 가지곤 자기 옷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 자기 옷을 누가 입고 갔더랍니다. 입고 간 놈은 누구고 또 뺏긴 놈은 누구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공부를 시키느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나툼! 즉 말하자면 옷을 벗고 입고 하는 나툼을, 이게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건 방편을 쓴 거지, 달마 대사가 어디가 모자라서 옷을 뺏깁니까? 허허허…. 아이구, 참 내! 그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앉아서도 달마 대사가 수천수만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하나로도 될 수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어째서 옷을 뺏깁니까? 도둑놈이 자기 옷을 입고 갔대요. 그러는데 옷을 입고 간 놈도 그놈이지만 그 뺏긴 놈도 그놈이죠. 달마 대사예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썼던 거죠.

그래서 "중국에 온 까닭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저 높은 계단을, 우리 지금 집에 계단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단에 올라온 까닭이 뭐냐고 여러분한테 물으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이 계단에 올라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런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내려가는 까닭과 올라오는 까닭이 둘이 아니었던 까닭에 나는 그냥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사람이니까 말없이 발로 퉁퉁 굴렀대요, 옛날에. 이런 말까지 해 줘서 잘 못될는지 또 모르죠. 여러분이 또 알지도 못하고 이론으로만 알아 가지곤 그냥….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 적은 데서부터, 여러분이 사는 데 생활 속에서 그 뜻을 잘 알아보세요. 동쪽 서쪽이 둘입니까? 한국에 가니까 동쪽이 이쪽이고 서쪽이 저쪽이던데 여기 와 보니까 동쪽이 또 어딥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동쪽도 서쪽도 둘이 아니며 여자 남자도 둘이 아니니라. 높은 산 얕은 산도 둘이 아니요, 봄 가을도 둘이 아니니라.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에 모두 같이, 근본은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도 마저 없느니라.' 이 뜻을, 깊은 뜻을 잘 아시려면 그 작업부터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인공, 그 허공과 같은 주인공의 그 그릇은 비어서 항상 넣어도 그냥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광로에서 다시 생산이 돼서 쓱쓱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그 작업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또 자가발전소도 되겠죠.

그러면 질문 또 하실 게 있습니까? 내가 너무 혼자만 말을 해 가지고…. 왜 나만 말을 하게 합니까? 다 똑같은 사람, 코 달리고 눈 달리고 그랬는데 말입니다. (잠시 후) 그만 하라고? 허허허.

그래, 여기 스님네들도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길잡이로서는 훌륭한 스님네들입니다. 이론으로서 학술적으로서 거짓되게 사는 중들 백 개를 갖다 놔도, 천 개를 갖다 놔도 하나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랑하면서, 또 우리가 생활로서 따진다면 내 동생 같고 내 아들 같고 내 딸 같고 이렇게, 아주 자비한 넓은 마음으로서 항상, 내 언니 같고 또 내 형 같고,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간다면 얼마나 화목하겠습니까? 높이 올린다면 또 둘이 되고 거북하고, 너무 내린다면 또 거북하고 또 안 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가야만이 우리가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걸로써 마치겠습니다. 그러니 요다음에 이월 그믐께나, 삼월달에나 또 다시 오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만날 때까지 여기서 이 스님네들의 인도를 받아 가면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여기는 충전될 전력이, 광력이, 자력이 풍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멋쟁이로 삽시다.
> 당당하고 떳떳하게 인간으로서 진실하게 산다면
>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 정말입니다.
> 자기 양심이 진실하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위 법문은 1990년 12월 9일 국외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판 일주일 만에 2쇄 발행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의 직지에 대한 단상



천문학자 이시우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불교의 정수가 담긴 《직지》를 연기론적으로 풀어낸 《직지, 길을 가리키다》.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던 선(禪)을 논리적으로 풀어내어, 누구나 쉽게 《직지》에 다가갈 수 있다. 《직지》에 담긴 게송과 선문답에 대한 촌철살인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시공을 초월한 지혜를 열어줄 것이다.

■ 이시우 지음 / 648쪽 / 29,500원 / 신국판 변형 양장

직지直指, 길을 가리키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르침, 선불교의 정수 《직지》
선불교는 더 이상 풀지 못할 미지의 세계가 아니다.

Tel. 02)732-2403~4 민족사

붓다에게 배우는 행복하게 사는 법

붓다의 인생 코칭



■ 우에니시 아키라 지음 · 유윤한 옮김 / 신국판 / 10,800원

불교는 현실적이지 않다??
붓다가 일러주는 직장인을 위한 자기계발의 지침서



비즈니스를 할 때에 감정이 얼굴에 쉽게 나타나는가? 상사와의 갈등에 괴로운가?
현대사회는 수없이 많은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기에 정확한 결단이 매순간 요구된다. 이 책은 빠른 결단을 내리는 법, 새로운 부서로 발령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등, 혼잡한 출퇴근길을 겪으며, 커피와 야근이 일상화된, 고단한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인생 코칭이다.

Tel. 02)732-2403~4 민족사

화두 참구의 길잡이!
깨달음의 길을 찾는 이들을 위한 선 수행의 필독서!
드디어 5년 만에 재간되다!

원문을 번역하고 현토(懸吐), 주와 해설을 붙인

벽암록 완역판

■ 원오극근 저 · 석지현 역주 해설 / 신국판 / 145,000원 (세트)



공안집의 최고봉, 선(禪)문화의 총결산 《벽암록》, 최초의 완역본! 석지현의 명쾌한 해설로 만나다.

Tel. 02)732-2403~4 민족사

마음의 비밀 – 알기 쉬운 유식입문

유식(唯識)에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뢰야식이라고 한다. 마음의 표층에서 생기는 감정이나 사고는 모두 아뢰야식에 축적되어 무의식중에 표정, 몸의 상태로 나타나 외모에까지 영향을 준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코드를 알면 누구든지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책은 갖가지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표층과 심층이 연결되는 비밀의 코드, 아뢰야식!

■ 요코야마 코이츠(横山紘一) 지음, 김명우 옮김
232쪽 / 10,800원 / 4×6판

Tel. 02)732-2403~4 민족사

불자 세상보기

# 아동학대 금지법, 제정 미룰일 아니다



이수경
동국대 불교아동학과 교수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 돌보미 17개월 아동 구타 반신마비 등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 전무하다. 가해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지만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 을 자고 있다.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 ) 제정안은 1년 넘게 법사위 소위에 상정조차 안된 채 계류 중이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학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은 것이다.

유아기의 아동들은 전체 인생에 있어 자존감과 정체성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의지처가 될 부모에게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학대를 받게 되면 아이들의 정서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다보면 단계적으로 사회의 부적응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감정에 의해 폭력이나 언어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에 대해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을 사회에서 막아주어야 한다. 어릴 때 폭력에 의해 상처입은 아이들이 자라서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대부분이 '나도 몰랐다' 는 대답을 한다고 한다. 자신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행하는 폭력 내지는 악의적 행동들이 생활 습관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먼저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부모에 대한 정신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내 자식인데 어때' 하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도록 하는 정신과 치료와 교육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학대를 일상으로 하는 부모를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그들도 사회에서 배려되어야만 하는 약자인 경우가 많다. 실직과 빈곤 등 여러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없어질 것이다.

문제는 가족들 속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경우 주변에서 문제삼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법 개정과 더불어 학대 받은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설보호 및 임시보호자 체계 등 제도마련이 있어야 한다. 주변 이웃이나 친척들이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 마련도 물론 함께 이어져야 한다.

어린이 집 등 아동시설에서 진행되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실무자들의 처우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어린이집은 설립 자격요건이 어렵지 않고 보육교사의 자격증 취득도 까다롭지 않다. 문제가 생겨도 단순한 행정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또 제대로 된 어린이 집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안되기고 있다. 교육부터 안전사고, 영양관리, 급식, 귀가차량 운전 등 보육교사 몇 명이 다하려면 아무리 의무감과 책임감을 갖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격있는 어린이집을 만들고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심각한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이슈화되면 항상 그 당시에만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언론과 정부는 말한다. 하지만 결국 다음 피해사례가 나타나도 원점으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이제 아동학대는 피해자 아동의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다. 아이들은 밝고 명랑하게 자라야 할 우리의 새싹이다. 이러한 새싹이 잘 자라나 건강한 나무와 꽃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조금 더 세심히 바라보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社說

# 나눔운동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달력이 한 장 남았다. 연말 분위기가 나기 시작한다. 많은 것을 마무리하는 시기이다. 바쁘고 힘들지만 주변을 따듯한 시선으로 돌아볼 때다. 불교계에서도 김장김치와 쌀 연탄 등 나눔 보시가 본격화됐다. 특히 사찰에서는 김장 운력이라 해서 한철을 나기위한 김장담그기를 겸해 관내 복지관 등에 나눔 행사를 펼치고 있다.

복지단체들도 동절기 생활여건이 어려운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돌보미가 매일 방문해 점검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급식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침체로 개인 및 기업의 후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결식아동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이번 연말은 혹독할 것 같다. 구조조정에 직장을 잃고 작은 가게라도 꾸려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지만 빚만 진 채 문을 닫아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 중에는 가족의 생존이 한계상황에 이른 경우도 있을 것이다. 도심 거리에는 절망에 빠진 노숙인들이 다시 늘고 있다.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거나 병든 조부모를 모시고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에겐 연말 분위기가 뼈아프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100만명 안팎의 독거노인은 겨울밤이 더욱 서럽고 외로울 것이다. 가난과 가정파탄으로 보육원에 맡겨진 아이, 양로원에 의지해 살아가는 노인도 매한가지다. 이들은 정부와 사회봉사단체의 빠듯한 부조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이들을 돕는 손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기업도, 개인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여유가 많지 않다.

작은 온정의 손길이 우리 이웃을 훈훈하게 할 것이다. 연말연시와 겨울을 어떻게 날지 걱정하는 이웃에게 불교계부터 솔선수범해 손을 힘껏 내민다면 이번 겨울은 어느때보다 따뜻할 것이다. 작은 사랑을 나누면 절망은 줄어들고 기쁨은 커진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다. 작은 관심과 자비행의 실천이 추운 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방편이다.

# 여성불자 108인 활용 그리고 동참

불교여성개발원의 '여성불자 108인' 선정 결과 발표가 있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이번 선정에는 방송, 정치행정, 법률, 보건의료, 경제, 언론출판, 문화예술, 교계단체, 사회단체, 복지, 자원봉사, 교육연구, 포교신행 13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이를 통해 명망있는 인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박강자 금호미술관 관장, 탤런트 김영애, 문보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현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 한말선 화계사신도회장 등이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 불자의 위상제고와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3년부터 격년제로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전문여성 108인을 선정해 왔다. 실제 정관계부터 재계, 학술계, 예술계 등 다방면의 여성 불자들이 이 '108인' 에 이름을 올렸다. 이런 선정은 분명 여성 불자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선정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이 같은 인적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선정된 108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여성 108인회' 가 있지만 바자회와 불교여성개발원 등의 행사 참여, 수련회 등을 제외하면 뚜렷한 활동을 찾기는 어렵다. 이는 고급 인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았지만 활용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식상한 속담이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고 했다. 6회의 선정을 진행했다면 총 648명이 여성불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108인 선정의 목적이 진정하게 여성불자 전문 인력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이라면 불교여성개발원은 수련회 개최 등 친목 행사와 더불어 전문적인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발언대

**불교계 국제구호 발전을 위해서는**

필리핀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옌'의 피해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 전세계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한국불교계도 발 빠르게 참여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은 11월 12일 긴급구호단 선발대를 급파하고 상황을 조사한 후 11월 19일 본진을 투입해 구호활동을 진행했다. 불교계 국제구호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포교사 · 신도회 연계 조직을



혜만 스님
조계종 사회국장

짧은 기간 내에 조계종에서 국내외적으로 펼친 구호활동 모습을 보면서 불교계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다고 느꼈다.

필리핀 태풍 피해 현장 소식을 듣고 바로 봉사단을 파견시켜 직접 현장을 답사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인 것은 불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회부와 복지담당 종사자들이 국내외 구호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불교 국제구호단체는 개신교 등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 활동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전세계 400만 명에 이르는 자원봉사자를 거느리고 있는 대만 자제공덕회처럼 위상을 떨치려면 한국 불교도 스님이 앞장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가자가 중심이 돼 활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신도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신도조직 네트워크를 형성해 국내 · 해외 교구본사와 연계해 구호 및 봉사활동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사회 각계에서 포교 일선의 전법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1만여 조계종 포교사를 활용해야 한다. 이분들이 전국 각지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정성이 대단하다. 이런 분들과 함께 중앙신도회와 전국 신도여러분 그리고 스님들이 합심해 구호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자제공덕회보다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국제구호 전문성이 필요하다



묘장 스님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이번에 필리핀 태풍 피해가 일어나면서 불교계가 발 빠르게 대처를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종단을 중심으로 구호대를 파견 긴급구호 예산 및 인력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본다.

사실 NGO단체들은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이 나서고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NGO들이 구호활동을 펼친다면 무엇보다 위급상황에서 순조로운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불교계에서도 국제구호단체들이 늘어나면서 제 3세계 국가에서 많은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다.

일부 단체들이 홍보를 중요시한 나머지 구호를 뒷전으로 하는 예도 보았다. 또 구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호대를 파견했다가 위험한 상황이 닥쳐 물건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구호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선발대를 파견해 현지의 상황파악을 충분히 하고 후발대를 보내 체계적인 구호를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불교계 국제구호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이루어졌으면 한다. 체계화된 구호활동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 구호단체도 기후변화 고민해야



민정희 사무국장
로터스월드

무엇보다 긴급구호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안타깝지만 불교계에서 이런 전문적인 역량을 찾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국제적으로 긴급 재난 지역이 발생하면 UN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개입해 구호물자와 지원금을 배분한다. 한국불교계는 아직 UN인도주의업무조정국의 협력기관이 아니다.

실제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재난 발생을 염두하고 재원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등 한국 유수의 개발NGO들도 긴급 현장 구호에 어려움을 겪는다. 무엇보다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한국불교계에는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는 필리핀을 덮친 '하이옌' 과 같은 이상 기후 재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는 국제구호 단체도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고민해야 한다.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분별한 소비와 개발에 의해 벌어진다. 삶의 방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일은 불교계 국제국호단체가 아니면 힘든 일이다. 단순하게 구호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원인을 줄여가는 일을 고민하고 이를 선도해 나갈 때 불교계 국제구호단체는 세계 속에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연꽃 같은 정수기, 시걸포!

연꽃이 내 몸과 마음, 정신을 정화하듯 시걸포는 내 몸에 물을 정화합니다




www.seagull4.co.kr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고 객 문 의
080-007-0980